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연구

- '-(으)ㅁ, -기, -((으)ㄹ／(으)ㄴ／는)것'을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리저난(李泽楠 LI Zenan)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연구

-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구본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리저난(李澤楠, LIZENAN)

리저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

부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법 교육적 시각에서 한국어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인 학습자가 표현 의도에 맞게 명사화소를 택하여 명사화 의미기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명사화의 통사적 기능과 명사형 어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알게 되는데 문장 내부 환경 속에서 논의되는 통사적 기능은 실제 담화 맥락과 관련짓기 어려운 지식이다. 학습자들이 통사적 기능을 잘 파악하더라도 언제, 왜, 어떤 상황에서 명사화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여 능동적으로 명사화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본고는 명사화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명사화와 관련하여 담화 화용적 기능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세부적인 의미기능 유형은 '주제 제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전제 유발', '객관성 확보 장치'와 '텍스트 응결성 실현'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학습자로 하여금 명사화가 실제적인 언어 사용에서 어떤 의미기능을 갖는지, 언어 전략으로서 의사소통 효과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게 하며 의사소통 목적에 맞게 명사화를 활용하려는 의식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세부적으로 각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이에 따른 제약을 파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명사화소들은 비명사적 구성을 명사적 구성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소이며 비명사적 표현에 명사적 성질을 부여한다는 점으로 유사한 통사적 기능을 공유하나 의미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담화

에서 명사화를 실현하여 의미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에서 맥락에 따라 정확하게 명사화소를 택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명사화라는 문법 현상의 의미기능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명사화소가 이들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양상까지 다루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명사화소 간의 대치 오류, 회피 오류, 명사화의 과도 사용 등 여러 가지의 오류 유형이 발견되었으며 학습자가 명사화의 의미기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명사화소와 관련된 관용표현을 잘 사용하면서도 명사화소를 사용하여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능력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및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용표현을 위주로 하는 교육 내용이 학습자가 명사화소를 활용하여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우므로 명사화 교육은 명사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명시화 의미기능 체계를 잘 인식해야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각 명사화소가 가지는 의미기능 실현 제약이 명사화소 간의 대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하나는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에 대한 인지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와 작용 층위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한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사용 목적에 맞게 명사화소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각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연계하여 교육하는 부분이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적인 관점으로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한국어의 명사화가 실제적인 언어 사용에서 가지는 화용적 가치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 구안한 교육 내용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화가 가지는 언어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명사화를 사용하려는 의식을 강화하고 명사화소를 구분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명사화, 명사화소, 담화 화용론, 의미기능

학 번 : 2020-27108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6
2.1. 국어학적 연구 ····· 6
2.2. 한국어 교육적 연구 ····· 10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4

Ⅱ.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이론적 전제 ····· 18
1. 명사화소의 개념 및 통사·의미적 특성 ····· 18
1.1. 명사화소의 개념 ····· 18
1.2. 통사·의미적 특성 ····· 20
2. 명사화의 의미기능 ····· 26
2.1. 이론적 배경 ····· 26
2.1.1. 문법의 의미기능 및 관련 연구 영역 ····· 26
2.1.2. 의미기능에 대한 담화 화용론적 접근 ····· 28
2.2. 명사화의 의미기능 ····· 36
2.2.1. 주제 제시 ····· 38
2.2.2.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 40
2.2.3. 전제 유발 ····· 43
2.2.4. 객관성 확보 장치 ····· 45
2.2.5. 텍스트 응결성 실현 ····· 48
3.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필요성 ····· 51
3.1. 문법 능력 측면 ····· 53
3.2. 화용 능력 측면 ····· 55
4.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 ····· 57
4.1. 명사화소 '-(으)ㅁ' ····· 57
4.2. 명사화소 '-기' ····· 63
4.3. 명사화소로서의 '-(으)ㄹ/(으)ㄴ/는 것' ····· 69
4.4. 명사화소 '-(으)ㅁ, -기,-(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과 제약의 대조 ····· 80

Ⅲ.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실현 양상 ····· 83
1.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적 검토 ····· 83
1.1. 예비조사 내용 ····· 84
1.2. 예비조사 분석 결과 ····· 86
1.3.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과 본조사를 향한 시사점 ····· 86
2. 본조사 ····· 87
2.1. 분석 방법 ····· 87
2.1.1. 분석 자료 ····· 87
2.1.2. 분석 절차 ····· 89
2.2. 분석 내용 및 결과 ····· 90
2.2.1.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 ····· 90
2.2.2.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시사점 ····· 111

Ⅳ.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 ····· 115
1.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목표 ····· 115
2.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내용 ····· 116
2.1. 명사화소 교육 내용의 체계 ····· 116
2.2. 교육을 위한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 재구성 ····· 118
3.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실제 ····· 121
3.1. 명사화의 의미기능 ····· 122
3.1.1. 텍스트 구조와 관련된 의미기능 ····· 122
3.1.2. 태도 표현과 관련된 의미기능 ····· 128
3.2.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 ····· 129

Ⅴ. 결론 ····· 135

참고문헌 ····· 137
Abstract ····· 145

<표 차례>

[표 1]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4
[표 2] ‘-(으)ㅁ ,-기’ 명사화 내포문의 상위 술어 우형식(1987:135) ·· 22
[표 3] 명사화소 ‘-(으)ㅁ, -기 , -(으)ㄹ／(으)ㄴ／는 것’ 의미적 특성 26
[표 4] 문법적 응결 자원 (Halliday · Matthiessen, 2014:608) ····· 35
[표 5] 명사화의 의미기능 분석의 틀 ····· 36
[표 6]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 ····· 38
[표 7] 주제 유형과 실현 방식 ····· 39
[표 8] 한국어의 텍스트 유형 분류 (서혁 1995:128 참조) ····· 46
[표 9]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수행 양상과 제약 ····· 82
[표 10]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의미기능 이해 양상 측정 도구 (일부) ·· 85
[표 11] 분석 자료 ····· 89
[표 12] 학습자의 ‘주제 제시’의미기능 실현 양상(횟수) ····· 91
[표 13] 학습자의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의미기능 실현 양상 (횟수) ····· 96
[표 14] 학습자의 ‘전제 유발’의미기능 실현 양상(횟수) ····· 100
[표 15] 학습자의 ‘객관성 확보 장치’의미기능 실현 양상 (횟수) ·· 103
[표 16] 학습자의 ’텍스트 응결성 실현’의미기능 실현 양상(횟수) ···· 106
[표 17] 학습자 오류 유형 ····· 111
[표 18] 학습자의 명사절 내포문 사용 양상(횟수) ····· 111
[표 19] 텍스트 구조 층위와 관련 내용(이미혜 2010) ····· 120
[표 20] 명사화 의미기능의 실현과 텍스트 구조 층위의 대응 관계 ··· 120
[표 21] 재구성된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 ····· 121

<그림 차례>

[그림 1] 제35회 TOPIK 54번 문항 ····· 93
[그림 2] 제60회 TOPIK 54번 문항 ····· 94
[그림 3] TOPIK 제60회 53번 쓰기 문항 ····· 98
[그림 4]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체계 ····· 11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 언어 교육 이론인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졌다. 실제 담화에서는 의사소통이 다양한 맥락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법의 형태적·의미적 지식만 가지고서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법 교육에서 문법 형태가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지닌 의미와 기능이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문법 교육적 목적으로 명사화[1]가 실제 사용에서 나타내는 의미기능[2] 유형을 정리하여 각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연관 지어 구체적인 의미기능의 실현 양상을 파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명사화소 '-(으)ㅁ,-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명사화소의 의미기능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

1) 명사화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본고는 명사화소에 의한 통사적 명사화에 연구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특정 문법 형태는 형태·통사·화용적 의미를 가지고 문장이나 담화 차원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능'이라는 용어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본고는 커팅(2008)에서 기능(function)이란 화자의 특정한 발화나 언어 단위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목적이라고 정의한 것에 따라 문법의 '기능'을 어떤 문법 형태가 지닌 의미가 발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에 맞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의미가 기능이 실현되는 기초가 된다. 의미와 기능 양자가 나누어 논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 본고에서 '의미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습자가 담화 맥락에 따라 의도적으로 명사화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의 명사화 논의가 주로 명사형 어미 '-(으)ㅁ' 과 '-기' 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어 명사화 교육 연구도 '-(으)ㅁ, -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명사화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명사형 어미 '-(ㅇ)ㅁ,-기' 의 문법적 기능, 상위문 서술어 제약, 통사·의미상 특징 비교[3] 등 형태·통사·의미론적인 지식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 언어 사용에서 명사화 구문을 생성적으로 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언어 사용의 본질은 발화나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명사화라는 문법 현상이 담화에서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에는 통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화용적 의미도 있다. 명사화의 화용적 가치를 잘 인식하여야 명사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식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태·통사·의미론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만으로는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능동적으로 명사화를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3) 시령리(2019)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총 14종을 선정하여 명사형 어미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들 교재에 포함된 교육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재 포함 내용	형태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설명
	각 형태의 선택 조건에 대한 설명
	결합하는 어간 조건에 대한 설명
	형태 간의 통사·의미상 특징 비교 내용
	연어 구성 관련 내용
	예문과 관련한 그림이나 표 제시
	종결 표현으로 쓰인 경우에 대한 설명

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으)ㄹ/(으)ㄴ/는 것’이 명사화 논의에 포함 여부에 대하여 민현식(1990)에서는 ‘-(으)ㅁ,-기’를 기본 명사화소로 보며 ‘관형화소 +것’에 해당하는 구성을 부차적 명사화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남기심, 고영근(1985/2011:387)에서도 구어에서 ‘-는 것’이 명사형 어미 ‘-음, -기’를 대신하여 사용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김종복·김태호(2009)에 따라 명사형 어미 ‘-음’과 ‘-기’는 ‘-(으)ㄹ/(으)ㄴ/는 것’으로 자유롭게 교체될 수 있지만 ‘-(으)ㄹ/(으)ㄴ/는 것’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음’이나 ‘-기’ 중 하나로만 선택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 ‘-(으)ㄹ/(으)ㄴ/는 것’과 ‘-(으)ㅁ, -기’를 적절하게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사화에 대한 문법 교육의 중요 과제이다. 한송화(2002)는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형 어미 ’-기’, ‘-음’과 ‘-는 것’의 오류 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와 ‘-는 것’ 간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류 방지을 위해 ‘-(으)ㄹ/(으)ㄴ/는 것’도 명사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에는 동명사화, 파생 명사화, 통사적 명사화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명사화 유형이 존재한다. 동사적 속성이 완전히 소멸되어 어휘로 굳어지게 되는 어휘적 명사화에 비해 명사화 기능소에 의하여 동사적 절을 명사절로 전환하는 통사적 명사화는 동사구의 통사적 구조를 보유하면서도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Givón(1990: 498)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동사적 절이 다른 절 내에서 명사적 자리에 오거나 명사적 기능을 수행할 때(nominal position or function) 명사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질

적으로 보면 통사적 명사화의 실현은 명사절의 생성과 분리될 수 없다. 자유롭게 명사절을 생성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명사절의 생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명사화 기능소에 주목해야 한다. 김홍수(1993)에서 이와 관련하여 국어 명사화 논의가 '-(으)ㅁ, -기'의 존재를 특징적인 것으로 보아 명사형 어미 '-(으)ㅁ, -기'에 고정되어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으)ㄹ/(으)ㄴ/는 것' 도 통사적 명사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소로서 명사형 어미 '-(으)ㅁ, -기'와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비명사적 구성을 명사적 구성이 되도록 만드는 기능소를 명사화소라고 정의하였다. 본고는 '명사화소'라는 개념을 빌려 이를 상위 범주로 설정하고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명사화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문법으로서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크게 갖고 있다. 정확한 문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명사화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명사화 사용의 문법적 의미와 제약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데 담화 맥락에 따라 명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맥락 요소를 결합하여 명사화의 담화 화용적 의미기능을 분석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이 유사한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학습자가 맥락에 따라 명사화소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를 논의해 놓은 기초 위에서 각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수행 양상과 제약에 관

한 교육 내용도 필요하다.

명사화의 핵심은 용언이나 문장을 동사적 의미 범주부터 명사적 의미 범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동사구나 전체적인 문장으로부터 생성된 명사화 구문은 일반적인 명사에 비해 복잡한 통사적 구조를 가지며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명사와 동사의 범주가 결합된 혼합 범주의 속성을 지닌 채 의사소통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세형(2005)에 따르면 학습자가 형태적인 면에 관한 지식만 가지면 언어 행위를 하기 힘들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적 목적으로 명사화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의미기능과 연결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위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설계의 이론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담화 화용론과 체계 기능 언어학 등 언어 이론에 근거하여 명사화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세분화한다.

둘째,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명사화소 '-(으)ㅁ, -기,-(으)ㄹ／(으)ㄴ／는 것'의 의미적 특성을 의미기능 수행과 연결하여 각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과 제약을 규명하는 것이다.

셋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파악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넷째,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수행 양상과 학습자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본고는 현행 명사화 교육을 보완하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명사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은 '명사화'와 관련한 국어학적 논의와 '명사화 교육'에 초점을 둔 한국어 교육적 논의의 두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1. 국어학적 연구

국어학 분야에서 명사형 어미 '-음, -기'의 형태·통사·의미적 특성에 관한 논쟁이 종종 있었고 '-(으)ㄹ/(으)ㄴ/는 것' 이 명사화소인지 의존명사인지에 대한 논의[4]과 각 명사화 유형의 의미기능적 탐구도 지속되어 왔다.

같은 문법범주에 속하여 비슷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으)ㅁ, -기' 간의 통사·의미적 차이점에 주목한 선행 연구가 많았는데 그 예로 임홍빈(1974), 채완(1979), 홍종선(1983), 우형식(1987), 최형기(1991), 김일환·박종원(2003), 정주리(2006:298) 등을 들 수 있다.

임홍빈(1974: 89-90)은 '-기'가 [-존재]라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어떤 사실에 적용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에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으)ㅁ'에 대하여서는 '-기'와 반대로 [존재]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채완(1979)에서는 '-(으)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특성을

4) '것'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문자, 명사화 어미, 형식명사 등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

가진다고 하였고 '-기'에 대하여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홍종선(1983)은 '-(으)ㅁ, -기' 가 역사적으로 가졌던 의미에 근거하여 이들이 현대 국어에서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는 '-기' 가 원래 '비시제적 '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현대 국어에서 시제적 제한을 받지 않는 관념적·추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가 명사형 어미 '-(으)ㅁ, -기' 의 의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으나 '-기' 가 [미래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일부 지니고 있다.

우형식(1987)에 따르면 '-(으)ㅁ' 과 '-기' 두 어미가 공통적인 명사화의 기능만 지니면 어느 하나만으로 족할 것이나 양자가 명사화 보문소로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며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연구는 고유한 의미적 차이에 따라 '-(으)ㅁ, -기' 가 명사화소로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양상도 어느 정도 배타적이고 상보적인 분포를 보임을 암시해 주었다.

최형기(1991)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으)ㅁ, -기' 의미적 대조를 바탕으로 '-기' 명사화를 허용하지만 '-음' 명사화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예문을 해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세국어에서 '-(으)ㅁ' 명사화가 모든 유형의 명사화를 포괄할 수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으)ㅁ' 이 '-기' 보다 강한 명사적 성격을 지니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일환·박종원(2003)은 세종 균형 코퍼스를 이용하여 상위 서술어, 시제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제약, 주어적 속격이나 문장종결 어미로 쓰이는 가능성 등 다

양한 면에서 직관적으로 '-(으)ㅁ, -기'의 분포 양상을 제시하였다.

정주리(2006)에서는 시간적 관점을 바탕으로 '-음'과 '-기'의 의미적 차이를 제시하였다. '(으)ㅁ'은 [과거성]을 나타내며 '-기'는 [미래성]을 나타낸다. 이런 시간적 특성의 차이점에 대하여 [과거성]을 '이미 수행했거나 발생한 일', [미래성]을 '앞으로 일어나거나 수행할 일'이라고 해석하였다.

명사화 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 '-(으)ㄹ/(으)ㄴ/는 것'에 대해 고려한 연구로 남기심(1989), 김흥수(1993), 김종복·김태호(2009), 김건희(2021) 등이 있다.

남기심(1989)은 '것'이 가지고 있는 동사를 명사화(nominalization)하는 기능을 근거하여 '-음, -기'와 같이 명사화 어미(nominalizer)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김흥수(1993)에서는 '-(으)ㅁ, -기' 명사화를 허용하지 못하는 '-(으)ㄹ/(으)ㄴ/는 것' 명사화 구문을 예시로 제시하고 문장에서 명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으)ㄹ/(으)ㄴ/는 것' 구성도 명사화의 체계 안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건희(2021)에서는 국어학 논의에서 '것' 구문 등을 명사절에 포함시키는 논의들에 대하여 '것' 구문이 '어휘적 명사화'와 '-음, -기' 명사절보다 훨씬 넓은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종복·김태호(2009)에서는 '것'이 가지는 의존명사, 보문자, 명사형 어미로서의 기능을 논의하였고 '것'이 이끄는 명사화 구문과 '-(으)ㅁ, -기' 명사화 구문 간의 교체 가능성을 밝혀 '것' 구문의 명사화 기능이 '-(으)ㅁ, -기' 명사화와 상이하다는 점을 보이면서 '것' 보문절의 문법적 특징과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으)ㅁ'와 '-기'의 고유적 특성에 대한 논의들은 뒤에서 이어지는 명사화의 의미기능에 관한 논의들에 통사·의미론적 토대가 되었다.

심재기(1980)는 [실체성]과 [완료성]을 중심으로 '-(으)ㅁ, -기'의 의미기능을 탐구하였다. 명사화의 본질이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에 '실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과 관련되어 '-기'의 실체성이 '-(으)ㅁ'보다 약하기 때문에 동사적 대상을 실체화하는 의미기능에서 '-기, - (으)ㅁ'과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으)ㅁ'이 [완료성] 때문에 객관적 기술인 시상(時相)을 나타내며 '-기'가 [미완료성]을 지니고 주관적 인식 양상(認識樣相)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언급하였다.

남기심(1991)에서는 지시기능을 중심으로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이어서 김홍수(1993)는 명사화와 관련된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을 논의하고 그 지시기능에 대하여 '것'이 별 제약 없이 행동, 사태, 사실을 지시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반해 '-음,-기'가 자체의 의미적 특성 때문에 지시적 의미를 수행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김홍수(1995)에서 다양한 명사화 유형의 담화 기능이 텍스트·화용·문체 등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하였다. 명사화의 문법외적 기능에 대하여 명사화가 객관적 양태 의미를 중요시하는 문체에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명사화 의미기능 범위의 확장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한편, 담화·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연구들에서 명사화, 명사형 어미 '-(으)ㅁ, -기'나 '-(으)ㄹ/(으)ㄴ/는 것' 구성 등이 언급된 바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복합문 구성 기제로서의 명사절 내포문(남기심·고영근, 2014), 객

관적 태도 표현으로서의 명사문체 '-(으)ㅁ, 것' (김한샘・배미연, 2017), 양태 의미 표현으로서의 '-는 것이다' 구성(박나리 2012, 이혜현 2016)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국어학 연구 영역에서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세 가지를 명사화 기능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이 논의하는 연구가 많지 않고 명사화소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수행하는 의미기능에 대한 접근도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많은 담화 화용적 기능과 관련된 연구에서 명사화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명사화 자체의 의미기능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2.2. 한국어 교육적 연구

기존의 한국어 교육적 연구는 주로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 -기'와 명사절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 -기' 에 관한 교육 연구에 있어 통사・의미적 특징과 용언 결합 제약 등에 주목한 고경태(2008), 김정남(2013), 학습자 사용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손려평(2013), 소해도(2014), 교재의 교육 내용을 분석한 시령리(2019), 김현아(2019), 김지아(2021) 등이 있다.

고경태(2008)에서는 세종 말뭉치를 분석하고 사전과 교재들을 참고로 명사화소 '-(으)ㅁ' 과 '-기' 와 결합하여 사용된 용언 총 1,152개를 정리하여 덩어리로서의 패턴을 제시해 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김정남(2013)은 '-기' 와 관련된 서술어와 문형에 초점을 두어 《표준국어대사전》의 문형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고경태(2008)와 김정남(2013)의 논의 결과는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에 근

접해지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손려평(2013)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명사화 구성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 ‘-음’, ‘-는 것’ 세 가지 구성 가운데 사용 오류율이 높은 ‘-기’, ‘-음’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형태 초점 교수법을 바탕으로 명사형 어미 ‘-기’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것’ 명사화를 간과하였다는 점과 형태적 지식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점으로 한계성을 보이지만 어느 정도 한국어 명사화 교육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소해도(2014)에서는 명사형 어미 ‘-(으)ㅁ’과 ‘-기’의 의미 및 통사적 특징을 고찰하고 사용 오류 양상을 조사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형 어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가 ‘-(으)ㅁ’과 ‘-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없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으)ㅁ’과 ‘-기’의 의미기능과 구체적인 쓰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의미기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으)ㅁ, -기’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통사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교재 분석 연구에 있어 시령리(2019)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명사형 어미에 관한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명사화의 대조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음, -기’만 초점을 두고 있다. 김지아(2021)는 세종 말뭉치와 학습자 말뭉치를 통하여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의 실제적 사용 양상을 살피고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음’에 관련된 교수 요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문법 항목에만 집중하는 귀납적 교육

방안으로서 실용성이 낮다는 점이 아쉽다. 문법 지식에 관한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측면까지 살펴본 김현아(2019)는 언어권 구별 없이 명사화 전성어미 '-음, -기' 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교육 활동의 예문을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명사절 교육의 실태에 대하여 한송화(2015)는 문법 형태 '-(으)ㅁ, -기, 관형사형+것'을 명사절과 연계하여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명사절을 구성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였다. 명사절 교육이 본질적으로 명사절이 생성되는 과정을 주목하지 않고 편의성을 위해 관용적인 복합형식만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연구들을 살피자면 장미라(2012)는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화된 문형으로 '-(으)ㅁ, -기' 명사절을 교육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우동서(2016)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으)ㅁ', '-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기 때문이다', '-기 위해(서)', '-기로 하다' 등 명사형 어미가 포함된 복합형식 위주로 교육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우동서(2016)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명사절 사용 양상에서 복합형식의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명사절을 구사하는 능력은 높지 않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복합형식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불충분함을 지적한 데에 의의가 있으나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강사우(2017)는 명사형 어미 '-기, -음'과 후행 용언을 함께 패턴으로 제시하는 결합형태의 교육이 오히려 학습자에게 부담을 가져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가 정해져 있는 복합형식을 먼저 인식하더라도 이를 다시 활용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명사화에 대한 교육적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명사형 어미 '-(으)ㅁ, -기'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

둘째, 명사화의 문법 형태를 의미기능과 연계하는 연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어 교육적 연구가 아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국어 교육적 연구로 소지영(2016)이 있다. 소지영(2016)은 국어 교육적 시각에서 명사화의 의미기능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제 사용 맥락에서 숙련자의 명사화 실현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명사화 의미기능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사적 구문의 핵심적 의미를 요약하여 명사로 환언하는 속격 구문, 명사 병치 구문 등을 모두 명사화 개념에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속격 구문이나 명사 병치 구문에 의하여 실현된 명사화는 내용을 재해석하여 환언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명사화소에 의한 명사화와 차이가 있다. 전자의 실현은 개념적 은유와 관련이 있어 전형성을 갖추는 법칙을 터득하기 어렵다. 소지영(2016)에서 '-음, -기' 명사화, '-(으)ㄹ/(으)ㄴ/는 것' 명사화 , '의' 속격 구문, 명사 병치 구문 등을 다 포함하는 '명사화' 개념을 바탕으로 명사화의 의미기능의 범주를 정립하였으나 다양한 명사화 유형을 명사화 의미기능과 일대일로 연계하는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사화 교육에 적용되면 혼란을 초래하겠으나 명사화 의미기능 교육을 위한 의미기능의 범주 설정을 논의할 때 맥락 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적으로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한국어 교육적 연구들에서 형태·통사·의미론 측면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언어 사용과 거리가 멀거나 복합형식을 위주로 하여 명사화의 본질을 간과하였다는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들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언어학적으로 명사화 의미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언어학적 분석 결과를 문법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방안을 구안하는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는 학습자가 자신의 표현 의도에 따라 명사화소를 담화 맥락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위한 세부 연구 단계와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Ⅱ장: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이론적 전제	명사화소의 개념 및 특성 고찰	문헌 연구
	명사화의 의미기능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필요성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	
Ⅲ장: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	텍스트 분석
Ⅳ장: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내용의 선정과 설계	문헌 연구 Ⅲ장 분석 결과 활용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의 핵심은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

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명사화 기능에 대한 논의들은 실제적인 담화 맥락 요소를 소홀히 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고는 실제 담화·텍스트 맥락을 중시하는 담화 화용론과 체계 기능 언어학을 명사화의 화용적 기능을 탐색하는 이론적 근거로 선정한다.

Ⅱ장에서는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이론적 전제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 명사화소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그 다음에 담화 화용론과 관련 연구 영역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게 되는 개념들과 명사화의 관련성을 찾으면서 명사화의 화용적 기능에 대하여 다룬다. 명사화의 의미기능 범위를 확장하여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후에 의미기능을 각 명사화소의 고유적 특성과 연관지어 명사화소들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파악한다.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와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문법 교육적 내용으로 이용하려면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방안을 설계하기 전에 의미기능에 따라 학습자가 명사화소의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Ⅲ장은 학습자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이자 Ⅱ장에서 분석된 명사화소들의 의미기능 수행 양상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적 전문가[5]가 생성한 텍스트인 TOPIK 쓰기 모범답안에서 나온 명사화소에 대한 활용 양상이 의미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명사화 구문이 실제 텍

5) 서유연(2018)에서는 Lubie Grujicic-Alatriste(2005)가 텍스트 생산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정의한 것을 빌려서 TOPIK 모범답안 텍스트가 한국어의 담화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텍스트 장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생산되었거나 전문적인 교육적 평가 과정에 기반한 글이라고 하였다.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란 담화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텍스트 장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며, 비전문가란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텍스트 장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한다 (Lubie Grujicic-Alatriste, 2005).

스트에서 실현하는 의미기능을 고찰하는 것과 더불어 모범답안 텍스트를 보강 자료로 삼으로써 II 장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로 한다. 본조사의 연구 방법이 텍스트 분석으로 진행되는 것은 연구 목적과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에 기반한 것이다. 명사화 의미기능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 문법적인 것이 아니라 담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화용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기능에 대한 활용 능력은 학습자가 담화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맞게 담화 맥락을 고려하며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활용 양상을 측정하려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자연스럽게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본고는 학습자가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 생성한 명사화 구문을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한 활용의 구현으로 삼아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 방법으로 정하기로 한다. 분석 자료로서의 텍스트 수집에 있어 명사화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텍스트 유형인 설명적 텍스트나 논술적 텍스트에 초점을 두었다. TOPIK 쓰기 영역 53번 문항과 54번 문항이 각각 설명적 텍스트와 논술적 텍스트에 해당하며 고급 중국인 학습자에게 난이도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명사화 의미기능 실현 양상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 주제로 간주하였다.

학습자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 50명을 자료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범위를 고급 학습자에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중급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6]도 있기 때문에 초·중급 학습자들은 명사화소 '-음,-기,-(으)ㄹ/(으)ㄴ/는 것' 세 가지를 다

[6] 시령리(2019)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명사화 관련된 교육 내용을 중고급 단계에 제시하는 교재가 5종이 있다.

습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텍스트 맥락에 따라 명사화소를 활용하는 능력의 전제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능력과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능력이다. 초·중급 학습자는 쓰기 능력 충분하지 않아 연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Ⅱ.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이론적 전제

1. 명사화소의 개념 및 통사·의미적 특성

명사화라는 문법 현상은 통사 절차의 차이 등에 따라 접미사에 의한 명사 파생, 속격 조사에 의한 속격 구문[7], '-(으)ㅁ, -기' 명사화, '것' 명사화 등 여러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절의 목적은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명사화소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수행에 관여하는 통사·의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1.1. 명사화소의 개념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명사화 개념은 동사적 표현을 명사적 범주로 전환시키는 재범주화 과정을 의미한다. 동사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 명사의 성질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명사화라는 범주 전환 과정은 명사절로의 전환과 명사로의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동사적 표현 뒤에 명사형 어미 '-(으)ㅁ, -기'나 '관형사형 어미+ 것' 구성을 붙임으로써 동사적 표현의 내부 구조를 파괴하지 않은 채 전체 구문을 명사절로 전환한다. 후자는 동사적 표현의 핵심 의미를 요약하여 원래의 동사적 구조를 명사 어휘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예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1)
ㄱ. 공부를 열심히 하다 --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명사절로의 전환)
ㄴ. 의견이 서로 다르다 -- 의견 충돌 (명사로의 전환)

7) 김홍수(1993)는 속격 구조도 명사화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고 김홍수(1995)에서 명사화의 담화·문체 기능에 대하여 다시 속격 명사화류를 언급하였다.

예시(1ㄱ)처럼 동사적 표현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명사절로 전환되면 내부의 통사적 구조가 똑같이 유지된다. (1ㄴ)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어휘 '충돌'이 원래의 통사적 구조를 대치하고 있다. 명사절을 형성함으로써 실현된 명사화 유형들의 특징은 동사적 표현의 통사적 구조를 유지한 채 명사적 성격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사형 어미 '-(으)ㅁ, -기'나 '-(으)ㄹ/(으)ㄴ/는 것' 구성에 의하여 실현되는 명사화가 통사적 명사화[8]의 범주에 속한다. 통사적 명사화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ㄱ. 줄넘다 -- 줄넘기/ 살다 -- 삶
ㄴ. 노래하다 -- 노래하기
밥을 먹다 -- 밥을 먹는 것
지난주의 체육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난주의 체육 대회에서 우승했음

예문(2ㄱ)과 (2ㄷ)를 대조하면 알 수 있듯이 통사적 명사화는 동사적 어휘뿐만 아니라 복잡한 통사적 구조를 갖는 동사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동사적 서술성과 명사적 상태성을 지니는 통사적 명사화 구문은 다양한 의미기능을 할 수 있는 잠래력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이러한 통사적 명사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소[9]로 명사형 어미로서의 '-(으)ㅁ, -기'[10]와 '것'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으)ㄹ/(으)ㄴ/는 것'을 명사화소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8) 왕문용·민현식(1993)에 따라 통사적 명사화로서 '-(으)ㅁ,-기' 명사화와 '것' 명사화가 동의적 분포이다.

9)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비명사적 구성을 명사적 구성이 되도록 만드는 기능소를 명사화소라고 정의하였다.

10) 파생접미사로서의 '-(으)ㅁ, -기'가 명사로 굳어지는 파생명사를 형성함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형 어미로서의 '-(으)ㅁ ,-기'와 구분된다.

각 명사화소가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명사화소들이 자체적으로 가지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명사화소 의미기능 논의를 위하여서 각 명사화소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또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2. 통사·의미적 특성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논의하려면 의존명사나 보문명사로서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김정주(2014)에 따라 '것'이 기능을 수행하는 통사적 양상에 크게 관형어와 결합하는 경우와 관형절과 결합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3)
ㄱ. 그 것, 내 것, 친구의 것
ㄴ. 먹고 싶은 것, 말씀해 주신 것

(3ㄱ)은 직접적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것'과, 속격 조사에 의하여 체언의 수식을 받는 '것'의 예시이며 의존명사로서의 것에 한정된다. (3 ㄴ)은 '것'이 관형사형 어미에 의하여 관형절과 결합하는 예시이며 '것' 명사화 구문과 통사적 구조가 비슷하다. 즉, 명사화소로서의 '-(으)ㄹ/(으)ㄴ/는 것'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야 명사화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으)ㄹ/(으)ㄴ/는 것'이 명사화 구문을 형성할 때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에게 영향을 받는다.

(4)
ㄱ. <u>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u>이 행복하다.
ㄴ. <u>술 마시고 전남친에게 전화한 것</u>이 너무 창피했다.
ㄷ. 그는 <u>그녀에게 장가갈 것</u>을 결심하였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것' 명사화 구문이 다른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 현재·

과거·미래적 의미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은 시제 제약이 없다는 의미적 특성을 지닌다.

'것'이 다른 보문명사와 구분되어 명사화소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김홍수(1993)에서는 '것'의 '비명시성'과 '화맥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시로 설명될 수 있다.

(5)
ㄱ. 아빠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사실)을 알려주었다.
ㄴ. 말씀해 주신 것(의견)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ㄷ. 이렇게 진심을 담아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행동,?사건)에 감사합니다.

예시(5ㄱ)에 나온 '것'이 보문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의미론적으로 보면 '것'이 보문명사 '사실'로 대체될 수 있다. (5ㄴ)의 '것' 또한 상대방이 말로 알려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리키며 소괄호 안의 보문명사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다. (5ㄷ)의 '것' 구문은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 의견을 말씀해 주는 동작을 의미한다. 이때는 보문명사 '행동·사건' 등으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면 문장 전체가 어색해 보인다. (5ㄷ)처럼 의미영역이 불확정적이어서 특정한 보문명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비명시성'을 가지는 '것'으로 채워주면 효과적이다[11]. 이처럼 '것'이 의미 범주가 서로 다른 '사실, 의견, 동작'을 고루 지시할 수 있는 이유는 '것' 자체가 특정한 의미가 없고 의미적 '비명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5ㄴ)와 (5ㄷ)에서 비슷한 통사 구조를 갖는 '것' 구문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것'의 '비명시성'과 '화맥 관련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명사화소 '-(으)ㅁ, -기'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관한 논의이다. '-

11) 김홍수(1993)는 화자의 인식이 불충분하고 불명확할 때 '것'은 그 비명시성과 화맥관련성에 힘입어 그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채워 준다고 하였다.

(으)ㅁ, -기’ 간의 통사적 차이와 의미상의 상보적인 분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 통사적 특성에 대한 논의들은 ‘-(으)ㅁ, -기’ 중의 하나만 선택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권재일(1981)은 통사론적인 측면으로 ‘-(으)ㅁ’과 ‘-기’ 중의 하나만 허용하는 상위문 서술어, ‘-(으)ㅁ, -기’를 모두 허용하는 상·하위문 술어, ‘-(으)ㅁ, -기’와 조사의 결합 제약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으)ㅁ, -기’ 내포문이 받는 상·하위 서술어 제약, 내포문 서술어와 결합할 때의 시상 제약과 종결 표현으로서의 특수 용법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상위 서술어에 대한 논의에 있어 우형식(1987:135)에서는 ‘-(으)ㅁ, -기’ 명사화 내포문의 상위 술어 동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 ‘-(으)ㅁ ,-기’ 명사화 내포문의 상위 술어 우형식(1987:135)

‘-(으)ㅁ’ 명사화 내포문		‘-기’ 명사화 내포문	
목적어인 경우	주어인 경우	목적어인 경우	주어인 경우
인지 표현의 동사류: 믿다 깨닫다 모르다 느끼다 짐작하다 등	감정 표현의 상태 동사: 분명하다 마땅하다 단언하다 현명하다 중요하다 등	감정 표현의 동사류: 좋아하다 두려워하다 찬성하다 싫어하다 저주하다 등	감정적 평가표현의 상태 동사: 좋다 민망하다 슬프다 어렵다 등
전달 표현의 동사류: 주장하다 소개하다 속이다 언급하다 등	발견 과정 표현의 동작 동사: 알려지다 드러나다 밝혀지다	소망 표현의 동사류: 기도하다 기대하다 원하다 청하다 기다리다 등	개연성 표현의 상태 동사: 어렵다, 쉽다
발견 과정의 동사류: 발견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N-이다’류 동사구: 불만이다 유감이다 사실이다	종지 표현의 동사류: 거부하다 생략하다 포기하다 쉬다 등	‘N-이다’류 동사구: 마련이다 나름이다 다행이다

<table>
<tr><td>가리키다</td><td>잘못이다</td><td></td><td>예사이다 등</td></tr>
<tr><td rowspan="2">경멸 표현의 동사류:
시기하다
얕보다
무시하다
경멸하다
등</td><td rowspan="2"></td><td>착수 표현의 동사류:
시작하다
모색하다
제안하다
등</td><td rowspan="2">‘N-이/가 없다’ 류 동사구:
한이 없다
짝이 없다
이를 데 없다
그지없다</td></tr>
<tr><td>그 밖의 동사류:
무릅쓰다
위하다
잘하다</td></tr>
</table>

우형식(1987)처럼 ‘-(으)ㅁ, -기’ 내포문의 서술어 제약에 집중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본질적으로는 단순한 나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이러한 서술어 결합 제약의 본질을 탐구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김기북(1996)에서는 ‘-(으)ㅁ, -기’ 의 통사론적 특성을 고찰할 때 명사화 내포문이 상위 동사와의 통합 관계를 유형화한다고 주장하며 ‘-(으)ㅁ, -기’ 명사화 내포문을 허용하는 상위문 동사의 의미적 특성을 주의 깊게 살폈다. 김기북(1996)은 ‘-(으)ㅁ, -기’ 가 통사적 제약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의미적 차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의미적 차이에 대한 분석이 명사화 정도의 차이에 그친 것이 아쉬움이다. 이 연구는 통사론과 의미론을 통합하여 ‘-(으)ㅁ, -기’ 의 특성을 고찰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명사화소 ‘-(으)ㅁ, -기’ 의 통사적 제약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명사형 어미 자체의 의미적 특성이다. 문법 형태의 의미기능을 분석하고 교육적 응용에 있어 문법 형태의 고유적 특성을 기능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적 특성이 통사적 제약이 생겨난 이유이며 문법의 의미기능이 실현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으)ㅁ, -기'의 의미적 특성을 문법 형태와 의미 기능의 연결점으로 삼아 이 절의 분석이 의미적 특성을 위주로 제시하기로 한다.

'-(으)ㅁ'은 강한 명사성을 가지므로 형용사나 동사와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기'는 명사적 성격이 약하며 강한 서술성을 가지므로 '-기에', '-기로', '-기도 하다', '-기 때문에' 등 특정 형식으로 형용사나 상태 동사를 하위 술어로 허용하는데 명사절을 구성하는 데에 형용사나 상태 동사와의 결합이 제약을 받는 양상이 많이 관찰된다.

(6)
ㄱ. 날씨가 너무 춥기에 나갈 생각이 하나도 없다.
ㄴ. 그녀가 이쁘기도 한데 성격이 나빠.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요.
ㄷ. *그 사람이 준 따뜻하기를 잊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준 따뜻함을 잊을 수 없다.

(6ㄷ)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형용사 '따뜻하다'가 '-(으)ㅁ'에 의하여 실체성을 받아 명사가 되고 인지 동사 '잊다'의 목적어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와 결합할 때 문장이 어색해져 비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재기(1980)에서는 '-기'가 '- (으)ㅁ'처럼 자유롭게 상태 동사를 전성명사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으)ㅁ, -기'가 명사절을 형성할 때 시상 어미와의 결합에 있어도 제약을 받는다. '-(으)ㅁ'의 시간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었-'과의 결합이 별 제약을 받지 않는 데 반해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드러내는 '-겠-'과의 결합은 의미적인 상충 때문에 제약된다. '-기'의 경우는 '-았/었-, -겠-'과의 결합이 모두 제약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 상황도 존재한다.

(7)
ㄱ. 나 오늘 공부를 해야겠음.
ㄴ. *예희는 높이뛰었기를 잘한다. (정주리, 2006:294)
ㄷ. 예희는 같은 팀 선수들이 높이 뛰었기를 바란다. (정주리, 2006:294)
ㄹ. 권일이와 미혜는 모두 학교를 갔기 때문이었다. (박효정, 2018:229-230)

(7ㄱ)처럼 화자가 미래의 사건에 대해 강한 의지나 의도를 표현할 때 '-겠-'과 '-ㅁ'의 결합이 허용된다. 이때는 '-겠-'의 미정적인 의미가 강한 의도에 의해 약해지고 [결정성]을 지니는 '-(으)ㅁ' 과의 의미적 충돌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7ㄴ)에서는 '높이뛰었기' 의 '-기' 가 전성명사를 생성하는 접미사로서 일반화된 개념을 나타내며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과 결합하는 경우 시간적 의미로 인해 조화롭지 않아 비문이 된다. (7ㄷ)에서는 '-기' 가 명사절을 생성한 명사형 어미로서 [미래성·미완료성]을 지니는데 소원이나 희망을 의미하는 동사 '바라다' 와 결합함으로써 '과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의 의미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 와의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7ㄹ)처럼 '-기 때문' 의 복합형식으로 '-기' 가 과거의 일회성 사건에 대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으)ㅁ, -기' 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 중에서 [±존재]나 [±기정성]에 주목한 것이 많다. 임홍빈(1974)에서는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존재성' 에 대하여 부차적으로 [+존재]가 '객관적인 존재' 를 의미하며 [-존재]가 '주관으로서의 존재' 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최형기(1991)는 '±존재성' 을 시제와 연계하여 '-(으)ㅁ' 명사화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기' 명사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시제적 특성에 관련된 논의로 정주리(2016)는 '-(으)ㅁ' 의 '과거성', '- 기' 의 미래성' 을 언급하며 상적 측면에서 '-(으)ㅁ' 이 '완료성과 상태성', '-기' 가 '미완료성과 행위성' 을 지

닌다고 지적하였다. 심재기(1980)에서 ‘실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에 ‘실체성’이 다른 연구에서 ‘명사적 성격(홍종선, 1983)’, ‘명사성(김일환, 2005)’ 등으로 다르게 명명되기도 한다. 또한 ‘-(으)ㅁ, -기’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태의 의미에 대하여 ‘-(으)ㅁ’이 ‘구체적이고 일회적 (채완, 1979)’, ‘구체적이고 개별적(우형식, 1987)’이고 ‘-기’가 ‘일반적이고 추상적 (채완, 1979)’ ‘계속적이고 반복적 (우형식, 1987)’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다. 소해도(2014)에서는 개괄적으로 ‘-(으)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실’을 나타내고 문어적이며 명사성을 지니며 ‘-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일반화된 개념’을 가리키고, 구어적이며 서술성을 지닌다고 기술하였다.

위에 제시된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 [표 3]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3] 명사화소 ‘-(으)ㅁ, -기 , -(으)ㄹ／(으)ㄴ／는 것’ 의미적 특성

<table>
<tr><td>-(으)ㅁ</td><td>-기</td><td colspan="2">(는/ㄴ/ㄹ) 것</td></tr>
<tr><td>실체성</td><td>-실체성</td><td colspan="2" rowspan="2">비명시성
화맥 관련성</td></tr>
<tr><td>특정성(일회성)</td><td>총칭성(일반화)</td></tr>
<tr><td>상태성</td><td>행위성</td><td>-는 것</td><td>일반화</td></tr>
<tr><td>과거성</td><td>미래성</td><td>-ㄹ 것</td><td>미래성・미완료성・미결정성</td></tr>
<tr><td>완료성</td><td>미완료성</td><td rowspan="2">-ㄴ 것</td><td rowspan="2">과거성・특정성・완료성・결정성</td></tr>
<tr><td>결정성</td><td>미결정성</td></tr>
</table>

2. 명사화의 의미기능

2.1. 이론적 배경

2.1.1. 문법의 의미기능 및 관련 연구 영역

명사화의 의미기능 범위를 확장하기 전에 의미기능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 영

역에 대한 파악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미기능 교육에 앞서 관련되는 제2 언어 교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 언어 교육 영역이 발전하면서 심리학, 사회학 등 다른 인문 학문과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다. 여러 가지의 교수 방법론이 나왔고 이들은 각기 다른 장단점과 특징을 지닌다. 다양한 교수법 중에 의사소통 교수법이 학습자 동기 유발, 실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의사소통 교수법은 단순히 어휘나 문법 자체만 집중하지 않고 형태보다 해당 형태가 지닌 기능을 더 중요시한다. 또한, 맥락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어 외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문법 교육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었다. Larsen-Freeman(2003)은 문법 교육에서 해당 문법의 사회적 기능이 적절한 문법 사용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여 의사소통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 의미, 화용' 세 차원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진정란(2005)에서도 문법 교육 구성에 있어서 문법이 의사소통에서 갖는 역할을 강조했다. 즉, 제2 언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문법에 관한 형태·의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문법을 활용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2 언어 학습자의 최종 목적인 의사소통은 실제 맥락과 분리될 수 없고 담화 목적, 환경, 장소, 참여자 관계 등 여러 통사적 조건과 관계없는 요소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실제 담화에서 문법을 활용하는 능력에는 문법 능력뿐만 아니라 화용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해영(2018:54)에서 문법이 지닌 화용적 의미에 대한 탐색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단순히 화용적 의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그의 교육적 적용에 주목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문법의 화용적 의미를 지식으로 여기고 교육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문법 교육 연구가 형태·통사적 내용에서 벗어나 화용적 차원으로의 전환을 보여 주었다. 본고에서도 이들 관점을 인정하여 실제 사용 맥락에서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염두에 둔다. 더불어 문법 자체의 기본적인 형태·통사적 의미나 화용적 의미를 독립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문법론과 화용론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담화 화용론은 문법과 담화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다(Lambrecht, 1994). 따라서 담화 화용론은 특정한 문법 항목의 화용적 지식을 파악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문법의 의미기능에 접근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할리데이가 1960년대에 제시한 체계 기능 언어학은 언어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며 대기능(metafiction)이라는 용어를 모든 의미기능을 통합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는데, 할리데이의 관점이 문법의 의미기능 분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1.2. 의미기능에 대한 담화 화용론적 접근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명사화소를 정확하게 택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보편적으로 언어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기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담화 화용론적 관점으로 명사화의 의미기능에 대해 접근하기 전에 담화 화용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명사화와 관련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1) 함축

이해영(2018:7)에 따라 화용적 의미는 고정함축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함축이란 개념은 Grice(1967)가 제시한 것으로 발화된 문장의 명시적 의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전달된 의미이다. 함축은 다시 대화함축과 고정함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협력원칙에 따라 어떤 특정한 대화 맥락에서 대화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수행되는 것과 달리 후자인 고정함축은 해당 언어표현의 고정된 힘으로서 전달되는 의미이다.

본격적으로 '고정함축'이란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Grice(1961)는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변별되는 존재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것의 특징으로 고정성, 취소 불가능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 Grice(1975)에서 고정함축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부터 나타나는 함축이라고 하였으며 Potts(2005:89)에서도 고정함축의 특징을 '어휘들의 고정 의미의 일부'라고 설명함으로써 고정함축의 '고정성'을 나타냈다. 이들 관점에 따라 고정함축에 대한 정의 중에 '특정 어휘와 관련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한국어에서 어떤 문법 항목이나 문법 구조는 형태와 의미가 서로 대응하는 어휘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오주영(1998:142)에서 특정 어휘 항목 외에 문법 구조도 고정함축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임채훈(2016)은 '고정함축'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표현에 대한 해석 능력을 고찰하였다. 설문 조사 중에 고정함축에 관한 5번 문항의 경우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두 집단의 정답률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정함축이 해당 언어표현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해당 함축의 생성과 해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정함축이 한국어 교육 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명사화는 비명사적 표현에 명사적 특성을 부여해 주는 통사적 절차이다. 명사화된 절은 명사적 표현만의 고정적 의미 자질에 의하여 원래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원래의 비명사적 표현 방식으로 말해진 내용 이상의 의미를 부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명사화소에 의하여 실현되는 통사적 명사화의 결과물인 명사절이 명사화소와의 결합을 통하여 명사화소 자체가 가진 함축 의미도 얻게 될 것이다. Levinson (1983)에 따르면 함축은 실제로 말한 내용(What is said) 이상의 의미를 넘는 부수적인 의미를 가리키며 화용적인 추론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함축' 개념으로 명사화된 표현이 담화에서 부차적으로 전달한 함축 의미를 명사적 표현의 특성 및 각 명사화소의 화용적 의미와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다.

(2) 전제

전제(presupposition)는 하나의 발화된 문장에서 부수적으로 전달되는 의미를 말한다. 의미가 전달되는 기제에 따라 전제가 다시 의미론적인 전제와 화용론적인 전제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진리조건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인 것이고 후자는 대화 맥락, 화·청자의 배경 지식 등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익환(1986:204)에 따르면 전제가 발화되었을 때 여러 가지의 함언(implication)을 나타낼 수 있다. 언어표현의 표면적 의미 이외의 의미를 전달하는 점으로 보면 '함축' 과 '전제' 가 공통점이 없지 않다. Karttunen & Peters(1975)는 고정함축을 화용론적 전제의 일부로 간주한 관점을 제시한 적이 있다. 김정민(2018)에 의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고정함축과 전제의 구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정함축의 근본적인 특성인 '독립성' 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고정함축의

참, 거짓 여부는 문장 전체에 진릿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 반해 전제는 문장 자체가 성립하거나 적절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어기면 안 되는 조건이다.

명사화가 전제를 유발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8)
ㄱ: 나는 서울에 온 것을 후회했다.
ㄴ: 너 서울에 왔어? (의미론적인 전제에 의한 발화)
ㄷ: 서울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어? (화용론적인 전제에 의한 발화)

예문(8ㄱ)의 '온 것'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ㄴ'를 통해서 '서울에 왔다'는 과거의 사실을 전제로 유발한다. 이해영(2018:6)에서 한국어의 문법적 형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특정 맥락 내에서 화용적 기능을 하는 것이 고정함축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문(8ㄱ)의 발화 맥락에서 명사화에 의한 전제가 'ㄴ+것' 구성이 고유적으로 지닌 과거성의 화용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화용론적인 전제에 의한 발화(8ㄷ)는 청자가 '화자가 서울에 왔다'는 정보를 인정하고 관심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에 두어 하는 것이다. 발화 (8ㄷ)와 같은 경우에 청자가 '화자가 서울에 왔다'는 정보를 원래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청자가 전제를 통해 신정보를 얻게 되었다. 즉, 화용적 전제가 화자의 심적 태도에 결정되는 것이고 신정보를 전제의 형식으로 제시하면 청자로 하여금 그것을 구정보로 처리하여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 최재호(1995)는 전제에 대한 설정이 청자가 발화를 해독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박이 예상되는 정보를 전제의 형태로 제시해 주면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청자가 항상 발화 내용 중에 있는 신정보를 초점으로 보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구정보에 대해 논쟁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전제를 유발하는 기제의 하나로서 명사화도 이러한 화용적 기능

을 실현할 수 있다.

(3) 직시

화용론에서 한 발화 맥락에서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것이 '직시(deixis)'라고 불린다. Lyons(1977:637)에서는 직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언급되는 사람, 사물, 활동 등의 위치와 신분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의할 점은 같은 대명사이어도 화맥에 따라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발화나 글 내의 직시를 잘 이해하려면 맥락적 정보가 없으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시로 보면,

(9) 나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

예문 (9)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지칭하는 대명사 '그것'이 두 개 있는데 각각은 분명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행 발화 맥락을 모르면 이 문장의 직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직시는 발화 내에 포함된 요소들을 부호화하므로 발화의 효율성과 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담화에서 특정한 지시 대상(referent)을 가리키는 표현이 지시적 표현(referential expression)이다.

직시는 담화 맥락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부호화하는 방법과 관련되며 강한 문맥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담화에서 직시가 주제를 제시하고 텍스트의 응결성을 확보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는 한 담화의 출발점으로서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수(2005)에 따라 주제는 문장의 단위에서 서술의 대상이 되는 문두의 요소이며 전체적인 담화의 단위에서는 담화를 구성하는 일련의 문장들이 공유하는 언급의 대상이 되는 주체이다. Mathesius(1928)에서 모든 담화가 '주제

(topic) — 평언 (comment)' 의 구조를 가지며 평언이란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대하여성' 이 주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되었다. 주제가 '무엇을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를 제시하는 담화의 시점으로 화자와 청자가 다 알고 있는 정보일 때 담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Lambrecht(1994)는 화제에 대해 '주어진 담화에서 명제가 어떤 지시체에 대한 수신자의 지식이나 정보를 증가시키면 그 지시체가 명제의 화제이다'고 정의하였다. '지시체' 란 담화 참여자가 공유하는 배경 정보나 선행 맥락을 통해 얻어진 정보이다. 따라서 특정 담화 맥락에서 어떤 특정한 지시체를 나타내는 명사화 구문이 후행하는 내용(문장, 문단이나 글의 후행 내용)에서 전개되는 중심이, 즉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화제성(topicality)은 한 담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호화된 지시대상이 가지는 특성이다. 동일한 지시 대상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면 '담화가 이 지시 대상에 관한 것' 이라는 것을 청자나 독자에게 드러내면서 대화의 연속성이나 텍스트의 응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이신형(2010)은 화제성(topicality)은 절에서의 명사적 참여자(nominal participant)가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전체 사건이나 상태를 묘사한 동사구가 화제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명사화되어 다른 절의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고 하였다.

(4) 내러티브 담화

담화 분석에 대한 논의에서 언어는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나누어진다. 명사화가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법 현상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문어 내러티브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Chafe(1982,1985)에서 구두 언어는 단편적(fragmented)인 특성을 갖는 반면에 문자 언어는 항상 긴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합적(integrated)인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 명사화를 이러한 통합성(integration)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언급하였다. 글쓰기 같은 문자 언어의 경우 대화와 같이 화・청자 양쪽의 참여에 의해 구성되지 않으며 필자 혼자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Chafe(1985)에서 분리성(detachment)이라고 하였다. 김한샘・배미연 (2017)은 발화와 그에 대한 해석이 화자와 청자로부터 분리되는 정도가 해당 발화의 객관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 문어 텍스트에서 나타내는 분리성이 높을수록 해당 텍스트의 객관성이 높다. 이와 같은 분리성은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담화 유형들에서 언어 장치로 적용될 가치가 있다. 형태・통사적 관점으로 보면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 간의 구조상의 차이점도 주목받을 만하다. 구어 담화가 화자와 청자가 공유되는 배경 정보 등으로 인해 미완성된 문장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화・청자 서로 간의 상호작용도 즉석적이어서 긴 문장보다 간결한 문장 구조를 선호한다. 반면에 문어 담화에서는 복잡한 문장 구조가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Ochs(1979)는 계획된 담화(planned discourse)와 무계획적인 담화(unplanned discourse)의 문장 구조 차이와 그 이유에 대한 논의에서 명사화를 비롯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계획된 담화인 문어 담화의 복잡한 형태・통사적 구조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명사화소는 전체적인 문장을 하나의 명사구・절로 묶어 긴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어 담화의 구조적 복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장치이라고 할 수 있다.

(5) 응결성

‘응결성’에 관한 논의는 ‘텍스트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되었다.

Halliday · Hasan(1976)은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cohesion)[12]’ 두 가지를 ‘텍스트성’의 하위요소로 제시하였다. 응결성은 텍스트 내부에 있는 언어 표현들 사이의 결속 관계를 가리키고 ‘문법적 응결’과 ‘어휘적 응결’로 형성된다. Halliday · Matthiessen(2014: 608)에서는 ‘문법적 응결 자원’에 대해 [표 4]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4] 문법적 응결 자원 (Halliday · Matthiessen, 2014:608)

응결 자원 유형	문법적 응결 자원	접속사
		지시
		생략 및 대용
	어휘적 응결 자원	어휘적 결속
		반복 연어

한 텍스트에서 응결성을 표현하거나 높이는 응결 장치(cohesive device)[13] 에는 주로 문법적 응결장치와 어휘적 응결장치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시(reference)는 생략, 대용 등과 함께 문법적 응결장치에 속한다. 텍스트 안에서 지시가 사용되는 경우를 선행 맥락에 없는 사물을 지칭하거나 이미 나온 개체를 다시 언급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양자를 잘 구별하기 위해 ‘조응’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인 지시가 어떤 새로 나오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조응은 텍스트 맥락에서 나왔던 것을 다시 지시함으로써 텍스트의 응결성을 강화한다.

12) 번역에 따라 ‘결속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 고영근(2011)의 용어에 따라 ‘응결성’을 cohesion의 번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3) 안경화(2001)에서는 연결어미, 접속 부사 등을 셋 번째인 논리적 응결장치로 분류하였다.

2.2. 명사화의 의미기능

전술한 담화 화용론과 체계 기능 언어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명사화 의미기능을 논의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 한국어 명사화 의미기능의 범위를 확장하여 체계화하고자 한다.

담화 화용론적 기능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명사화에 대한 내용과 명사화 의미기능을 본격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명사화의 의미기능 분류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못하였으나 주요한 기능들은 대체로 논의된 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명사화와 화자 자신의 태도(심재기 1980, 안소진 2021), 명사화의 지시 기능(최형기 1991, 김홍수 1993& 1995), 명사화와 명제의 논리적 관계(김홍수 1995, 소지영 2016) 등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명사화의 의미기능 분석의 틀

번호	연구자	명사화 기능	설명
1	심재기 (1980)	화자 자신의 태도 반영	[+결정성]이나 [-결정성]을 부여해 화자의 인식 양상을 드러냄
2	최형기 (1991)	상위문에 내포된 보문 구성을 이룸	보문을 이끌어 주문(상위문)에 연결시킴
3		동일지시적이 아닌 지시	내포된 문이 상위문의 한 명사와 같아야 하는 관계가 없음
4	김홍수 (1993)	지시기능	지시대상에 실체성을 부여하여 지시함
5		응집 요소	화맥 관련 지시요소로서 기능함
6	김홍수 (1995)	제보적인 지시	명제나 사태를 지시대상으로 구체화
7		선행 문맥 지시	선행 내용을 되풀이해 지시함
8		응집, 주제 기능	명제나 사태의 논리적 관계를 강화함
9		객관화 기술	심리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논리적 명제로 기술함
10	문금현	전제 유발	과거의 사실을 전제함

	(2004)		
11	제민경 (2015)	어떤 경험의 초점화	동사적 의미 범주가 명사적 속성을 갖게 되는 명사화를 통해서는 명사적 표현으로 어떤 경험의 특정 부분을 초점화함
12	소지영 (2016)	주제로서의 핵심 명제 구성	핵심 명제를 대상화하여 주제로 부각함 (문장의 핵심 내용이나 텍스트 전체의 주제)
13		객관적 태도의 표현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피함
14	노유경 (2016)	객관성 확보 장치	주장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신을 드러나지 않은 완화적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성 드러냄
15	안소진 (2021)	화자 입장의 표현	대상을 실체로 봄
16		객관화된 표현	화자와 인식 내용의 형식적 분리

이들을 명사화 기능에 대한 관점의 유사성에 따라 살펴보면 1번, 9번, 13-16번은 객관적인 태도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다. 3-4번, 6-7번은 언급한 지시는 다시 지시대상이 선행 문맥에서 나타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신정보를 제공하는 지시기능과 텍스트 응결성에 기여하는 조응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외에도 2번 내포문 구성 기능, 10번 전제 기능, 8번과 12번 주제 기능이 있다. 위에 제시한 각 기능의 관련성과 지난 절에서 살핀 문법의 담화 화용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명사화 의미기능을 체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고 학습자의 수행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대, 명사화란 동사적 표현이 명사적 성격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명사화의 결과물인 명사구와 절은 당연히 명사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문장에서 명사처럼 다양한 성분으로 문장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지시기능은 명사와 명사적 표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많은 의미기능이 실현되는 기초이다. 지시되는 대상이 선행 문맥과 관련되는지의 여부와 담화 맥락에서 담당하는 역

할에 따라 담화 내용에 추가되는 신정보, 하나 이상의 의미 단위를 하나로 묶이는 주제나 텍스트 응결성을 높이는 조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암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제도 과거 사실이나 미정의 정보에 대한 지시라고 할 수 있고 지시기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객관적 양태 의미를 드러내는 의미기능은 기술 대상을 객체화하거나 직접적 표현을 피하여 내용과 거리를 두거나 완화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를 다시 정리하고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를 다음 [표 6]과 같이 구축하였다.

[표 6]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

의미기능 유형	실현 기제
주제 제시	하나 이상의 의미 단위를 하나로 묶어 문장, 문단이나 텍스트 전체의 주제로 부각함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명사적 표현으로 어떤 제보적인 내용을 지시하며 초점화함
전제 유발	의미론적 전제: 사실적으로 존재한 과거의 사실을 지시함 화용론적 전제: 불확실한 내용을 대상화하여 암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함
객관성 확보 장치	대상화/거리 두기/완화 표현을 통하여 객관적 태도 표현
텍스트 응결성 실현	선행 문맥 내용이나 주제 관련 내용을 지시함

이어지는 절에서는 명사화의 의미기능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2.2.1. 주제 제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메시지 단위가 주제부와 설명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각 유형의 주제가 구현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7] 주제 유형과 실현 방식

주제 유형	실현 방식
경험적 주제	참여자(participant), 과정(process), 배경(circumstance)
대인적 주제	양태적 부가어(modal adjunct), 호격어
텍스트적 주제	연속 부가어(continuity adjunct), 접속 부가어(conjunctive adjunct)

톰슨(Thomson,2014)에 따르면 한 담화에서 주제 또는 주제부는 '이 절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보면 경험적 주제는 참여자, 과정, 배경 등의 요소에 해당한다. 윤혜경·한정한(2021)에 의하면 참여자는 대체로 명사(군)로, 과정은 동사(군)로, 배경요소는 배경 부사어(군)로 실현된다. 여기에서 참여자란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 어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 단위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명사구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지영(2016)은 명사화가 분산되는 내용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어 주제[14]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언급하였고 좁게는 문장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며 넓게는 텍스트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시로 자세히 살펴보자.

(10)

ㄱ.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것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다.

ㄴ. 목적어인데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였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는'은 대조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ㄷ. 전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은 과도한 물 사용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으로 인 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더욱 더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수질정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지영, 2016:103)

ㄹ.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엄숙함>, 일하는 삶의 근원성, 그것의 엄숙함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식이 아니고 무엇겠는가. 그런데 소월이 이러한 인식에 이른 것은 자신의 욕구와 좌절을 통해서 삶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 한계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홍수, 1995:154)

14) 소지영(2016)에 따라 글에서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나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을 명사화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그것이 문장이나 문단, 때로는 글 전체의 주제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이 모두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문(11ㄱ)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이혼을 겪다'라는 동사구가 명사화소 '는 것'에 의해 명사화된 후 주제 표시 '은'과 결합하여 해당 문장의 주제부가 되었다. 예문(11ㄴ)에서는 대용적 표현 '이때'가 '목적어인데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였음'일 때를 지시하고 있다. 즉, 예문(11ㄴ)의 밑줄 친 부분이 해당 문장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후행 맥락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예문(11ㄷ)의 경우는 밑줄 친 명사화 구문이 필자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주제로 강조하였다[15]. 명사화를 통해 주제를 제시하는 의의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문장의 주제, 즉 문법적 주어를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화 전체의 일관성과 논리적 연쇄를 형성하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예문(11ㄹ)에서 밑줄 친 부분은 선행 문맥을 지시하는 '이러한 인식'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각 문장 간의 의미적 연결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대용 요소를 포함하는 주제 구문이 텍스트 응결성의 실현과 연관되기도 한다.

위의 예시처럼 어떤 동적 상태, 현상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적 문장이 명사화되어 평언(comment)과 호응하는 문장의 주제(topic)로 될 수 있으며 문단이나 텍스트의 후행 내용이 전개되는 출발점으로 되기도 한다. 명사화는 담화에서 문장이나 텍스트의 주제를 제시하는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2.2.2.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15) 소지영(2016)은 이 예문에 대해서 이러한 명사화는 글의 도입부나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는 시점에서 명제 내용을 생성, 구성하고 그것을 주제로 강조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금주(2002)에 따라 담화는 발화자가 이미 알려진 구정보에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신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진행된다. Knapp & Watkins(2005)에서 지시가 텍스트 안에 정보가 도입되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방식[16]으로 여겨졌다. 즉, 대화의 맥락, 발화자의 의도 등에 따라 지시가 새로운 대상을 도입하거나 중요한 대상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의미론에서 어떤 명사와 해당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 간에 대응 관계가 존재하면, 이 관계가 지시라 할 수 있다. 명사화 구문이 명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원래 명사가 아닌 동사적 표현을 명사적 표현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위, 사태 등 추상적이나 개념적인 것을 지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고정된 명사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명명으로서 담화 맥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한다. 이와 달리 명사화 구문은 독특한 통사적 구조를 갖는 동사적 표현으로부터 전환된 것이며 화자가 의도적으로 명사화란 수단을 선택하여 산출한 것으로 강한 화맥 관련성과 특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명사화 구문의 담화 화용적 의미와 기능이 명사보다 다양하다. 명사화의 지시기능에 있어 주제에 대한 지시와 조응으로서의 지시가 텍스트의 구조와 응결성에 관여하는 것은 텍스트 구조적 기능으로서 이미 지난 절에서 논의되었다. 간단히 돌이켜 보면 문장 단위의 정보를 담는 주제가 명사화를 통해서 담화에 도입되어 후행 내용을 이끄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조응의 경우는 담화 주제와 관련되는 정보가 명사화에 의해 담화 참여자의 지식체계와 담화 간의 조응으로서 텍스트의 논리적 연결에 기여하게 되어 텍스트 응결성을 높인다.

16) 주세형 외 역(2007: 52) 참조.

이렇게 보면 명사화의 지시기능이 담화에서 실현되는 양상은 지시되는 대상이 담화에서 맡는 역할과 연관성이 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11)
ㄱ. 나 오늘 혼자 눈 오는 것을 봤어.
ㄴ. 선생님 덕분에 별이 낮에도 빛이 나고 있음을 알게 됐어.
ㄷ. 아이들이 교실에서 춤추는 것을 좀 봐. 넘 귀여워!

(11)에서 밑줄 친 부분이 다 명사화 구문이고 각각 '눈이 오다' 는 사건, '별이 낮에도 빛이 나고 있다' 는 사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춤 추다' 는 장면을 지시한다. 이들 지시 대상은 '보다',' 알다' 등 서술어의 목적어로서 담화의 주제가 아니고 문맥 속에 없으며 수신자에게 알고 있거나 추론될 수 있는 정보도 아니므로 조응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명사화는 담화 밖의 실세계에 있는 추상적인 것에 실체성을 주고 이들 지시 대상을 담화에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신정보를 도입하는 것은 초점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다네쉬(1970)에 따라 문장이 화제(topic)와 초점(focus)의 결합이다. 화제가 문장이 논의하려는 것이고 초점이 논의하려는 화제와 관련되는 신정보이다. 신정보가 수신자에게 선행 맥락으로 추론될 수 없고 전에 몰랐던 내용을 담는 것이며 발신자에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발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다. Kiss(1998)에서는 초점을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고 정보 초점의 실현은 새로운 정보의 도입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람브리치트(Lambrecht)의 초점 이론[17]에서 언급된 '문장-초점 구조 (sentence - focus structure)' 에 따라 초점이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포함하는 문장 구성이며 의미적 차원으로 논항으로 기

17) 람브리치트(1994, 2001)에 따라 담화에서 초점에 대한 분류는 서술 초점(predicate focus), 논항 초점(argument focus), 문장 초점(sentence focus)의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문장 초점이라는 초점 유형은 새로운 지시체를 담화에 도입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 다.

능하는 명제[18]다. 이에 따라 위의 예문(11)에서 제시된 '주어+서술어' 구조를 포함한 명사화 구문이 전달하고 싶은 논항을 초점화하는 것에 해당한다.

2.2.3. 전제 유발

문금현(2004)에서 명사형 어미' -음, -기' 와 관형사형 어미 'ㄴ+것' 구성을 형태적 전제의 기제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전제는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의미론적 전제부터 살펴보자. 의미론적 전제는 논리적 전제라 불리기도 하는데 진술의 진리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항상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화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지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의미론적 전제를 구성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12)
ㄱ:세민이가 왜 울고 있어?
ㄴ:<u>친한 친구가 죽었음</u>을 알게 됐어.
전제:세민이의 친한 친구가 죽었다.

밑줄 친 부분이 '세민이의 친한 친구가 죽었다' 는 의미론적 전제를 함의하고 있다. 이 전제가 거짓이면 세민이가 울고 있는 이유가 '친구가 죽었음을 알게 되는 것' 이 아니게 되며 예문(12ㄴ)도 거짓이 된다.

의미론적 전제와 구별되어 화용론적 전제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선결 조건보다 전체적인 담화 맥락의 적절성과 관련성이 더 높다. 즉, 의사소통 측면에서 화용적 전제가 담화가 전개되어 가는 토대가 된다. Sellars(1954)는 전

18) 김연희(2001)에서 '문장-초점 구조' 가 적용되는 문장 구성에 대하여 의미적 차원에서 논항으로 기능하는 지칭물이 정보 구조의 차원에서 초점 부분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제가 성공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화자가 의도적으로 전제를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언어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Goatly(2000)는 명사화는 화용적 전제를 실현하는 한 가지의 수단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13)
Dis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s new policies will cause a loss of popularity. (Goatly, 2000:77)

여기의 전제는 'People dissatisfied with the government's new polices'로 볼 수 있다. 명사화된 표현 'Dissatisfaction'을 사용함으로써 수신자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이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담화 중의 다른 정보 - '불만의 나쁜 영향'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화용적 전제는 한국어로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14)
ㄱ: 그가 큰 장점이 있다. 그가 노래를 잘한다.
ㄴ: <u>노래를 잘하는 것</u>이 그의 큰 장점이다.

예문(14ㄱ)의 평서문과 달리 예문(14ㄴ)에서 '노래를 잘하다'는 동사구가 명사화된 것이다. 즉, '그가 노래를 잘하다'는 것이 새롭게 제시되는 진술이 아니라 전제가 되었다. 예문(14ㄱ)에 비해 예문(14ㄴ)의 경우에 청자가 전제인 '노래를 잘하는 것'의 진위를 따질 가능성이 낮다.

程晓堂 (2003)은 기능 문법의 시각으로 명사화의 화용적 전제 기능을 논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여주었다.

(15)
ㄱ. Technology is getting better, which will further promote productivity.
ㄴ. Technological advances will further promote productivity.

‘Technology is getting better’ 라는 표현이 필자의 관점에 대한 진술이고 필자가 이 관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여지를 독자에게 남겨 두었다. 그런데 이 관점이 ‘Technological advances’와 같은 명사적 표현으로 제시되면 예문(15ㄴ)와 같이 전제가 된다. 필자가 ‘Technology is getting better’ 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거나 독자가 이 관점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거나 독자가 이를 인정하게 하기를 원하여 전제로 설정하였다. 程晓堂(2003)에 따르면 명사화는 화용적 전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제가 확실하지 않은 동적 과정을 정적 ‘사물’로 대상화하는 것이다. 정적 ‘사물’ 로 명사화되는 것이 동적 표현보다 존재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2.2.4. 객관성 확보 장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의 태도가 명제 내용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바이버와 피네건(Biber&Finegan, 1988)에서는 언어 사용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범주로서 ’stance’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그레이와 바이버(Gray&Biber, 2012)는 ’stance’를 ’화자나 필자의 의견이나 평가로 실현되는 태도를 언어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크리스모어 외(Chrismore etc, 1993)는 필자 태도에 대하여 “명제적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청자나 독자가 주어진 정보를 구성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담화에서 어떤 문법적 장치를 통해 화자나 필자의 태도 (양태적 의미) 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기능이다.

’필자의 태도 표현’ 은 담화에게 명제 내용을 더하지 않으나 양태적 의미로서 담화 내용의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는 ‘필자의 객관적 태도 (객관적 양태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는 언어적 장치를 ‘객관성 확보 장치’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언어적 장치에 대한 요구의 정도가 담화 유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객관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텍스트 유형을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텍스트를 작성하는 필자의 심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서혁(1995:128)에서 브르워(Brewer)의 심리적 텍스트 분류 모형에 대한 정리를 참조하여 한국어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체계를 [표 8]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한국어의 텍스트 유형 분류 (서혁 1995:128 참조)

	텍스트		목적	
	정보성	설득성	오락성	심미성
텍스트 유형	신문 기사 보고서 과학적인 글 등	광고문 설교문 논문 등	추리소설 단편소설 드라마 등	쓸술소설 단편소설 드라마 등

위 표의 내용을 보면 ‘정보성’과 ‘설득성’을 가지는 텍스트 유형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독자가 어떤 주장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목적을 갖는다. 설득 텍스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논증을 실현하는 요소가 ‘근거’와 ‘주장’ 두 가지가 있다. 정보적 텍스트가 정보를 제시하는 점에서 설득 텍스트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과 비슷해서 본고는 ‘근거에 대한 객관화’와 ‘주장에 대한 객관화’ 두 측면으로 명사화가 객관성 확보 장치로서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근거에 대한 객관화’ 측면이다.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토대로서 항상 필자의 주관적 의식이나 의견이 아니고 객관 세계에서 발견되는 기정의 사실로 텍스트에서 제시된다. 텍스트의 객관성, 즉, 필자가 텍스트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수단의 하나가 텍스트와 필자 자신 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임지룡(2004)은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명제가 가지는 의미라기보다는 의미 해석에 참여하는 화자 또는 청자에 의해 해석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자(문어의 경우라면 독자)가 명제에 대한 해석이 명제가 산출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발화자야말로 창작 과정에서 어휘나 문법적 장치를 이용하여 명제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주체이다.

한국어 문헌에서 명사화가 객관성 확보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논의가 적지 않다. 신선경(2005)에서는 학술적 텍스트에서 동사보다 술어 명사구와 같은 명사적 표현을 선호한다고 지적하고 명사화 표현이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피하고 청자 관련 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다음과 같은 문장 예시를 들 수 있다.

(16)

ㄱ. 조사 결과가 무점포 판매가 갈수록 많은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ㄴ. 인구 조사가 본 시에 거주하는 고령자 중 여성 고령자가 많았음을 밝힌다.

예문 중의 밑줄 친 부분이 선행 문맥에서 언급된 조사나 연구의 결과로서 정해진 사실로 제시되고 필자가 이들 내용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피한다. 위 예문 중에서 나온 목적어로서의 양상뿐만 아니고 명사화 구문이 주어, 부사어, 관형어 심지어 보어 등 문장 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으며 대응하는 사용 양상이 다양하다. 다만, 명사화 구문이 관형어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가 '의' 속격 구문이거나 '-기 전/-기 때문' 등 형식으로 특정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보어로서의 명사화 구문이 항상 주격조사 '-이/가/ 붙여 명사인주어와 동일시될 수 있기에 동작성 의미가 완전히 소멸된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볼 수 있다.

(17)

ㄱ. 요소 A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 0.05 보다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밝혀졌다. (주어)

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이지 않으면 어색하였음으로 보인다. (부사어) (황현동, 2020:97)

ㄷ. 시에는 살아 있음의 축복과 고마움이 담겨 있다. (관형어)

ㄹ. 사람이 인지하는 세계가 명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어)

위의 예문(17ㄷ, ㄹ)처럼 관형어와 보어로 쓰이는 명사화 구문이 고정된 '-음' 형 파생명사나 의존명사 '-(으)ㄹ/(으)ㄴ/는 것'에 의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지시 의미를 가지고 명제 내용과 관련 없는 태도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신지연(2013)에서 객관성을 대상화와 연관을 지어 동적인 행동성보다 정적인 대상성이 텍스트의 정확성과 객관성에 가깝다고 하며 명사문체 '-음, -ㄴ/ㄹ 것'을 객관성 표지로 제시한다. 이와 비슷하게 김한샘·배미연(2017)에서도 '-음, -ㄴ/ㄹ 것'을 객관화 전략 표지에 포함시키었다. 해당 연구에 따라 한 텍스트에서 변화의 동적 의미를 가지는 동작성보다는 변화하지 않는 '상태성'이 해당 명제를 더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 명사화 구문이 행위를 약화시키는 대상화를 통해 객관성을 추구한다. 근거로서의 명제 내용을 대상화함으로써 해당 근거의 '사실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의 하나이다.

주장의 경우는 아직 검증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서 확정한 사실처럼 제시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하여 완화 표현이 확실하지 않은 명제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보이게 하여 객관적 논증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며 '-ㄹ/을 것이다'를 객관적 추론이나 객관성 확보 장치로 제시한 연구도 몇몇 있었다(전나영 1999, 노유경 2016, 박미영 2018).

2.2.5. 텍스트 응결성 실현

텍스트의 응결성이 독자가 텍스트에 대한 이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응결성이 전체적인 텍스트의 특성이지만 문장 간의 통합 관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명사화를 통해 텍스트의 응결성을 실현하는 양식을 문장 층위와 텍스트 층위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문장 층위의 예시부터 시작하자.

(18)

ㄱ. 읽기 참여가 읽기 소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읽기에 대한 정의적 특성이 읽기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ㄴ. 읽기 참여가 읽기 소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읽기에 대한 정의적 특성이 읽기 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옥현진 외, 2011:388)

두 예문은 모두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가지는데 예문(18ㄱ)에 비해 예문(18ㄴ)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내용이 더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것은 명사화에 의해 앞뒤 문장을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문장 단위의 응결성을 높임으로써 텍스트의 응결성에 기여하는 예시이다. 어떤 명제를 서술하는 문장을 하나의 명사절로 압축하여 후행하는 명제와 연결함으로써 서로 간의 논리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장 내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의미적으로 관계되는 동사구 명제를 명사화 구문으로 묶어 접속 조사 '와/과'나 '-보다/-에 비해' 등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을 통해 연결하는 접속[19]양상도 있다.

텍스트 응결성의 실현은 문장 층위의 논리적 관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한 텍스트 안에 제시된 정보가 많은데 수신자의 입장에서 모든 정보를 동등하게

[19] 접속과 텍스트 응결성의 상관성을 언급한 연구로 풍문정(2016), 박혜진(2017) 등이 있다. 접속은 단순히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응결성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풍문정, 2016). 접속은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여 응결성을 형성하는 장치이다(박혜진, 2017).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독자가 해당 텍스트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파악하게 만들어야 한다. 텍스트 내에서의 지시는 텍스트 응결성을 성립시키는 문법적 언어 자원(Halliday・Matthiessen, 2014:608)의 한 가지이며 지시의 하위 분류로서의 조응도 텍스트 내용을 결속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Lyons(1977)의 조응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조응은 지시했던 대상을 다시 지시하는 것이다. 독자가 조응에 의해 텍스트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개체의 중요성을 느끼면 '이것이 텍스트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금주(2002)에서는 조응이 선행 맥락에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화용론적 관점으로 조응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금주 (2002:43)에 따르면 화・청자의 기억이나 지시체계에 존재하거나 선행 문맥으로 추론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선행 맥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도 조응이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19)
역세권 상업 시설이 인기다.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건대입구역 근처의 상업 시설이 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역세권 입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하철 1호선, 호남선, 경부선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셈이다.

예문(19)의 밑줄 친 부분은 명사화소 '-음'에 의하여 '역세권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동사적 정보를 하나의 명사적 표현으로 묶는 것이고 후행절의 논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하철 1호선, 호남선, 경부선이 역세권 입지를 보유하고 있다'에 관한 내용이 선행 문맥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어도 다들 알고 있는 지리적 배경 지식일 수 있다. Givón(1983)에서 지시 대상과 언급된 주제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주제 지속이 크고, 담화 주제를 결정하기 쉽

다고 하였다. 예문(19)을 보면 이 텍스트가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토론인 것을 알 수 있다. 독자가 선행 맥락을 통해서 역세권 입지가 상업 시설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밑줄 친 부분의 조응을 통해서 이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쉽게 느끼게 될 것이다. 즉, 명사화가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조응의 방식으로 텍스트에 도입하는 것으로 텍스트 전체의 응결성을 높일 수 있다.

3.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필요성

한국어 문법 교육 현장에서 형태·통사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안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떤 문법 항목에 있어 관련된 문법적 지식을 잘 파악해야 이를 이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생성한 문장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문장의 복잡성도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정희모•김성희(2008:411)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복잡성이 학습자 글쓰기 숙달도의 판단 기준이라고 보았다. 문장의 복잡성과 관련된 문장 구조 교육 연구에 있어 이익섭•채완(1999:378-383)은 문장의 길이와 복잡성을 높이는 문법적 기제인 접속과 내포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접속문은 연결어미에 의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을 결합시키는 것이며 내포문은 한 문장을 다른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하는 것이다. 상위 문장에 내포되어 문장 성분이 되는 부분을 절이라고 하고 이를 세분화하면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다섯 가지가 있다. 명사절은 명사화를 전제로 설정된 절[20]이고 명사화의

[20] 김건희(2021:148)에서 명사절은 명사의 분포와 기능을 보이는 명사화를 전제로 설정된 절이라고 하였다.

전형적인 형식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명사화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통사적 복잡성이 높은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명사화소는 명사절의 생성을 실현하는 기능소로서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그런데 문법 교육의 최종 목표는 올바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문법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실제 담화에서 명사화의 실현은 단순한 통사적 범주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어휘문법 범주의 전이에 따른 의미 재구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Halliday (1985,1994)에서 동사구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의미를 실현하는 관계를 자연적 실현 관계라고 하며 일치 형식(congruent form)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대비하여 명사화 구문을 비전형적인 방식을 통해 의미를 실현하는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 형식의 한 가지라고 하였다. 문법적 은유의 관점으로 보면 명사화는 동적 과정이나 추상적 사상이나 속성 등을 실체적인 사물로 바꾸는 은유적 전환이다. 정려란(2018)에 따르면 문법적 은유는 형식적 변화를 통한 의미의 잠재적 기능을 드러낸다. 즉, 명사화소에 의한 통사적 명사화가 명사화된 절의 구조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롭게 구성되는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담화에서 부수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제에 대한 명사화가 정보 양태 의미의 은유적 실현[21]의 한 가지로서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담화에서 화용적 추론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전달된 화용적 의미에 대한 파악이 화용 능력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언어 교육의 목표로 삼아 실제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고려하면 문법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화용 능력

21) 신희성(2019)에 따라 정보 양태 의미의 은유적 실현은 명제의 투사화와 명제의 명사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도 문법 교육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법 능력 측면'과 '화용 능력 측면'으로 나누어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문법 능력 측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이 상호작용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한다. 명사화소의 의미기능이 명사화소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자체의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면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교육이 문법적 지식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완전한 주술 구조를 갖는 동사적 표현이나 문장 전체가 명사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절로 묶이게 되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위치에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
ㄱ. 그가 이미 죽었음이 분명하다. (주어)
ㄱ'. 그가 이미 죽었다. 이것이 분명하다.
ㄴ. 나는 세민이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목적어)
ㄴ'. 세민이가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문(20ㄱ)에서 '그가 이미 죽었다'는 동사구가 명사형 어미 '-음'과 결합하여 주어가 되고 서술어 '분명하다'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장을 이룬다. 같은 내용이 두 단문으로 표현되면 예문(20ㄱ')과 같다. 의미적으로는 똑같지만 더 복잡한 통사적 구조를 갖는 예문(20ㄱ)이 더 좋은 문장 구성 능력을 드러낸다. 예문(20ㄴ)도 비슷하게 '세민이가 돌아오다'에 명사형 어미 '-기'를 붙여 서술

어 ‘기대하다’의 목적어로 만든다. 해당 문장을 분리해 보면 지시 대명사 ’그것’에 의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명사절이 작용하는 문장 예문(20ㄴ)이 의미를 전달하는 효율성이나 통사적 복잡성에 있어 더 좋은 선택이다.

명사화 교육 연구들에서 위의 예시에서 나온 명사형 어미 ‘-음, -기’에 주목한 바가 많다. 그러나 이들과 비슷하게 명사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으)ㄹ/(으)ㄴ/는 것’이 명사화소로 명사화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김흥수(1993, 1994)는 ‘것’ 구조만으로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명사화 예시를 제시했고 ‘것’ 구조가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기존 명사화 체계의 보충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1)
ㄱ. 나는 순이가 책을 읽{*음, *기, 는 것}을(를) 본다. (김흥수, 1993:94)
ㄴ. 순이가 책을 읽{*음, *기, 는 것}이(가) 보인다. (김흥수, 1993:94)
ㄷ. 나는 순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음, *기, 는 것}을(를) 말렸다. (김흥수, 1993:94)
ㄹ. 나는 순이가 책을 읽{*음, *기, 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흥수, 1993:94)

그리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명사화소 자체의 의미를 배제하고 다른 형태소와 결합한 복합형식(-기 때문에/-기 전에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향도 보인다. 장미라(2012), 손려평(2013)은 한국어 교재 중의 명사화 교육 내용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고 명사형 어미 ‘-기’와 ‘-(으)ㅁ’을 관용화된 문형으로 교수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복합형식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너무 한정되고 학습자들이 이들 관용 표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다른 명사화 형식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송화(2002)에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조사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22)

ㄱ. [김치 만들기는/*김치를 만들기는/김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한송화, 2005:584)

ㄴ. 난 [김치 만들기를/*김치를 만들기를/김치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한송화, 2005:584)

한송화(2002)에 따르면 ‘ -는 것’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기’로 대체하는 오류가 많이 보인다. 명사화소 ‘-기’가 ‘쉽다, 어렵다’ 등의 평가적 형용사나 ‘좋아하다, 싫어하다’ 등의 호오 (好惡)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가 ‘-기+ 형용사’[22], ‘-기+호오 동사’와 같은 과잉 일반화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과 ’-기’ 자체의 의미적 차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복합형식을 위주로 하는 교육방식이 학생의 의사소통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이며, 따라서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이 명사화 교육 내용 체계의 보충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명사화소를 활용하여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의 기초인 문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세 가지의 명사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2. 화용 능력 측면

화용 능력이란 어떤 문법 항목의 형태. 통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의 맥락 요소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해당 문법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담화 화용론적 관점에서는 문장과 담화 맥락 간의 연결을 통해 실현되는 화용적 의미가 해당 문법의 규칙이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명사화 교육 내용이 명사형 어미 ‘-(으)ㅁ, -기’의 형태・통사론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2)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나온 교재 〈표준한국어〉 중에 ‘-기+형용사’라는 구조가 관용화된 결합 관계로 제시된다.

‘-(으)ㅁ’과 ‘-기’ 간의 대치 오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습자가 담화 맥락에 따라 능동적으로 명사화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명사화가 언어 사용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품사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명사화소에 의한 명사화가 어떤 동사적 표현을 명사적 표현으로 전환하는지 그 기제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담화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확인할 수 있다.

(23)
ㄱ.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사어)
ㄴ. 물량 공급이 제때 안 됐기 때문에 이 상품이 품절이다. (관형어)
ㄷ. 그에게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 다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문(23ㄱ)의 경우는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다’는 문장을 ‘ㄹ 것’에 의하여 명사절로 전환하여 부사격 조사 ‘(으)로’와 같이 부사어로서 기능하는 예시이며 사태의 대해 추측하는 주체를 생략함으로써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예문 (23 ㄴ)처럼 명사화되는 문장이 관형어 지위를 차지하는 양상이 명사형 어미 ‘-기’를 붙여 특정 명사 ‘때문’을 수식하는 것으로 실현되며 명제 간의 인과 관계를 부각시키고 문장의 논리성을 향상시킨다. 예문(23ㄷ)은 접속과 내포가 하나의 문장 안에 동시에 실현되는 예시이다. 조사 ‘(이)나’에 의하여 명사화 구문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속이는 것’이 서로 접속된다. 따라서 명사화가 직접적으로 접속문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명사화 구문을 형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명제 간의 접속과 논리적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예시로 알 수 있듯이 명사화의 사용은 문장의 통사적 구조를 복잡화하는 수단이며 화용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비전형적인 실현 방식이다.

명사화가 하나의 문법 항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사형 어미 '-기'와 '-음', 그리고 '-(으)ㄹ/(으)ㄴ/는 것' 구성에 의해 다 실현될 수 있으며 이들을 다 명사화소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화용 능력이란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문법의 화용적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여기에는 명사화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명사화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각 명사화소가 지닌 형태·통사·의미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명사화소들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는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파악해야 한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느 명사화소를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정확하게 이들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

4.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

각 명사화 유형은 명사화의 정도와 양상의 차이에 따라 명사적 표현으로서의 의의와 기능도 달라진다 (김흥수, 1995). 즉, 각 명사화소 자체가 가지는 고유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의미기능의 실현 양상과 제약에도 차이가 보인다. 본 절에서는 명사화 의미기능을 각 명사화소의 고유적 특성과 연관을 짓고 의미기능의 구체적인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4.1. 명사화소 '-(으)ㅁ'

명사화소 '-(으)ㅁ'에 의한 명사절이 목적어, 주어, 부사어, 관형어나 보어

등 여러 위치에서 문장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24)
ㄱ. 그가 정직한 사람임을 알아서 믿을 것이다. (목적어)
ㄴ. 기억이 돌아옴이 다행이다. (주어)
ㄷ.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땀이 났다. (부사어)
ㄹ. 내가 살아 있음의 가치가 무엇일까? (관형어)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으)ㅁ' 명사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적 성분으로서 명사 어휘나 파생명사보다 복잡한 구조를 갖고 문장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 목적어, 주어, 보어, 관형어 외에는 명사화 구문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으)ㅁ'이 명사절의 일부로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통사적 양상을 확인한 후에 '-(으)ㅁ'이 명사화소로서 가진 의미적 특성부터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에 향해 접근해 보자.

명사화소 '-(으)ㅁ'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적 특성은 동사적 표현에 명사적 성격을 부여하는 '실체성'이다. 이런 '실체성'의 적용 범위를 논하려면 먼저 명사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명사의 분류 체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최경봉(1998:31)에 따르면 명사는 인간이나 사물과 같은 원래 실체가 있는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사태나 관계 등 양식도 나타낼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라 명사화는 동사적 표현이 명사적 성격을 갖게 하는 문법적 장치로서 어떤 사태나 관계를 묘사하는 동사구에 실체성을 부여하고 명사구로 전환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즉, 명사화소 '-(으)ㅁ'의 '실체성'이 추상적 사태나 관계를 대상화하여 지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으)ㅁ'이 지시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적 특성들에 있어 [현장성 (홍존선, 1983)] 또는 [일회성 (채완, 1979)] 이라는 것이 언급된 적이 있었다. 명사화소 '-(으)ㅁ'의 [현장성]은 지시되는 동적 상태가 어느 한 시점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5)

ㄱ. 그가 번역행위를 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남기심・고영근, 2014: 385)

ㄴ. 철수는 영이가 공부함을 원한다. (홍존선, 1983:244)

ㄷ. 철수는 영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 (홍존선, 1983:244)

위의 예문으로 '-(으)ㅁ'의 [현장성]을 알아볼 수 있다. 예문(25 ㄱ)에서 '그가 번역행위를 했음'이라는 '-(으)ㅁ' 명사구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상어미 '-였'과 결합하여 '그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번의) 번역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지시되는 '번역행위'가 그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한 번의 행위이다. 예문(25 ㄴ)와 (25 ㄷ)를 대조해 보면 '영이가 공부함'이 지시하는 공부 행위가 현재의 시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영이가 공부하기'는 일반적인 공부 행위를 지시하고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명사화소 '-(으)ㅁ'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일회적인 사실이나 사태를 지시할 수 있지만 일반성을 지닌 것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명사화소 '-(으)ㅁ'이 지시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주제 제시'과 텍스트 응결성을 실현하는 '조응'을 실현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다.

(26)

ㄱ. 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ㄴ. 나는 세민이가 이번 시험을 위해서 힘써 왔음을 알아.

ㄷ. '알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은 확인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ㄹ. 이 스피커 소리가 줄어듦은 전원 고장 때문일 수 있다.

ㅁ. 겨울에 거리의 청소작업이 다른 계절보다 더 번거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거리에 나가 잎이 떨어져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문(26ㄱ)에서 '학생들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정보가 명사화소'-(으)ㅁ'에 의해 명사화 구문이 되어 서술어 '나타내다'의 목적어로서 담화에 도입된다. 마찬가지로 예문(26ㄴ)에서 '세민이가 이번 시험을

위해서 힘써 왔다’ 는 사실도 신정보로서 서술어 ‘알다’ 의 목적어 위치에 배치되었다. 예문(26ㄱ, ㄴ)에서 목적어로서의 명사화 구문이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신정보이며 해당 문장의 초점이기도 한다. 예문(26ㄷ)과 (26ㄹ)의 경우는 명사화된 구문이 주제표지 ‘은/는’ 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문장의 주제를 제시한다. 예문(26ㄷ)에서 후행 문장의 문두 부분에 있는 선행 내용을 지시하는 대용 요소인 ‘이는’ 을 보면 선행하는 ‘-(으)ㅁ’ 명사구가 문장의 주제이며 후행 맥락의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예문(26 ㄷ)와 (26ㄹ) 중에서 밑줄 친 주제 명사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알다’ 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이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한 기술이고 ‘이 스피커 소리가 줄어듦’ 은 어떤 스피커가 고장 난 사실을 가리킨다. 이들 주제가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일회적인 결과나 사태에 관한 것으로서 주제 명사구를 이끄는 명사화소 ‘-(으)ㅁ’ 의 [특정성]이나 [과거성]과 호응한다. 예문(26ㅁ)에서 ‘잎이 떨어져 있다’ 는 사태가 선행 문맥에서 언급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지식체계에 있는 ‘겨울에 잎이 떨어진다’ 는 상식과 일치한다. 잎이 떨어지면 거리의 청소 작업에 방해가 될 것이라서 ‘잎이 떨어져 있음’ 이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정보로서 주제와 조응하고 있어 텍스트 응결성을 실현한다.

[실체성]을 비롯하여 지시기능과 연관되는 의미기능으로는 또한 전제가 있다. 명사화소’ -(으)ㅁ’의 [실체성]에 덧붙어 임홍빈(1974:89-90)은 부차적으로 ‘-(으)ㅁ’이 현재나 과거에 이미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존재성]과 [과거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존재성]과 [과거성]을 바탕으로 명사화소 ’-(으)ㅁ’ 은 어떤 사실을 기록적으로 서술하거나 알림을 나타내는 것이다(이희자・이종희 2014:741). 즉, ‘-

(으)ㅁ’ 명사화 구문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태나 가정적 추론에 대한 지시에 적용될 수 없으며 과거나 현재의 어떤 사실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명사화소 ‘-(으)ㅁ’ 자체가 가지는 [실체성], [과거성]과 [존재성] 때문에 담화에서 ‘전제 유발’ 이라는 의미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7)
ㄱ. 나는 세민이가 집에 돌아왔음을 안다.
의미론적 전제: 세민이가 집에 돌아왔다.
ㄴ. 그가 이미 죽었음을 알려주면 네가 감당할 수 없을까 봐 숨겼어.
화용론적 전제: 그가 이미 죽었다.

예문(27ㄱ)의 문장은 ‘세민이가 집에 돌아왔다’ 라는 것을 전제로 유발한다. 예시를 보면 명사화소 ‘-(으)ㅁ’ 은 [과거성]의 의미적 특성뿐만 아니라 [완료]의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완료’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미 완료되거나 완전히 끝난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완료성]의 특징은 명사화소 ‘-(으)ㅁ’ 이 선어말어미 ‘-았/었-’과의 결합으로 구현될 수 있다. 황현동(2020)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여 완료된 사실이 아닌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28)
지수가 집에 간다면, 민희는 그것(지수가 집에 간 것)을 알 것이다.

예문(28)의 선행절 ‘지수가 집에 간다면’ 이 과거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라서 후행절에서 이 가정에 대한 지시가 이미 발생한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표적인 전제 유발 표현인 ‘알다’ 가 쓰여도 전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제’ 를 실현하는 지시가 과거적 의미만 드러내면 충분하지 않고 ‘완료’ 의 상적 의미도 중요하다. 명사화소 ‘-(으)ㅁ’ 이 가지는 [과거성], [존재성]과 [완료성] 등 특성은 전제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명사화소 '-(으)ㅁ'이 객관성 확보 장치로 기능하는 기제와 양상이다,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사실로 인정하거나 논증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텍스트 유형에서는 필자의 객관적 태도가 중요하다. 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객관성 확보 장치가 작용하는 대상으로 '근거'와 '주장' 두 가지가 있다. 명사화소 '-(으)ㅁ'은 [과거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해지지 않는 추론과 연관 있는 주장에 사용하기 어렵다. 명사화를 '근거에 대한 객관화' 장치로 활용하여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제를 분석하려면 '분리성'과 '거리 두기 (distancing)'라는 관련 개념을 살펴봐야 한다. 텍스트 내용을 표현할 때 주관성을 배제하려면 필자 자신이 해당 논술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명사화 과정에서 필자는 기술 대상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약화시켜 해당 내용이 정적 상태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박나리(2008)에서 명사화가 동작(동사)의 주체를 사건으로부터 분리시켜 명제 자체를 하나의 상태로 객체화함로 객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필자가 명사화를 통해서 서술 대상을 멀리서 관찰하는 객관적 입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명사화소 '-(으)ㅁ'의 특성에 있어 [실체성], [존재성]과 [상태성]이 '-(으)ㅁ'이 객관성 확보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화용적 의미의 기초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대개의 경우에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관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당 텍스트 내용을 '주관성이 없어 보이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텍스트에서 객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독자에게 접수되거나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명

제 내용이 사실적인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명사화를 비롯한 객관성 확보 장치들이 필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전략이다. '-음' 에 의한 객관화는 다음의 예시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확인될 수 있다.

(29)

ㄱ.이를 통해 동일한 헤지 표현이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결합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박이영, 2018:66)

ㄱ'. 이에 따라 동일한 헤지 표현이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결합형태가 있다.

ㄴ.유학생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헤지 표현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 (박미영, 2018:7)

ㄴ'. 유학생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헤지 표현 사용에 차이가 있다.

예문(29ㄱ)와 (29ㄱ'), 예문(29ㄴ)와 (29ㄴ') 동일한 명제 내용에 대해 각각 명사구와 동사구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 표현하는 예시이다. 대조해 보면, 예문(29ㄱ')과 (29ㄴ')의 동사구에서 '한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결합형태가 있다'는 현상과 '헤지 표현 사용에 차이가 있다' 는 결과가 명제적 정보로서 동사적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예문(29ㄱ)과 (29ㄴ)에서 밑줄 친 정보가 명사화되어 이미 정해진 과거의 사실처럼 제시되었다. 전자의 경우에 필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현상이나 결과를 진술하는 주관적 입장을 드러내며 후자의 경우는 필자가 이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견지에서 바라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필자가 명사화소 '-(으)ㅁ' 을 통해서 명제 내용을 객체화하고 거리를 두면서 바라보는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4.2. 명사화소 '-기'

비명사적 표현을 명사적 성분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 구

성에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명사화소’-기’가 ‘-(으)ㅁ’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30)
ㄱ.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목적어)
ㄴ. 월드컵에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해냈다. (주어)
ㄷ. 아직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부사어)
ㄹ. 밥을 먹기 전에 물 먹지 마. (관형어)
ㅁ. 너를 믿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준 거야. (관형어)

예문으로 명사화소‘-기’가 동사구를 하나의 명사절로 묶어 문장 구조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주의할 만한 점은 ‘-기’ 명사구가 관형어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에 항상 특정 명사 ‘전’이나 ‘때문’을 수식한다는 점이다. ‘-기 전(에)’와 ‘-기 때문(에)’라는 조합이 사용 빈도가 높아서 이미 관용적인 복합형식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동사적 표현에 명사적 성격을 부여하는 기능소로서의 명사성이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음’과 원래 의존명사의 범주에 속하는 ‘-(으)ㄹ／(으)ㄴ／는 것’에 비해 명사화소 ‘-기’는 [-실체성]과 [행위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을 띤다. 한 마디로 해석하면 명사화소 ‘-기’가 어떤 동적 과정이나 사태를 묘사하는 동사구를 명사적 성분으로 하는데도 해당 과정이나 사태를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적 실체로 대상화하기보다 동적 행위성을 유지한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31)
ㄱ. *날씨가 따뜻해지기를 느꼈다.
ㄴ. 날씨가 따뜻해짐을 느꼈다.
ㄷ.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예문(31ㄱ)와 (31ㄴ)를 대조해 보면 명사화소 ‘-기’와 ‘-(으)ㅁ’의 명사화 정도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두 문장 중에 ‘날씨가 따뜻해지다’라는 동사구가 명사화소에 의해 명사구 ‘날씨가 따뜻해지기’와 ‘날씨가 따뜻해짐’이 되

었다. 그런데 예문(31ㄱ)처럼 '- 기' 명사구가 '느끼다'를 비롯한 감각을 통해 지각하는 뜻을 나타내는 용언과 결합하면 문장이 비문이 되며 예문(31ㄴ)의 경우는 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명사화소 '- 기'가 [-실체성]을 지니고 있어 명사화소 '-(으)ㅁ'처럼 동사구에 실체성을 주어 대상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문(31ㄷ)에서는 '-기' 명사구가 명사화 구문이 되어도 동적 과정의 행위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명사화소 '-기'는 명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시기능을 수행할 때에 제약을 받아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대상화하는 데에 지시기능을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기'가 '-(으)ㅁ'의 [현장성]과 반대되는 [일반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자.

(32)
ㄱ. 누워서 침 뱉기.
ㄴ. 싸우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움.

국립국어원 (2005ㄴ: 67)에서 명사형 어미 '-기'는 문장 종결형으로 속담이나 표어, 지침이나 규칙 등 일반화된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하였다. 예문(32ㄱ), (32ㄴ)에서 밑줄 친 부분이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행위보다 추상적·관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명사화소 '-기'와 '-(으)ㅁ'은 명사화 보문소로서 서로 배타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우형식, 1987). 예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33)
ㄱ. 나는 세민이 공부함을 보았다.
ㄴ. *나는 세민이 공부하기를 보았다.
ㄷ. 나는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ㄹ. ?나는 노래함을 좋아한다.
ㅁ. *나는 동생이 노래하기를 들었다.
ㅂ. 나는 동생이 노래함을 들었다.
ㅅ. 농부들이 간절히 비가 오기를 원한다.
ㅇ. *농부들이 간절히 비가 옴을 원한다.

예문(33ㄴ)이 비문 되는 이유는 명사화소 '-기'가 [-존재성]을 가져서 지각 동사 '보다'와 같이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예문(33ㅁ)도 같은 이유로 비문이 된다. 예문 (33ㄷ)의 경우는 '노래하기'가 일반화된 노래하는 행위를 지시하고 호오 감정을 나 타내는 동사 '좋아하다'와 같이 쓰이며 예문(33ㄹ)은 과거나 현재의 어느 시점에 노래한 동작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서 매우 어색하다. 예문(33ㅅ)에서 명사구 '비가 오기'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가 오다'라는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 '-기'가 가지는 [미래성]의 구현이다. 비슷한 경우에 [과거성]을 띠는 '-(으)ㅁ'을 사용하면 예문(33 ㅇ)과 같이 비문이 된다. 목적어적 속격 구문으로서 명사화소 '-기' 자체의 의미 특성 때문에 상위 용언과의 결합에 있어 제한을 많이 받음에 따라 '-기'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지 동사나 지각 동사와 결합할 수 없고 아래의 예시처럼 '-(으)ㅁ' 명사구와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34)
ㄱ. *조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가 밝혔다.
ㄴ. 조사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이 밝혔다.

명사화가 '주제 제시'의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문장 단위의 정보를 명사절 형식으로 묶어 해당 내용을 문장이나 텍스트의 주제로 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위의 분석에 따라 명사화소 '-기'가 특정한 사건이나 과거의 사태와 관련된 주제에 적용되기 어렵고 일반적이나 가상적인 사건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관련된 주제에 사용된다.

(35)
ㄱ. 말하듯이 노래하기는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정된 후두로 노래하라는 의미이다.
ㄴ.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ㄷ.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함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문(35ㄱ, ㄴ)에서 주제표지 '는'과 결합한 주제 명사구 '말하듯이 노래하기'와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하기'는 모두 개념화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가 시제 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35ㄷ)의 경우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함'이라는 명사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는 특정한 경험을 지시하는 것이다. '텍스트 응결성 실현'에 관여하는 '조응'[23]은 명사화소 '-기'의 [일반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에 적합하다. 명사절을 구성하는 형식 외에도 '-기'는 관용적인 문형으로 굳히게 된 '-기 위해(서)'나 '-기 때문(에)' 등 형식으로도 텍스트의 논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의 예시처럼 명사화소 '-기'가 목적이나 원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텍스트 주제에 대한 조응을 실현하며 텍스트 응결성을 높일 수 있다.

(36)
민감성 피부에게는 여드름이 항상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여드름 붉은 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패드나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패드 사용을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패드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어 민감성 피부에 안 좋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담화 주제가 '민감성 피부의 여드름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여드름 붉은 기를 완화하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이 민감성 피부에 안 좋다'는 관념적인 정보가 선행 문맥이 없어도 화자와 청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체계에 의해 화·청자 사이에 공유된 담화 세계[24]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23) 이금주(2002:43)에서 '문맥 조응'과 '화맥 조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화맥 조응은 선행 담화 맥락 중에 나타나지 않지만 의사소통 참여자가 공유되는 배경 정보나 지식으로서 담화의 주제와 조응할 수 있다.

24) 강경민(2019)에서 담화가 시작되면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는 사전 경험이나 지식, 담화에 의한 관념적인 세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밑줄 친 명사화 구문은 ‘여드름’, ‘민감성 피부’라는 문단 주제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제와 조응하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처럼 화·청자가 공유하는 주제와 관련되는 지시체가 조응어로 간주될 수 있다.

명사화소 ‘-기’는 [미래성],[-존재성]과 [-완료성] 등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전제를 유발하지 못한다. 전제는 과거나 현재에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지시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의미기능이기 때문이다. 근데 전제 유발 기제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명사형 어미 ‘-기’를 언급한 연구가 있었다. 문금현 (2004)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하여 ‘-기’가 전제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 형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37)
ㄱ. 철수는 일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전제: 철수는 일을 하고 있었다.
ㄴ. 철수는 일하기를 싫어한다. 전제하지 않는다.

예문(37ㄱ) 중의 전제가 ‘-기’에 의하여 생긴 전제인지 술어 부분에 의하여 생긴 전제인지 확인하려면 ‘멈추지 않았다’가 아닌 다른 동사로 환언되는 예문(37ㄴ)을 보면 알 수 있다. 술어 부분이 ‘싫어하다’로 바뀌게 되면 ‘-기’가 전제를 형성하지 않는다. 즉, 예문(37ㄱ)의 전제는 동사 ‘멈추다’에 의한 전제이다. 따라서 명사화소 ‘-기’를 전제 유발 기제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다.

명사화소 ‘-기’의 의미적 특성은 객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명사화에 의한 객관화는 논증할 때 개인적인 주관적 태도를 배제하기 위해 동적인 사태에 대한 기술을 명사화를 통해 정적인 객체로 대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명사화 구문이 동사구의 행위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태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피하지 못하며 해당 명제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기 어렵다.

명사화소 '-기'가 [-사실성](최형기,1991)과 [미결정성](심재기,1980) 특성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에 대한 지시를 실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 명사화가 근거로 서의 명제 내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는 데에는 약세이다. '-기'의 [미결정성]과 충돌되지 않아 보이는 주장의 경우는 명사화소 '-기'가 [미래성]과 [미결정성] 때문에 강한 주관적 전망이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4.3. 명사화소로서의 '-(으)ㄹ/(으)ㄴ/는 것'

한국어에는 명사의 자립성 유무에 따라 의존명사와 자립명사 두 가지의 하위 분류가 있다. 의존명사는 의존성을 띠는 명사를 가리킨다. '-(으)ㄹ/(으)ㄴ/는 것'의 문법 범주에 대한 논의 중에 이를 의존명사로 보는 관점이 많았다. 의존명사로서의 '것'은 선행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 어떤 일이나 사물을 추상적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것'의 분포가 상당히 넓고 '의존명사'라는 개념만으로 '것'이 지니는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 다음의 예시가 있다.

(38)
ㄱ. 나는 세민이 민영과 포옹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ㄴ. 술 마시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ㄷ. 오직 꾸준한 노력으로써만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위 예문(38ㄱ), (38ㄴ)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세민이 민영과 포옹한 것'이 '세민이 민영과 포옹한' 특정한 장면을 의미하며 '술 마시는 것'이 '술 마시는 동작'을 개념적인 습관이나 행위로 일반화한다. 예문(38ㄷ) 의 경우에는 '것'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확신하는 태도만 나타낸다. 이처럼 '것'을 의존명사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를 해석하기 위해 '것'을 명사화소의 범주에 포함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명사화소로서의 '-

(으)ㄹ/(으)ㄴ/는 것’이 여전히 의존명사와 같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는 구조적 의존성이다. 명사화소 ‘-(으)ㅁ, -기’는 동사구 뒤에 붙어 명사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것’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으)ㄴ/는’과 결합해야 명사절을 이룰 수 있다. 즉, 명사화와 관련된 ‘것’을 언급하면 ‘-(으)ㄹ/(으)ㄴ/는 것’의 형식을 가리킨다. 의존명사로서의 ‘것’이 선행요소의 수식을 받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25].

(39)
ㄱ. 그것, 이것, 저것 (관형사)
ㄴ. 먹을 것, 쓰는 것, 좋은 것 (용언 어간+관형사형 어미)
ㄷ. 나의 것, 친구의 것 (체언+속격 조사)
ㄹ. 김 선생님 것, 언니 것 (체언 자체)

이와 달리 명사화소로서의 ‘것’의 선행요소는 ‘관형사형 어미’로 한정된다. 다양한 시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관형사형 어미의 영향을 받아 ‘것’ 명사화가 시간적인 의미 제약을 받지 않고 적용 범위가 ‘-(으)ㅁ’ 명사화와 ‘-기’ 명사화보다 넓다.

둘째는 강한 명사성이다. 명사화소로서의 ‘-(으)ㄹ/(으)ㄴ/는 것’은 명사적 어휘의 성격을 지닌다. ‘것’명사화가 명사화 정도가 가장 높은 명사화소라고 할 수 있다. 강한 명사성 때문에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이 추상적인 지시체에 ‘실체성’을 주는 데에 있어 강세이다. 명사화소로서의 ‘-(으)ㄹ/(으)ㄴ/는 것’이 명사절을 형성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

25) 서정수(1994:403)에서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관형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ㄱ. 관형사: 이, 그, 저, 새, 헌, 옛, 모든
ㄴ. 용언의 관형사형:<용언+관형사형 어미 ‘-ㄴ/-은, -ㄹ/-을’>읽는, 좋은, 읽은, 읽을
ㄷ. 체언의 관형사형:<체언+의>: 책의, 내, 네 ㄹ. 체언 자체
ㅁ. 용언의 명사형:<용언+명사화소 ‘기’>:먹기, 읽기 (경소력, 2018:12 재인용)

(40)
ㄱ. 어머니는 오빠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다. (목적어)
ㄴ. 그가 중국을 떠난 것이 분명하다. (주어)
ㄷ. 물가가 곧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사어)
ㄹ. 시험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저녁을 안 먹은 것이다. (서술어)
ㅁ. 멋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의 위험성 (관형어)

위의 예시처럼 '것' 명사절은 목적어, 주어, 부사어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동사구를 하나의 명사절로 묶어 상위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사화소 '-(으)ㅁ'과 '-기'가 의미적 특성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시 대상의 제약을 다르게 받고 있다. [과거성]을 지닌 '-(으)ㅁ'은 미래 사태를 나타내지 못하며 '-기'는 [미래성]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지시할 수 없다. '-(으)ㄹ/(으)ㄴ/는 것'의 경우는 '것' 자체가 시제와 관련된 의미적 특성을 가지지 않고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을 통해 시제적 의미를 나타낸다. 관형사형 어미들이 나타내는 시제 의미는 다음과 같다.

는: 현재 또는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
(으)ㄴ: 동사와 결합하면 과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이다'에 쓰이면 현재를 나타낸다,
(으)ㄹ: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선행 용언의 종류에 따라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경우 수식을 받는 '것'이 명사화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41)
ㄱ. 일반적인 보양 약품은 따뜻한 것으로 복용해야 한다.
ㄴ. 내가 상하이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예문(41ㄱ)에서 나온 '따뜻한 것'은 의존명사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예문(41ㄴ) 의 '내가 상하이에 간 것'은 '내가 상하이에 갔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술하는 동사구가 명사화되어 생기는 명사구이다. 후자의 경우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명사화소로서의 '-(으)ㄹ/(으)ㄴ/는 것'과 관련된다.

'-(으)ㄹ/(으)ㄴ/는 것'이 현재, 과거와 미래의 시제를 모두 드러낼 수 있으므로 지시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시제적 제약이 없다. 또한, 남기심(1991)에서는 '것'의 '화맥 관련 지시성'을 언급하였다. 즉, '것'에 의하여 지시된 대상의 의미 해석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담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42)
ㄱ. 수학 능력을 높이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ㄴ. 눈이 많이 내린 것을 보니 올해도 풍년이 들겠다.
ㄷ. 아이들이 엄마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ㄹ. <u>담배를 피우는 것</u>이 교실에서 금지됩니다.
ㅁ. <u>담배를 피우는 것</u>은 몸에 해롭다.

예문(42ㄱ)의 '수학 능력을 높이는 것'은 일반화된 개념이며 예문(42ㄴ)에서 '눈이 많이 내린 것'은 특정 시점에 일어난 '눈이 많이 내렸다'는 사태를 지시한다. 예문(42ㄷ)의 경우는 명사화소 '것'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와 결합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지시한다. 예문(42ㄹ)와 (42ㅁ)에서는 밑줄 친 명사화 구문이 똑같아 보이는데 맥락 요소를 고려하면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 (42ㄹ)에서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드러내는 부사어 '교실에서'의 영향을 받아 '담배를 피우는 것'이 특정적 지시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예문(42ㅁ)에서 나온 '담배를 피우는 것'이 특정성을 보이지 않아 일반적인 개념인 '담배를 피우는 행동이나 습관'을 지시한다. 따라서 지시 대상의 종류나 의미적 특성과 상관없이 명사화소 '것'의 지시기능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사화소 '-(으)ㄹ/(으)ㄴ/

는 것’이 지시기능과 관련된 의미기능들을 실현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다.

(43)

ㄱ.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어요?

ㄴ. 다들 여기까지 견지해 왔는데 지금 (이 일을) 그만두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다.

ㄷ. 그는 실패한 것(사실)을 숨겼다.

ㄹ. 그 장군은 부하의 모함으로 실패한 것이다.

ㅁ. 전기차로 지방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전기차로 서울에서 경주에 가는 것이 4시간쯤 걸릴 것으로 하면 배터리가 도착할 정도로 되는 것 같지만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부족해서 도중에 어디 들러 다시 충전해야 한다.

예문(43ㄱ) 의 ‘누군가 노래하는 것’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사태를 대상화하여 신정보를 지각 동사의 목적어로 담화에 도입하는 예이다. 예문(43ㄴ)에서 ‘지금 그만두는 것’은 서술어 ‘그만두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지만 담화 맥락에 따라 추측될 수 있다. ‘그만두다’가 선행 문맥 중에 없지만 ‘견지해 왔다’의 반의어로서 청자에게 뜻밖의 것이 아니고 선행 내용과 조응할 수 있다. 예문(43ㄹ)에서 ‘것’ 명사화 구문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됨으로써 신정보를 제공한다. 예문(43ㅁ)의 문단에서 ‘것’ 명사구가 여러 번 나오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담화 시작 부분에 있는 ‘전기차로 지방 여행하는 것’ 명사구에 주제표지 ‘은’이 붙어 있어 문장의 주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행 문단 내용의 논의 중심인 ‘전기차’를 제시한다. ‘전기차로 서울에서 경주에 가는 것’이 핵심 단어 ‘전기차’를 가지고 문단의 주제와 조응하고 있으며 문장의 문법적 주어인 주제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명사구 ‘4시간쯤 걸릴 것’이 신정보이기도 하고 ‘전기차로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선행 문맥과 조응하기도 한다. 예문(43ㄷ)에서 ‘실패한 것’이 ‘그가 실패

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전제한다. 문금현(2004)에 따라 ‘-ㄴ’ 관형사형 어미에 의해서 생긴 관형절 구조는 전제 유발의 대표적인 기제이다. 예문(43ㄷ)의 경우를 보면 ‘것’이 ‘사실’을 대체하고 문장 의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또 있다.

(44)
ㄱ. 그는 대학에 진학한 결정을 후회했다.
ㄴ. 그는 대학에 진학한 것을 후회했다.
ㄷ. 웃음이 많은 사람이 항상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웃음의 힘을 알 수 있다.

‘것’이 화맥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명사적 대상을 지시하는 데에 별 제약이 없다. 위 예문 중의 밑줄 친 부분을 대조해 보면 ‘것’이 ‘-ㄴ’관형사형 어미와 같이 관형절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실질 보문명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ㄴ’ 관형사형 어미와 사태나 사실을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는‘것’의 조합으로서 ‘ㄴ+것’ 구성이 전제를 생성하는 기제로 간주될 수 있다. 예문(44 ㄴ)에서 과거의 사실을 담화가 성립하게 하는 의미론적 전제로 하는 것보다 담화 화용적 기능을 논의할 때 화용적 전제의 화용적 가치가 더 주목을 받는다. 최재호(1995)에서 전제의 정보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전제가 원칙적으로 공유된 지식과 사실인데 실질적 사용을 보면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재호(1995)에 따르면 발신자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초점을 지탱할 수 있는 정보를 전제의 형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논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화용적 전제가 지시하는 내용이 담화의 맥락에 적합하면 사실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문(44 ㄷ)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는 것’ 구성에 의하여 일반화된 기정의 사실처럼 보이고 문장의 논리성

에도 적합하다. 이때는 ‘는 것’ 구성도 전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우형식(1995:34)은 ‘것’이 선행하는 관형절의 내용을 객관화하는 의미기능을 언급하였다. 이런 객관화의 실현은 관형절이 서술하는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대상화하여 정적 상태성을 드러내는 것과 연관된다.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45)

ㄱ. 명령형 종결 서법이 선행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명령형 종결 서법이 선행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초기의 연구들에서 중간언어 양상이 학습자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의 연구들에서 중간언어 양상이 학습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예시에서 제시되는 문장들의 밑줄 친 부분을 비교해 보면 명제적 내용이 똑같은데 동사적 표현의 형식보다 명사화 구문이 ‘사실성’을 더 강하게 보이고 필자의 객관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느낄 수 있다. 태도 표현에 관련된 연구에서 ‘것’ 구문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구성하는 ‘-는 것이다’ 구문이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해 강한 ‘확신, 단정, 강조’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많이 언급되었다. 국립국어원(1999, 2005)에서 ‘는 것이다’ 문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 (국립국어원 1999:297),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객관화하여 강조할 때 쓰인다. (국립국어원 2005:164),

즉, ‘-것이다’ 구문이 판단에 대해 ‘확신’태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판정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 장치로 볼 수 있기도 한다. 또한, ‘-(으)ㄴ/는 것이다’는 명사화 구문의 한 가지로서 명제 내용의 상태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가진다 (김한샘・배민연, 2017). ‘-는 것이다’ 구문이 문장의 서술어 위치에서 기능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인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46)

ㄱ. 예문에서 과거시제 의미를 갖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고, 이 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었-'을 사용하여 과거의 시제가 중복되므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소문경, 2015:13)

ㄴ. 예문에서 과거시제 의미를 갖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았/ 었-'을 사용하여 과거의 시제가 중복되므로 비문이 된다고 생각한다.

ㄷ. 간섭(interference)은 학습에 관한 심리학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행동주의 학습에서 주요하게 다룬 개념인 전이(transfer)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심리학적인 처리 과정으로 선행 학습이 새로운 학습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수미, 2017:23)

예문(46ㄷ)의 경우는 '것' 구문이 주어 '간섭'에 대한 보강으로서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주어 명사구 '이'와 보어 명사구 간의 의미적 관련성을 이룬다. 이때는 '-것이다' 구성이 서술하는 기능을 수행해서 태도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예문(46ㄱ)은 필자의 태도 표현과 관련되는 것이다. 예문(46ㄱ)에서는 필자가 선행 문맥에서 제시되는 예시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는데 '-것이다' 구성에 의하여 해석하는 주체를 숨긴다. 내용을 해석하는 주체의 존재를 드러내는 예문(46ㄴ)과 대조해 보면 '-것이다' 구성이 명제 내용을 객체에 가깝게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즉, '-것이다'구성이 선행 관형절인 '예문에서...비문이 되다'는 내용에 대해 화자의 판단과 확신을 나타내며 명제의 객관성을 높인다.

'것' 명사화와 관련되는 태도 표현은 '-ㄹ 것이다'라는 구성도 있다. '-ㄹ 것이다'가 필자 태도를 표현하는 데에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에 대해 논쟁이 지속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1999:297)에는 '-ㄹ 것이다'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ㄹ 것이다' 구성으로 쓰여) :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내는 말.

이처럼 '-ㄹ 것이다' 구성이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내는 말로 보는 관점

과 비슷하게 '-ㄹ 것이다' 구성이 주관적 태도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가 적지 않다.

한명주(2008)은 명제 내용에 대한 서술 태도 측면으로 보면 '-ㄹ 것이-' 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태도일 경우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다.

장지군(2015)에서는 추측 표현 항목들이 '명제 내용의 사실성' 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고 하고 '-(으)ㄹ 것이다' 가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는' 처럼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는 표현과 공기하는 점으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추측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한샘・배민연(2017)은 이준호 (2012)에서 제시된 어휘・문법적 완화 표현에 근거하여 이들 표현이 객관화 표지로서의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으) ㄴ/는 것이다' 를 명사화로서의 객관화 표지로 인정하였는데 'ㄹ 것이다' 가 가능성의 양태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명사화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객관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관규 외(2021)에서 양상의 방향성을 논의할 때 두 가지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화자가 메시지를 어떤 태도로 전달하는지에 따른 '객관적・주관적 ' 의 대립이고 또 하나는 양태 의미가 절 내재적으로 형성되는지 별도로 외재적으로 형성되는지에 따른 '내재적・외재적' 의 대립이다.

두 준거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47)
ㄱ. 나는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한다. [외재적・주관적]
ㄴ. 텔레비전은 인간에게 유해할 것이다. [내재적・주관적]

이관규 외(2021)에 따르면 예문(47ㄴ)에서는 '나'와 같은 동작 주체가 없어 직

접적으로 주관적인 성질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ㄹ 것이다' 구문이 추측적 의미로 어느 추측의 주체가 존재한다고 상정할 수 있어 내재적·주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학술 논문, 보고서 등을 비롯한 텍스트 장르가 주관적 태도를 배제하며 객관적 태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필자의 주관적 의식이 근거로서의 명제 내용의 신뢰도를 낮추고 독자를 설득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양한 객관성 확보 장치를 통해 근거로서의 명제 내용을 사실처럼 보이게 하고 필자가 객관적 태도를 가지고 사실을 제시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반박당할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확실하지 않은 명제 내용(추론이나 주장)에게는 반박될 여지를 독자에게 남겨 주는 완화적 표현이 오히려 필자의 객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 '-ㄹ 것이다' 구성을 객관적 표현으로 보는 연구가 다음과 같이 있다.

Hyland(1995,35-37)에서 '헤지 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저자의 진술을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신명선(2006)은 완화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제시되는 명제 내용이 연구자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이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완화 표현인 '-ㄹ 것이다' 구성도 연구자와 명제 내용 사이의 거리를 형성할 수 있다.

김은경(2015)은 '-을 것이다'가 추측이나 짐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어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사례를 근거로 하고 이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곧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추측이지만 근거의 바탕 위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예정][26]의 자질을 드러내며 필자의 개인

[26] 박재연(2006)에 따라 [예정]이라는 용어는 '곧 일어날 계획된 미래'의 의미로 정의

적인 주관적 의지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는 객관적 추론이다.

노유경(2016)에 따라 완화 표현이 논지를 약화시키는데 주장에 쓰이면 텍스트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 'ㄹ 것이다'가 완화 표현에 속하는 구성으로서 객관성 확보 장치로 텍스트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박미영(2018)에서 2013 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석사학위 논문 50편을 분석자료로 선정하여 학문 목적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헤지 표현의 양상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 논문에서 저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ㄹ 것이다' 구성을 덧붙임으로써 진술을 완화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ㄹ 것이다'는 저자가 자신의 제안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독자를 설득하는 전략으로서 효과적이다고 하였다.

어휘적이나 문법적 객관성 확보 장치가 텍스트에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독자를 설득시키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텍스트는 필자가 생산하는 내용으로서 필자의 주관적 인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위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다'는 것의 핵심은 진술하는 명제 내용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독자의 믿음과 인정을 받는 것이다.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에 단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완화적인 표현 방식이 필자의 객관적 입장을 드러내고 설득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본고는 '-ㄹ 것이다' 구성은 완화 표현의 한 가지로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예시가 다음과 같이 있다.

(48)

ㄱ. 또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학습자들의 높은 집중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구어 과제보다 '은 /는'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홍수민, 2018:62)

되었다.

ㄴ. 구어는 형태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더욱 다양한 변이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홍수민, 2018:7)

예문 중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ㄹ 것이다’ 구성이 확실히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 근데 이들 추측이 필자의 주관적 의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도가 높으면 정확도가 높다’와 ‘구어에 형태 제약이 별로 없어 변이 양상이 다양하다’처럼 객관적인 논리적 관계에 의한 것이다. 분명히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ㄹ 것이다’ 구성과 같은 완화 표현을 사용하여 판단하는 권력을 독자에게 남겨주는 것이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4.4. 명사화소 ‘-(으)ㅁ, -기,-(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과 제약의 대조

이 절은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명사화소 ‘-(으)ㅁ, -기,-(으)ㄹ/(으)ㄴ/는 것’이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과 제약을 논의한다.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시기능은 명사와 명사적 표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이 동사적 표현을 명사적 표현으로 대상화하는 점에서 지시기능을 고유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담화에서 명사화소가 생성한 명사화 구문에 의하여 지시되는 대상이 맥락에 따라 주제, 신정보, 전제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 맥락에 따라 지시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기능들이 다르게 실현될 수 있어 서로 구분된다. 또한, 명사화소가 명제 내용에 객관적 양태 의미를 더함으로써 ‘객관성 확보 장치’[27]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명사화된 명사적 표현

이 명사와 비슷하게 정적 상태성을 지니며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피하는 명사적 인식[28]을 가지는 고유 특성이다. 이에 따라 명사화소 '-기' 가 [명사성]에 비해 [동작성]이 더 강하므로 '객관성 확보 장치' 로서의 의미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시 확인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명사화소 '-(으)ㅁ' 이 [과거성]과 [현장성]이라는 의미적 특성 때문에 미래적이나 결정되지 않는 사건과 일반적인 개념을 지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시기능에 관련된 의미기능의 수행이 지시 대상에게서 제약을 받고 있다. 명사화소 '-기' 의 경우는 [미래성]과 [일반성] 때문에 과거적이나 이미 일어난 사건과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일회적인 것을 지시할 수 없으며 [과거성]과 [결정성]을 중요시하는 전제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여 ' 전제 유발' 이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에 비해 명사화소 ' -(으)ㄹ/(으)ㄴ/(는) 것' 은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가장 전면적이다.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에 의하여 시제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체의 화맥 관련성 때문에 지시 대상의 선택에 있어 별 제약이 없다. 의미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명사화소 ' -(으)ㄹ/(으)ㄴ/(는) 것' 의 고유 기능과 특성, 구체적인 의미기능 수행 양상과 제약은 다음과 같은 [표 9]로 정리될 수 있다[29].

---

27) 완화적 표현으로서의 '-(으)ㄹ 것이다' 가 명사화소와 관련되는 구성으로서 '객관성 확보 장치' 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가 '객관성 확보 장치' 라는 기능에 대한 실현은 '-이다' 구문이 추측의 행위 주체를 지워주는 것과 연관되고 명사화소 '-(으)ㄹ 것' 자체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28) 객관적 태도 표현과 관련된 명사화와 명사적 인식에 대해서 김홍수(1993)는 명사화의 내포 절차가 화자나 청자의 사태에 대한 직접적 인식·접근에 장애가 되고 청자 관련성을 배제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신선경(2005)은 명사화 표현에 개입하는 명사적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피하고 청자 관련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29) 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주제 제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텍스트 응결성 실현', '전제 유발'이라는 네 가지는 본질적으로 지시기능을 기반하는 의미기능이고 각

[표 9]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의 의미기능 수행 양상과 제약

의미기능	고유 기능/특성	기능 실현 기제	-(ㅇ)ㅁ	-기	관형사형 어미+것
주제 제시	지시 기능	문장, 문단이나 텍스트 전체의 주제를 명사화 구문으로 제시	과거적 현재적 일회적 사태나 사건에 대한 지시	미래적 총칭적 사건이나 개념에 대한 지시	'ㄴ 것'- 과거적·일회적 사태나 사건에 대한 지시 'ㄹ 것'- 미래적 사건에 대한 지시 '는 것 '- 현재적 사태나 총칭적 개념에 대한 지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담화 주제와 관련된 신정보를 지시함			
텍스트 응결성 실현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명제를 명사적 표현으로 지시한 후에 재배치함 -주제 핵심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지시함으로써 조응			
전제 유발		담화 맥락의 논리적 적절성에 기여하는 정보를 명사화 형식으로 지시함으로써 이를 기정 전제로서 유발함	과거의 사실을 전제로 유발함	×	'ㄴ 것' 구성- 과거의 사실을 전제함 '는 것' 구성- 사실이 아닐 수 있는 화용적 전제를 설정함
객관성 확보 장치	정적 상태성 직접적·현장적 인식을 피하는 명사적 인식	명제 내용과 관련 없는 양태적 의미	근거에 대한 대상화	×	근거에 대한 대상화 주장에 대한 완화화

명사화소가 지시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받는 제약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 표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순서로 네 가지를 같이 제시하기로 하였다.

Ⅲ.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실현 양상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언어 사용에서 명사화소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에서 고빈도로 활용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나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등 문제 유형은 학습자의 명사화소의 통사· 의미적 특성과 같은 문법적 지식에 대한 이해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데 명사화 구문을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맥락에서 명사화소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설문 조사로 진행된 예비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설문지 조사만으로 학습자가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활용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사는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을 기반하여 텍스트 자료 분석을 위주로 하는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1.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적 검토

예비조사는 모어 화자 15명과 중국인 학습자 2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 결과에서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에 대한 측정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반면에 의미기능에 대한 측정이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예상한 효과를 달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본조사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통하여 본조사 연구 방법에 대한 선정에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1.1. 예비조사 내용

예비조사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 도구를 설계하였다. 총 4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는데 무성의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여 모어 화자 설문지 14 부와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24부 총 38부를 분석하였다.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제외한 이유는 초급 학습자의 경우 아직 명사화소 '-음,-기, -(으)ㄹ/(으)ㄴ/(는) 것' 다 습득하지 못했을[30] 수 있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지 조사의 주요 측정 요소가 명사화소 의미기능인데 의미기능의 실현이 명사화소의 통사·의미적 특성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학습자들이 명사화소 '-음,-기, -(으)ㄹ/(으)ㄴ/(는) 것'의 통사적 특성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텍스트를 개발하였다. 통사적 특성에 관련된 측정 요소는 '-(으)ㅁ, -기' 명사화 구문의 상위문 서술어 제약, 시상어미와의 결합 제약, '것'이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할 때 선행절의 시제에 따른 선택 제약 등을 위주로 문법성 테스트 문항 10개를 설계하였다. 의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의 측정에 있어 선다형 담화 완성성 테스트가 개발되었다. 학습자가 문장 내용의 의미에 적합한 명사화 구문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가 각 명사화소가 가진 의미적 특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마지막의 의미기능에 대한 측정은 다음 [표 10]와 같은 상황 맥락 담화 완성 테스트와 빈칸 채우기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은 측정 효과가 낮지만 본조사의 연구 방법을 선정하는 데에 반성적 검토의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으로 의미

30) 시령리(2019)에 따라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에 명사화 관련된 교육 내용을 중급 이후 단계에 제시하는 교재가 5종이 있다.

가 있다.

[표 10]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의미기능 이해 양상 측정 도구 (일부)

과제 유형	문항 예시	측정 요소
상황 맥락 담화 완성 테스트	ㄱ:저쪽에 나무가 다 ()을/를 봤어? ㉠쓰러지기 ㉡쓰러졌음 ㉢쓰러져 있는 것 ㉣쓰러지고 있는 것	지시적 의미
	ㄱ: 학생들이 책 ()을/를 좀 봐. 부럽다. ㉠읽기 ㉡읽음 ㉢읽는 것 ㉣읽은 것	
	ㄱ: 지민이가 기분 안 좋아? 표정이 왜 그래? ㄴ:시험에 ()을/를 알게 됐나봐 ㉠떨어지기 ㉡떨어진 것 ㉢떨어졌음 ㉣떨어질 것	전제적 의미
	ㄱ: 승준이가 대학에 ()을/를 후회하더라 ㄴ: 무슨 소리야. 걔 언제 대학에 합격했어? ㉠가기 ㉡갔음 ㉢간 것 ㉣가는 것	
	ㄱ:취미가 뭐에요? ㄴ:소일거리로 바둑을 ()이/가 좋아. 테니스도 좋아. ㉠두기 ㉡둠 ㉢두는 것 ㉣둔 것	강조적 의미
빈칸 채우기	**정부나 전문 기관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괄호 안의 단어를 적절한 형식으로 빈칸을 채우십시오. 1,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다르다] 2, 최근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수가 ()[급증하다]	객관적 의미

상황 맥락 담화 완성 테스트 문항은 일정한 맥락을 갖는 대화 형식으로 설계되었다. ‘빈칸 채우기’ 문항에는 텍스트가 정부나 전문 기관의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장르 정보가 제공되어 있다. 명사화소가 텍스트에서 객관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필자 태도 표현과 관련되어 텍스트 장르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텍스트를 작성할 때 명사화를 객관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2. 예비조사 분석 결과

예비조사의 결과 분석에 있어 먼저 설문지 조사 결과에 대해 SPSS 단일표본 t 검증과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사적 특성 부분에 있어 거의 모든 측정 요소의 유의확률은 유의수준 0.05 보다 낮아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두 집단에서 통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의미적 특성의 이해 양상을 보면 측정 요소 총 13개 중 8개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의미기능의 경우는 '지시'와 '객관화'의 관련 기능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의미기능 간의 연관성을 검정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하였다. 유의미한 분석 결과로는 학습자의 명사화소 '-기'의 [미래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제' 의미기능의 수행 간의 상관관계, '객관화 전략'과 '명사화 사용' 간의 관련성 두 가지가 있다.

1.3.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과 본조사를 향한 시사점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얻은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양상에 있어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측정 요소인 의미기능의 양상에 대한 파악이 철저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를 야기한 원인과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기능의 유형 분류가 제대로 세분되지 않음에 따라 대응하는 측정 도구가 완비되지 않았다.

둘째, 텍스트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의미기능이 짧은 대화 맥락에서 밝혀지지 못했다.

셋째, 특정 장르의 텍스트에서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기능에 대한 측정 문항에서 텍스트 장르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었는데 회수된 답안지에서 '제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몇몇이 존재했다. 즉, 제목에서 제시되는 장르 정보가 오히려 응답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 조사를 실시하는 전제는 명사화 의미기능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II장 2.2.절에서 명사화 의미기능 분류 체계를 다시 구축하였다. 또한, 본고에서 논의한 의미기능이 고정된 문법적 기능이 아니고 담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화용적 기능이라서 객관식 문제의 문항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언어 전략으로서의 전제, 담화 참여자 양쪽이 공유하는 배경 지식이나 상식에 의한 조응 등 의미기능의 실현이 일부 맥락만 가지는 설문 조사 문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설문 조사 문항의 측정 효력이 떨어지는 기초에 사후 안터뷰를 추가해도 정확한 이해 양상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예비조사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기반하면 본조사는 학습자가 언어 사용자로서 실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명사화소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

2. 본조사

2.1. 분석 방법

2.1.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고 설명적 텍스트 쓰기 자료와 논증적 텍스트 쓰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쓰기 과제의 주제

는 한국어 능력 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TOPIK)의 기출문제 53번, 54번 문항을 선정하였다. TOPIK 쓰기 모범 답안 안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학습자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의 보강 자료로 하였다.

쓰기 주제와 보강 자료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능력 시험의 쓰기 53번 문항이 객관적 설명문이며 54번 문항이 논리적 논술문으로서 명사화가 자주 사용되는 문어 텍스트 유형이며 다양한 세부주제를 포함한다. 이들 제목을 주제로 작성되는 학습자 쓰기 자료는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에 중요한 요소인 텍스트 맥락을 다양하게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명사화 의미기능의 실현에 있어 나타내고 싶은 동사적 명제 내용을 명사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TOPIK 쓰기 53번 문항은 주어진 도표나 곡선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기술과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쓰기 유형이다.

셋째,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영역 채점 기준표는 '과제 수행',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세 부분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제시한다. '과제 수행'이 내용과 주제의 관련성, '전개 구조'가 텍스트의 응결성과 논리성, '언어 사용'이 글의 목적과 문어 특성에 적합한 문법 사용에 연관되는 것이다. 모범답안은 이들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텍스트로서 쓰기의 표현 목적을 고려하며 문법의 의미기능을 활용하는 우수 예시이고 그 중에 나온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도 의미기능에 대한 올바른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명사화소가 텍스트에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양상을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 텍스트를 학습자 텍스트의 보강 자료로 삼아 두 집단

의 텍스트에서 나온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결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 자료인 텍스트의 정보는 다음[표 11]과 같다.

[표 11] 분석 자료

<table>
<tr><td rowspan="4">CKL</td><td>인수</td><td colspan="2">TOPIK등급</td><td colspan="2">수집된 텍스트 수</td></tr>
<tr><td rowspan="3">5 0</td><td>5 급</td><td>6 급</td><td>설명적</td><td>논술적</td></tr>
<tr><td>25</td><td>25</td><td>25</td><td>50</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75</td></tr>
<tr><td>TOPIK
모범 답안</td><td colspan="3">설명적 텍스트 TOPIK 36/47/60 회
논증적 텍스트 TOPIK 35/36/37/41/47/48/52/60 회</td><td colspan="2">11</td></tr>
</table>

2.1.2. 분석 절차

이 절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명사화소의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행의 한국어 명사화 교육이 형태·의미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명사화의 화용적 의미를 소홀히 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명사화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에 대한 논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의미기능별에 따라 학습자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각 명사화소가 실제 텍스트에서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양상과 오류 양상을 도출한다. 그 다음에 TOPIK 쓰기 모범 답안에서 나타나는 명사화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II장에서 분석된 명사화 의미기능을 검증하고 학습자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활용 능력을 갖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밝히기 위해 학습자가 명사화소 의미기능을 실현하

려는 과정에서 범하는 오류 유형들이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고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내용의 설계에 접근한다.

2.2. 분석 내용 및 결과

2.2.1.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

분석 자료인 모범 답안의 구분 기호가 [TOPIK+회수+문항]의 형식으로 제시되며 학습자 텍스트의 구분 기호가 [CKL+문항+일련번호]로 제시된다. 예를 들면 TOPIK 35회 54번 쓰기 문항의 모범 답안이 [T35- 54]로 표기된다. 또한, 연구 대상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완벽하지 않아 작성한 텍스트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연결어미, 조사나 맞춤법 등 명사화와 상관없는 오류를 간과하기로 한다.

(1) 주제 제시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채점 기준표에는 글의 전개 구조에 대한 채점 근거에 있어 '시작을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명화(2021)에 따르면 TOPIK 쓰기 과제는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도입-전개-마무리' 아니면 '서론-본론-결론' 과 같은 구조로 응집성 있게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텍스트를 작성할 때 주제에 대한 제시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이나 텍스트의 주제가 명사적 어휘가 아닌 동사적 구조나 문장 단위의 정보일 경우도 존재한다. 명사화소가 용언 어간 뒤에 붙어 하나 이상의 의미 단위를 포함하는 동사구나 문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학습자 텍스트에서 이와 관련된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2] 학습자의 ‘주제 제시’ 의미기능 실현 양상(횟수)

주제 제시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을 것	-은 것	-는 것
10	0	3	0	0	7

학습자 텍스트에서 ‘주제 제시’ 의미기능은 주로 일반적인 개념이나 사건을 지시하는 ‘-는 것’ 구성에 의하여 실현된다. [일반성]을 지닌 명사화소 ‘-기’에 의한 경우도 보이지만 [특정성]과 [과거성]을 드러내는 명사화소 ‘-(으)ㅁ’이 주제를 제시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TOPIK 쓰기 주제가 일반개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으)ㅁ’의 의미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아서이다.

학습자 텍스트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49)
[CKL-54-3]: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약점도 있기도 한다. 반려동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CKL-54-32]: 온 단체 중에 각종 사람이 있으니까 교류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 다고 생각한다. ... 사람들이 교류를 안 하면 갈등을 겪기가 쉽고 일이 잘 완성될 수 없다. 갈등이 생기면 ....장기간의 갈등이 일을 하는 효율....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갈등을 겪고 교류하지 못한다. 갈등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CKL-54-42]: 일의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먼저 사람들이 좋은 결과만 생각하면 노력을 무시한다...

[CKL-54-3]에서 나타나는 ‘것’ 구성은 다 문장 단위에서의 주제부이다. 첫 번째의 ‘것’ 구문은 ‘반려동물을 키우다’는 내용을 문장의 주제로 제시하고 후행하는 평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장점에 관한 내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라는 명사구가 문장 후반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글 전체의 논의도 이끈다. 주의할 만한 점은 학습자가 후행 문단에 단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것’ 명사구를 사용하여 논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키우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잘 자라게 하는 것' 이라는 표현으로 '키우는 것' 명사구를 대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다' 는 문단 주제를 다시 부각하였다. 이렇게 텍스트의 핵심 주제 내용을 포함하는 명사화 구문을 이용하여 동일한 주제의 다양한 면에 대하여 논술하는 것이 텍스트 전체의 응결성과도 연관된다.

[CKL-54-32]에서 '교류하는 것' 과 '갈등을 겪기' 명사화 구문이 문장 단위의 주제를 제시하며 텍스트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요소 '교류' 와 '갈등' 을 포함하는 점으로 텍스트 응결성을 높이는 화제 성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CKL-54-42]에서 '것' 명사구로 제시되는 주제가 해당 문장의 주제이며 후행 문단의 주제이기도 한다. 문장의 후반 부분 '문제가 있다' 가 문장 주제인 '일의 결과만 중시하는 것'에 대한 제술이다. 문단 전체로 보면 후행하는 문장들도 문단 주제로 제시된 '일의 결과만 중시하는 것' 명사구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다음은 TOPIK 모범 답안을 통해 '주제 제시' 의미기능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자.

(50)
[T35-5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T60-54]: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먼저 **조기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 그러나 조기 교육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조기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러 이유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T35-54]의 쓰기 주제와 과제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제목 밑에 제시된 문제들이 쓰기를 작성할 때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과제가 텍스트 전개의 맥락과 각 문단의 주제에 관여하는 것이다. 과제 수행도 TOPIK 채

점 기준표에서 쓰기 영역의 채점 근거로 명확히 제시되는 항목이다. [T35-54]의 '것' 구문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동사구 전체에 대한 명사화의 결과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 후행하는 '그러한 것'이 선행 명사구에 대한 대용적 지시이고 선행 '것' 명사구가 나타내는 주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T35-54]는 '것' 명사화로 첫 문단이 논의하려는 주제를 제시하는 예시이다.

[그림 1] 제35회 TOPIK 54번 문항

사람들은 다양한 경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 대해 느끼는 각자의 만족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와 행복 만족도가 꼭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 경제적 조건과 행복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T60-54]의 쓰기 문항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응시자가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야 한다. 이에 따라 문장 전반 부분은 조기 교육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후반 부분은 선행하는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즉, 텍스트 구조를 이분하여 보면 전반의 주제는 '조기 교육'이라는 명사적 개념이며 후반의 주제는 '조기 교육을 하다'라는 동사적 행위이다. 여기서도 '주제 제시' 의미기능이 선행하는 핵심 요소 '조기 교육'을 포함하는 명사화 구문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제60회 TOPIK 54번 문항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기 교육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

- 조기 교육의 장점은 무엇인가?
- 조기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조기 교육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위의 학습자 텍스트와 모범 답안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제 제시'라는 의미기능이 실현되는 양상을 밝혔다. 문장 층위로는 명사화는 하나 이상의 의미 단위를 포함하는 주제 명사구를 형성할 수 있다. 텍스트 층위로는 명사화는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명사구를 형성함으로써 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텍스트 맥락의 논리적 연쇄를 유지할 수 있기도 한다. 즉, '주제 제시'는 문장, 문단이나 텍스트 단위의 주제로서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후행 내용의 논의 방향을 정하는 의미기능이며 텍스트 응결성의 실현과도 관련 있고 담화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주제를 제시하는 명사화 구문을 구성할 때 어휘 선택에 있어 실제 텍스트 주제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양상이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CKL-54-32] 는 '의사소통'이라는 정해진 주제의 텍스트에서 생성된 문장이다. 동사 '교류하다'로부터 형성된 '교류하는 것' 명사구로 텍스트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후행 내용에서도 '교류'라는 어휘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동사 어휘 '교류하다'가 '의사소통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텍스트에서 '의사소통'과 '교류' 간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텍스트가

원래의 주제에서 이탈되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주제를 제시하는 핵심 요소를 환언함으로써 주제 제시의 모호성이 초래되는 반면에 모범답안 텍스트[31]에서는 주제가 명확하게 제시된다. 한편, 학습자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명사화에 대한 회피 양상도 보인다.

(51)
[CKL-54-12]: 일상생활이나 작업이나 학습이 다른 사람한테 소통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이나 작업이나 학습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CKL-54-12]는 '의사소통'을 주제로 하는 텍스트의 도입 부분에 나타나는 문장이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서술어 '필요하다'의 주어격 위치에 명사적 성분이 있어야 한다. 이때, 명사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다'라는 동사구를 대상화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명사화의 의미기능 실현 방식과 명사화의 '주제 제시'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명사적 성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명사화 사용을 회피하고 명사 '소통'을 사용하여 비문을 생성한다.

(2)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학습자 텍스트에 있어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의미기능이 실현되는 횟수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

31) 모범 답안 [T60-54]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다.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먼저 조기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 그러나 조기 교육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문제점도 있다.....조기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런 이유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 '조기 교육을 실시하다'를 그대로 보유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핵심 어휘에 대한 환언을 피하는 예시다.

[표 13] 학습자의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의미기능 실현 양상 (횟수)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36	2	관용 표현	'-기' 명사구	-을 것	-은 것	-는 것
		13	3	1	2	15

학습자의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과 관련된 실현 양상을 보면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 에 의한 실현이 가장 많으며 '-기 때문에, -기 십상이다, -기도 하다' 등과 같은 관용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다만 명사절의 생성에 있어 명사화소 '-(으)ㅁ, -기' 와 관련된 양상은 '-(으)ㄹ/(으)ㄴ/는 것'에 비해 많이 적었다. 다음 문장을 통해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

(52)
[CKL-54-1]: 동기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한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을 격려한다. 동기는 힘든 시간을 지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CKL-54-4]: 우리는 역사를 꼭 아는 이유가 역사를 배움으로써 자신을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건대 고대인의 화석을 연구하면 고대인의 신체 구조와 진화 과정을 알고 인체를 이해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KL-54-6]: 요즘에 역사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유행하다. 현대 드라마보다 역사 영화가 다양한 느낌을 줌으로 인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CKL-54-32]: 갈등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입장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기 때문에 한 문제 앞에 생각도 다르다.

문어 텍스트에 도입되는 신정보는 항상 주제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정보 등이며 문장의 초점이다. 이러한 신정보를 제시하는 부분을 제술이라고 하는데 제술은 선행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신정보만 담을 수 없고 선행 문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구정보도 불가피하게 포함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람브리치트(1994)에서 '초점 영역' 속에 비초점 요소, 즉, 선행 맥락에 따라 추측될 수 있는 구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CKL-54-1]에서 문단의 주제는 반복적

으로 나타나는 명사 ‘동기’ 이다.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 ‘동기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한다’ 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두 번째 문장에서 주제인 ‘동기’ 는 생략되고 명시적으로 제시된 제술 부분에서 동사 ‘격려하다’ 는 첫 번째 문장의 ‘힘을 주다’ 로부터 추측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초점 영역 속의 비초점 요소’ 에 해당된다. ‘것’ 명사구가 선행 맥락에서 예측되지 못하는 ‘신정보’ , 즉, 정보 요점이다. 셋 번째 문장의 제술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기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명제가 추론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초점 요소이며 ‘힘든 시간에 지내는 것’ 명사구가 초점화되는 신정보이다. [CKL-54-4]도 이와 비슷하게 ‘것’ 명사구로 제술의 초점을 명료화한다. [CKL-54-6]에서는 명사화소 ’-(으)ㅁ’에 의하여 역사 영화가 주목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신정보가 도입되었다.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선행 내용에서 언급된 ’역사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유행하다’와 조응하는 구정보이며 해당 문장의 초점이 도입되는 ’-(으)ㅁ’ 명사화 구문이다. [CKL-54-32]에서는 명사화소 ‘-기’ 로 구성된 관용표현 ’-기 때문에’가 선행하는 문제를 대답해 주는 신정보를 도입하였다.

위의 분석에 따라 명사화소가 신정보를 텍스트 안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해당 정보를 초점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화소에 의한 명사화가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라는 의미기능 때문에 텍스트의 정보성과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모범 답안에서도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의 실현 양상이 보인다.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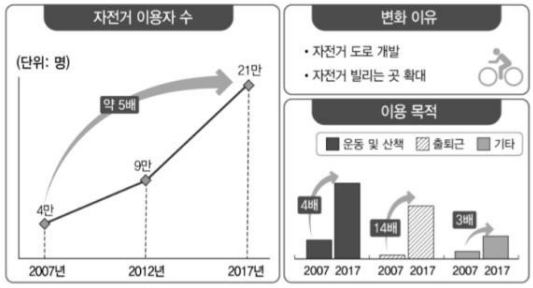
[T60-53]: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를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4만 명에서 2012년에는 9만 명,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T60-53]에서 제시된 정보는 다음의 [그림 3]와 같다.

[그림 3] TOPIK 제60회 53번 쓰기 문항

53. 다음을 참고하여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글을 200~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30점)



주어진 선도표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 수가 2007 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한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2012년-2017년간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범답안 텍스트에서는 이 부분을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즉, 이 예시가 바로 명사화소 '것'이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이라는 기능을 실현한 것이다.

위에 제시된 예시처럼 모범 답안 텍스트에서는 명사화소를 중요한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고 부각시키는 통사적 수단으로 적용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텍스트 '도입- 전개- 마무리' 구조 중 '전개' 부분에 적용된다. 한 텍스트에서 논의할 주제를 제시하는 '도입' 부분과 결론을 내세우는 '마무리' 부분과 달리 '전개' 부분이 항상 텍스트 주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인 신정보는 '전개' 부분에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학습자는 이러한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텍스트의 마무리 부분에 초점을 설정한 부적절한 양상을 보인다.

(54)
[CKL-54-40]: 조기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가 다 고민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

예문[CKL-54-40]은 '조기 교육'을 주제로 하는 논술적 텍스트의 마지막 단락이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마지막 단락은 선행하는 논의를 정리하고 텍스트의 핵심주제를 다시 강조하는 단계이다. 즉, 논술적 텍스트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계속 신정보를 도입하고 초점화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논의한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런데 [CKL-54-40]에서는 명사화 구문을 통해 신정보를 도입하는데 이 신정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후행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텍스트가 끝난다. 이러한 '신정보의 도입'은 텍스트 구조의 논리성과 완전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또한, 명사화소 간의 대치 오류와 관형사형 어미 선택 오류 양상도 나타난다,

(55)
[CKL-53-3]: 인주시는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기와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기는 그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CKL-53-20]: 한국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CKL-53-3]에서 나타나는 명사화의 실현은 과거의 동적인 사태를 명사적 표현으로 제시하는 '신정보의 도입'의 예시이다. 명사화소 '-기'는 [미래성]과 [미완료성]을 지니고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지 못한다. [CKL-53-20]에서는 '2023년까지 유학생 수가 20만 명에 달하다'라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미래와 추측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을 선택해

야 한다.

(3) 전제 유발

정희자(2000)에서는 발화가 적절한 언행이 되기 위해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거나 가정되는 명제가 전제라고 정의하였다. 즉, 실제 담화 맥락에서 필자는 맥락의 논리성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사실적 검증을 받지 않는 가정을 화용론적 전제로 설정할 수 있다.

학습자 텍스트에서 '전제 유발' 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4] 학습자의 '전제 유발' 의미기능 실현 양상(횟수)

전제 유발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을 것	-은 것	-는 것
6	0	1	1	3	1

출현의 횟수로 보면 학습자 텍스트에서 '전제 유발' 의미기능의 실현은 다른 의미기능에 비해 적은 편이다.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 에 의한 실현이 대다수이며 '-기' 로 전제를 설정하는 양상은 한 번 나타나고 명사화소 '-(으)ㅁ'을 통해 전제를 실현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56)
[CKL-54-28]: 먼저 칭찬의 적극적인 영향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자신감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KL-54-44]: 대부분 젊은이들이 전자제물을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사교하고 노인은 이런 새로운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CKL-54-47]: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다양한데 우선 노인이 자신 가치를 찾기 어려운 것은 그 예이다.

[CKL-54-28]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자신감이 증가하다' 라는 동사구는 '는

것’ 구성에 의해 명사화된다. 이렇게 동적 사태가 명사화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처럼 보이게 되고 선행절에 있는 ‘적극적인 영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기정의 사실로 제시함으로써 선행하는 관점이 성립하게 되고 텍스트 맥락의 적절성에 기여하는 양상이 ‘전제’의 화용적 가치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CKL-54-44], [CKL-54-47]에서도 [CKL-54-23]와 비슷하게 자신의 텍스트의 논리 맥락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원인을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적 상태성을 지니는 명사구가 가정하는 상황을 객체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텍스트 맥락의 적절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양상들이 신정보를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제보적 전제[32]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모범 답안에서 나온 양상으로 명사화소에 의한 ‘전제 유발’의 화용적 의미를 확인해 보자.

(57)
[T35-5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T35-54-V]: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한 것은 아니다.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알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이 필자의 관점을 입증하는 예시에 대한 제시이다. 해당 예시는 필자의 근거 없는 가정이고 독자는 이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밑줄 친 명사구를 동사구로 바꾼 예시 [T35-54-V]를 보면 해당 가정적인 예시가

32) 황현동(20200 에서 화용적 전제를 통해서 수신자가 전에 모르는 정보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논의할 때 ‘제보적 전제’라는 개념을 언급하였다. 제보적 전제가 전제되는 명제를 전경화(foregrounded)하여 단언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청자가 모르던 명제를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사적 표현으로 제시되면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35-54]처럼 사실성이 명확하지 않은 가정이 명사화되고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객체처럼 텍스트에 도입되어 선행하는 주장의 논리성을 향상시키는 예시가 명사 화소 '(으)ㄹ/(으)ㄴ/는 것' 의 '화용론적 전제' 에 대한 실현을 보여 준다.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명사화소에 의한 전제의 실현 기제와 화용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 양상이 다음과 같다.

(58)
[CKL-54-23]: 일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며 돈을 많이 얻을 것인데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느낌이 있다.
[CKL-54-25]: 현대사회의 발전이 할수록 빨라지고 있기에 따라 사람들이 유용한 인재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
[CKL-54-49]: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붙이는 것이다. 방학 후도 쉽지 못한 학생들은 부담감이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고 학습에 대해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 것에 기인한다.

[CKL-54-23]에서 학습자는 '행복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입증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밑줄 친 부분은 학습자가 가정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지만 명사화소 '것' 에 의하여 대상화된다. 명사화를 통해서 밑줄 친 부분은 후행하는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느낌이 있다' 라는 동사구와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학습자는 여기에 추측 의미를 드러내는 'ㄹ 것'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ㄹ 것' 구성을 사용함으로 인해, 이 예시는 확정되지 않은 추론처럼 제시되고, 이에 따라 필자의 관점을 입증하는 효력이 떨어지게 된다. [CKL-54-25]의 경우는 '-에 따라[33]' 표현이 '현대

[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에] 따르다' 가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 고 의미한다. 즉, '[...에] 따르다' 에 선행하는 표현이 명사적 성격이 강한 '일' 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사적 성격이 강한 명사화소 '-기' 가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사회의 발전이 빨라지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이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이어서 일어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명사화소 ‘-기’ 가 [행위성]이 너무 강해서 여기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CKL-54-25]에서는 ‘현대사회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 라는 것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의 배경 정보로서 전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기’ 가 [미결정성]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CKL-54-49]에서는 ‘ㄴ 것’ 구성이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학습에 대해 지루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다’ 는 구문이 특정 시점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과거적 사건을 나타내는 ‘ㄴ 것’ 보다 일반화된 것을 지시할 수 있는 ‘는 것’ 구성이 더 적절하다.

(4) 객관성 확보 장치

명사화소가 ‘객관성 확보 장치’ 로서 기능하는 양상이 학습자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5] 학습자의 ‘객관성 확보 장치’ 의미기능 실현 양상 (횟수)

객관성 확보 장치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을 것		-은 것	-는 것	
47	1	0	-을 것	-을 것이다	8	-는 것	-는 것이다
			6	24		3	5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명사화소에 의한 객관화의 실현 양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데이터 정보, 기정의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명사화를 통한 대상화로 실현된다. 다른 하나는 필자의 주관적 결론

이나 주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주로 명사화소로 구성된 완화 표현 '을 것이다'로 실현된다.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는 완화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객관성 확보 장치였으며, 대상화를 통한 객관화의 경우는 주로 '것' 명사화에 의해 실현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학습자 양상이 있다.

(59)
[CKL-53-1]: 우선 2019년 6.5 점이었던 인주시 대중교통 만족도는 2020년 8.2 점으로 대폭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CKL-53-2]:그러므로 10-30대 이용자 수가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CKL-53-3]: 앞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디면 2023년에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CKL-53-6]: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CKL-53-7]: 2017 년부터 정부의 김치 홍보로 인해 김치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KL-53-8]: 자료를 의하면 1인 가구의 수는 2000년 전체 가구 수의 16%를 차지하는데 2012년에 전체 수의 26%에 도달함을 보여주었다.
[CKL-53-12]: 반면에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2014년의 14조 원에서 2018년의 53조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KL-53-16]: 이러한 현황으로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CKL-53-19]: 또한 자전거를 빌리는 곳이 확대되는 것은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위의 예시를 보면 이들 명사화 구문은 다 동적인 추세, 변화를 묘사하는 동사구로부터 전환되는 것이다. 과거의 변화라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명사화소 '것'의 결합 구성에 의하여 명사화되며 미래의 추세라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과 '것'의 결합 구성에 의하여 명사화된다. 과거의 변화를 묘사하는 명사화 구문은 설명하는 대상의 동태성을 약화시킴으로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CKL-53-8]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비슷한 [과거성]을 지니는 명사화소 '-(으)ㅁ'에 의한 명사화 구문이 나타난다. [CKL-53-2], [CKL-53-3],[CKL-53-16]처럼 미래의 추세에 관한 명사구는 자동

사인상위문 동사 ‘기대되다/ 예측되다’와 결합하여 주관적 추측을 하는 주체를 숨김으로써 객관성을 드러낸다.

(60)
[CKL-54-4]: 역사를 배우면 과거의 좋은 방법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을 모색할 때 과거의 비슷한 경우를 참조하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CKL-54-14]: 사람이 게으른 특징이 있고 좋은 결과를 받고 싶으면 꼭 분명히 동기가 있어야 한다. 이러면 일이 순조롭게 완성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CKL-54-18]: 먼저 반려동물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간이 심리적 안전감과 친밀감이 느낄 수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심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
[CKL-54-22]: 듣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아서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배려하면 의사소통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장에 대한 객관화는 주로 완화 표현에 의하여 필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보유하고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실현된다. 위의 제시된 학습자 예시가 자신이 전술한 논술을 바탕으로 얻는 추론이나 결론에 완화 표현 ‘을 것이다’를 붙여 반박하는 권리를 독자에게 남기고 있으므로, 이때의 ‘을 것이다’ 구성이 ‘객관성 확보 장치’ 의미기능에 대한 실현이다.

모범 답안 텍스트에서 ‘객관성 확보 장치’로서의 명사화소 의미기능 실현 양상도 학습자 텍스트의 양상과 비슷하게 대상화와 완화화 두 가지로 나타난다.

(61)
[T35-54]: 배고픈 예술가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물론 그 여유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해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T47-53]: 이러한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T47-54]: 우리는 보통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은 그 방법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T60-53]: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35-54], [T47-54]는 필자가 완화 표현으로서의 ‘ㄹ 것이다’ 구문을 통해서

추론이나 의견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주관적 태도를 약화시키는 완화화 예시이다. [T47-54] 에서 나온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성과 같이 자신의 관점에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아/어야 하다' 뒤에 완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진술을 완화하는 것[34]은 논술적 텍스트에서 자주 보이는 양상이다. [T47-53]에서 2023년의 외국인 유학생 수에 대한 예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인 사태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사화소 'ㄹ 것'을 결합해 대상화한 뒤 부사격 조사 '(으)로'와 결합해 자동사 '기대되다'의 부사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측하는 행위 주체가 지워지게 되어 객관성이 높아진다.

(5) 텍스트 응결성 실현

텍스트의 응결성은 다양한 어휘나 문법적 장치로 실현될 수 있다. 명사화소는 서로 논리적인 관련이 있는 동사구 명제들을 하나의 문장 안으로 배치하여 명제 간의 논리성을 높임으로써 문장 층위의 응결성을 실현한다. 텍스트 층위의 응결성의 경우 주제 명사구를 반복하거나 주제와 조응하는 정보를 명사절의 형식으로 도입함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기능이 학습자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6] 학습자의 '텍스트 응결성 실현' 의미기능 실현 양상(횟수)

텍스트 응결성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34) 박미영(2018)은 석사학위 논문 50편에서 분석 자료로 하고 학술 텍스트의 헤지 표현(완화 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저자들은 대체로 '-아/어야 하다'를 사용하면서 헤지 표현 '-(으)ㄹ 것이다'를 덧붙여 진술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논문의 독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반감을 고려하여 부드럽게 의견을 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독자를 설득시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실현						
47	3	-기 (위해/때문)	'-기' 명사구	-을 것	-은 것	-는 것
		30	2	1	0	11

학습자 텍스트의 실현 양상을 보면 명제 간의 논리적 관계를 드러내는 관용표현 '-기 (위해/때문)'의 출현 횟수가 가장 높다. 반면에 명사화소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명사절을 생성할 때 명사화소 '-(으)ㅁ, -기'의 사용은 여전히 잘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문장 층위의 응결성부터 살펴보자.

(62)
[CKL-54-3]: 혼자 살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외롭지 않을 것이다. 생활 리듬이 빨라서 친구를 오래만에야 만날 수 있어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런데 저녁을 먹은 후에 반려동물과 동네에서 산책하거나 공원에서 같이 놀 수 있으면 외로움을 쉽게 느끼지 않겠다.
[CKL-54-18]: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집안에 뛰어다녀서 가구나 기타 물건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CKL-54-32]: 우회가 겪으면 말을 다툼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교류할 것[35]은 좋 은 방법이다.
[CKL-53-8]: 자료를 의하면 1인 가구의 수는 2000년 전체 가구 수의 16%를 차지하는데 2012년에 전체 수의 26%에 도달함을 보여주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나는 것은 결혼관이 변화함에 따른 독신자가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CKL-54-3]에서는 '-기' 에 의하여 '혼자 살다' 동사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다' 동사구 간의 대조 관계가 형성된다. [CKL-54-18]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다' 동사구와 '아이를 기르다' 동사구가 명사화소 '것' 에 의하여 명사화 구문으로 전환되고 뒤에 이어오는 '과 같다' 표현으로 서로 연결된다.

[CKL-54-32]의 경우는 '말을 다툼하다' 동사구와 '자세히 교류하다' 동사

35) 여기는 관형사형 어미에 대한 사용이 적절하지 않지만 명사화 구문이 실현되는 의미기능에 대한 토론에서 오류를 자세히 논의하지 않고 뒤에서 학습자 오류 양상을 제시할 때 논의 하기로 한다.

구가 명사화된 후에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격조사 ‘보다’를 통해 비교의 대상으로서 서로 연결된다. [CKL-53-8] 에서는 ‘결혼관이 변화하다’ 동사구와 ‘독신자가 증가하다’ 동사구가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에 따른’ 표현을 통해서 연결된다. 명사화소 ‘것’에 의하여 ‘독신자 수의 증가’가 ‘결혼관의 변화’의 결과이며 ‘1인 가구 수의 증가’의 원인이다는 논리적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표층적인 명제 연결 외에 텍스트 문맥에서 서로 멀리 분산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조응을 통해 텍스트 응결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은 전체적인 텍스트 층위의 ‘텍스트 응결성 실현’ 의미기능 실현 양상이다.

(63)

[CKL-54-11]: 요즘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릴 때부터 악기나 외국어 등 여러 가지를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조기 교육은 좋은 점이 있다. 우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면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학교에 들어간 후만 배우보다 더 빨리 공부하기 때문이다.....나는 조기 교육을 일부 찬성한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CKL-54-2]: 듣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아서 의사소통도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둘째,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배려하면 의사소통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이루는 것 중요하다.

[CKL-54-27]: 여러 가지의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으면...학교에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수업 끝난 후에 스스로 흥미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촬영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학교에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 수업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학생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CKL-54-11]에서 텍스트 마지막의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것’ 구문과 텍스트 시작 부분의 주제인 ‘조기 교육’을 설명하는 명사구 보문절이 조응하고 있다. 예문[CKL-54-2]에서 첫 번째 문장은 ‘듣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다’ 동사구와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지 않다’ 동사구 간의 인과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줘야 한다’는 내용이 추론될 수 있다. 따라서 ‘잘 들어주다’를 의미하는 동사 ‘경청하다’로 형성된 명사구 ‘경청하는 것’은 선행 문맥에서 나오지 않지만 추측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추론 조응[36]이다. 텍스트 마지막 부분에서 ‘의사소통을 잘 이루는 것’ 명사화 구문이 텍스트의 주제인 ‘의사소통’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제에 대한 조응으로 텍스트 응결성을 높인다. [CKL-54-27]에서 명사화 구문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는 것’라는 명사구가 선행하는 ‘스스로 흥미로운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선행 내용과 조응한다. ‘학생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것’ 구문이 문단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과 의미적으로 조응하고 있다.

모범 답안에서는 명사화소에 의하여 텍스트 응결성을 실현하는 양상이 조응으로 주로 나타난다.

(64)

[T37-54]: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자신만의 특성화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T52-54]: 의사소통이 항상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 사고 방식의 차이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들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T60-54]: 조기 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였을 때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이유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

[T60-54]가 가장 전형적인 조응의 실현이다. 여기서는 선행 문맥에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응결성을 강화한다. [T37-54]와 [T52-54]의 경우

36) 이금주(2002)에 따르면 ‘추론 조응’은 ‘화맥 조응’의 하위 개념이고 세계 지식과 같은 화용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적 또는 고도의 추론을 통해 얻어진 지시체에 대한 지시이다.

는 [T60-54]와 같이 동사구 전체를 명사화하여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조응 형식이 아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음’과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와 ‘의사소통을 어렵게 함’간의 대응 관계를 자세히 보면 명사화를 통해서 핵심 부분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T37-54]와 [T52-54]도 명사화소 ‘-(으)ㅁ’에 의하여 문맥 조응을 실현하는 예시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응결성 실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 양상도 존재한다.

(65)
[CKL-54-2]: 듣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지 않아서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먼저 의사소통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이 어느 때 의사소통을 필요하고 어느 때 경청을 필요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느낌을 배려하면 의사소통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CKL-54-32]: 우회가 겪으면 말을 다툼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교류할 것은 좋은 방법이다.

예시[CKL-54-2]에서 ‘경청’이라는 핵심 어휘를 포함하는 명사화 구문 ‘경청하는 것’은 선행 내용에 대한 조응으로서 텍스트의 응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CKL-54-2]에서 첫 번째의 밑줄 친 부분은 ‘어느 때 경청을 필요하는 것’이라는 구문은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필요하다’가 타동사가 아니라서 명사 ‘경청’을 목적어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명사화에 대한 과도 사용이기 때문에 ‘어느 때 경청이 필요한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것’ 자체는 의미적이나 시제적으로 별 제약을 받지 않지만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하위 용언의 시제적 의미를 고려하며 해야 한다. [CKL-54-32]에서 ‘자세히 교류하다’가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미래적 의미를 지니는 관형사형 어미 ‘ㄹ’에 비해 현재적 의미를 나타내는 관

형사형 어미 ‘는’과 적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2.2.2.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시사점

학습자 텍스트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자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17] 학습자 오류 유형

의미기능 유형	오류 유형
주제 제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전제 유발 객관성 확보 장치 텍스트 응결성 실현	불필요한 환언을 사용하여 주제 제시의 모호성을 초래함
	회피 오류
	관형사형 어미 선택 오류
	텍스트의 마무리 단계에 신정보를 도입하여 초점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고 전체적인 텍스트 구조를 파괴함
	과도 사용
	명사화소 간의 대치 오류

또한, 학습자 텍스트에서 나온 명사절 내포문에 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8] 학습자의 명사절 내포문 사용 양상(횟수)

	빈도 수	-(으)ㅁ	-기		-(을/은/는)것		
명사절 내포문	120	6	관용표현 -기 (위해/때문 등)	‘-기’	-을 것	-은 것	-는 것
			43	9	9	13	40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명사화소 사용 양상을 보면 명사절 내포문에 대한 사용에 있어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을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출현 횟수로 보면 학습자 텍스트에서 명사화소 ‘-기’에 의한 명사화는 주로 관용표현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명사화소 ‘-기’와 관

련된 관용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명사절을 구성하는 양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습자가 명사화소 '-기'에 대한 활용 의식은 '-기'를 포함하는 관용표현을 위주로 하며 명사화소 '-기'로 명사화 구문을 생성적으로 활용하는 의식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사화소 '-(으)ㅁ'의 사용 양상이 모든 의미기능에 대한 실현에 있어 다른 명사화소에 비해 항상 적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선정된 분석 자료인 텍스트의 주제와도 연관이 없지 않다. 즉, [과거성]이라는 특성을 지닌 명사화소 '-(으)ㅁ'은 특정 시점이 없는 일반 개념이나 사건을 논의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문항과 적합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과거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학습자는 비슷한 과거적 의미를 지닌 '-(ㄴ/은) 것' 구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 즉, 학습자가 명사화소 '-(으)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의할 만한 점은 학습자 텍스트에서 명사화 구문을 사용해야 되는 곳에 명사화소의 사용을 회피하는 오류 양상도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유롭게 명사화소들을 사용하여 명사화 구문을 구성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텍스트에서 명사화소의 의미기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양상이 보이며 명사화를 사용해야 하는 데에 명사화를 회피하는 오류 양상도 보인다. 예를 들어,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신정보를 도입하는 의미기능은 텍스트의 내용 맥락을 전개하는데 학습자가 중요한 핵심 내용을 초점화하거나 주제를 회복해야 하는 텍스트 마무리 부분에 신정보를 도입하는 명사화 구문을 사용해서 독자들은 텍스트가 끝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 끝났다고 느끼게 된다. '주제 제시'

라는 의미기능에 관한 실제 사례에서 텍스트 주제로서의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데에 부적절한 환언을 사용해서 주제 제시의 모호성을 초래하여 의미기능을 잘 실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명사화에 대한 부적절 사용의 본질적인 원인은 학습자들이 명사화가 실제 담화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미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인지를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명사화 구문의 화용적 가치와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기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가 각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어 명사화소 대치 오류나 관형사형 어미 선택 오류 양상이 보인다. 이는 학습자들이 명사화소를 사용하는 의식이 있지만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적 특성과 이로 인한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학습자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라는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기' 명사화 구문이 나타난 횟수가 3회뿐인데 그중에 2회가 [미래성]을 지닌 '-기' 를 과거 사건인 정보에 적용한 오류이다. 과거의 특정 사건을 지시하는 데에는 [과거성]을 드러내는 명사화소 '-(으)ㅁ'이나 '-(으) 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학습자가 명사화소 '-기' 가 과거 사건을 지시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잘 몰라서 오류를 범한다.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 과 관련된 사용 양상에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지닌 의미적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의미기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오류의 양상이 보인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66)

[CKL-54-23]: 일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한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으며 돈을 많이 얻을 것인데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느낌이 있다.

밑줄 친 부분은 명사화소에 의하여 전제를 의도적으로 유발하여 텍스트 맥락의 적절성을 높이는 예시이다. 텍스트의 논리적 맥락에 적합한 내용을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가 추측적 의미를 나타내는 '-(으) ㄹ'을 선택해서 해당 명사화 구문이 텍스트 맥락을 뒷받침하는 전제로서의 효과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오류는 문법적인 오류는 아니지만, 명사화소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정확한 활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학습자가 명사화소의 화용적 의미기능과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제약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명사화소를 활용하여 의미기능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연계하는 교육 내용과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적 특성과 '-(으)ㄹ/(으)ㄴ/는 것' 명사화의 의미기능 실현을 연계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

1.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목표

제2 언어 교육은 항상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사화라는 문법 현상은 비명사적 표현을 명사적 범주로 전환시켜 명사와 같은 통 사적 기능을 갖게 하는 점에서 형태·통사적인 가치가 크다. 명사화 구문은 문장 단위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명사적 성분으로서 상위문의 주어격, 목적어격, 부사격 등 다양한 위치에 재배치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동사구에 대한 문법적 범주 전환이라는 통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하는 명사화의 담화 화용적 기능도 나타난다. 명사화 구문을 내포하게 되는 상위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복잡해지고 해당 문장이 위치하는 텍스트의 응결성도 명사절에 의한 문장과 문장의 직접적 연결에 따라 높아진다. 또한, 명사화의 가장 기본적인 지시라는 기능에 의해 담화에서 신정보와 구정보가 다름없이 지시할 수 있다. 지시되는 정보를 담는 명사화 구문이 담화에서 주제, 전제나 조응 등 다양한 역할로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명사화는 실제 언어 사용에서 활용되는 가치가 높다. 기존의 문법 교육은 문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을 제시해 주기도 하지만 이는 정해진 맥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 언어 사용과는 괴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습자들이 문법적 지식이나 기계적인 예문만 접한다면 명사화에 대한 화용적 능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사화에 대한 교육은 문법적 의미와 기능에 국한되지 않야 하고 실제적인 담화 맥락 요소를 고려하

여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

본고는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와 명사화를 언어 전략으로 활용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부터 이로 인한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최종적으로 맥락에 따라 적절한 명사화소를 선택하여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내용

2.1. 명사화소 교육 내용의 체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명사화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최종 목표의 실현에 선행하는 하위 목표는 다음 두 가지이다.

1, 명사화가 실제 사용에서 갖는 언어적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2, 학습자가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받는 제약을 파악하여 명사화소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한다.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한 인식은 비명사적 구성을 명사적 범주로 전환시키는 통사적 측면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다. 학습자가 명사화 구문이 실제 담화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야 명사화를 통해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적합한 의미기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화의 화용적 가치를 먼저 인식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명사화에 대한 활용은 맥락에 따라 명사화소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명사화소 '-(으)ㅁ', '-기'와 '-(으)ㄹ/(으)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은 비슷한 통사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비명사적 구조를 명사화하는 점에서 유사 문법[37]이라

할 수 있지만, 의미적 차이점 때문에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다르게 받고 있다.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원리에 있어 이지용(2019)은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유사 문법 항목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어의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내용은 화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사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한 실현과 연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Underwood (1951)에서는 언어 항목 간에 보이는 유사성이 언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 오류를 부정적 전이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사성의 소극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 유사한 문법 항목들을 변별하는 핵심 과제이다. 진정란(2005)은 학습자들이 유사한 문법 항목의 공통적인 자질보다는 상이한 자질을 발견해 내는 데에 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즉, 서로 유사한 문법들을 구분하는 요점은 공통점이 아니라 문법간의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내용에 있어 각 명사화소가 화용적 측면에 보이는 차이, 즉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부각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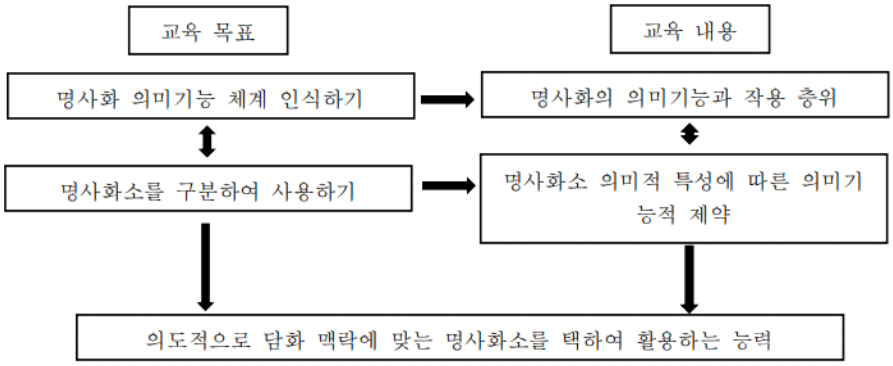
위에 제시되는 하위 목표를 먼저 달성하여야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들 하위 목표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목적에 적합한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와 명사화가 실제 텍스트에서 작용하는 층위
2,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과 이에 따른 의미기능 실현 제약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결합한 명사화 의미기능 교육 내용에 대한 체계화는 다음의 [그림 4]과 같다.

37) 전예화(2015)에서는 유사 문법이라는 개념을 의미나 기능이 비슷하나 구체적인 쓰임에서 차이가 나는 문법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4]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체계



2.2. 교육을 위한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 재구성

전에 진행된 명사화소들이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기제와 양상에 대한 세부적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명사화의 의미기능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어떤 문법이 실제 담화에서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사화의 의미기능에 있어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와 '주제 제시'라는 두 가지의 의미기능은 모두 명사화의 지시기능을 바탕으로 실현되는데, 지시 대상이 텍스트에서 맡는 역할에 따라 구분된다. 즉, 명사화에 의하여 지시되는 정보가 후행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요소를 포함하면 해당 명사구가 후행 발화의 시발점인 '주제'를 제시한다고 간주되는데 이때는 명사화 구문이 '주제 제시'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선행 맥락으로 추론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지시하면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기능의 실현이라 해석할 수 있다. 텍스트 응결성을 실현하는 한 가지의 수단으로서의 조응과 담화 맥락의 적

절성에 대해 큰 의의를 가지는 전제도 지시기능에 의하여 실현되는 의미기능이다. 텍스트 응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 명사화가 작용하는 층위는 문장 층위와 텍스트 층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문장 층위의 경우는 명사화소가 서로 관련된 하나 이상의 비명사적 명제 내용을 명사절로 묶어 같이 하나의 상위 문장에 배치함으로써 명제 간의 연관성을 높여 텍스트 응결성에 도움이 된다. 텍스트 층위의 경우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명사절의 형식으로 도입하거나 주제 핵심 요소나 대용 요소를 포함하는 명사화 구문을 생성함으로써 주제와의 조응을 실현한다. 이처럼 서로 교차되는 의미기능들이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전에 분석된 명사화 의미기능 분류 체계가 직접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기는 어렵다.

김창원(2014)은 교육 내용에 대한 설계는 교육의 효율과 교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 명사화가 작용하는 층위를 고려하여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언어 사용에서 명사화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기능 체계에 관한 지식을 실제 텍스트 구조의 층위와 연관 지어야 한다.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명사화가 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며, 텍스트에서 어떤 역할로 기능할 수 있는가?
2, 언어 사용자가 명사화에 의하여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이처럼 명사화를 언어 사용자가 문장이나 텍스트를 생성하는 행위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과 연관 지은 것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명사화의 의

미기능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혜(2010)에서는 텍스트 구조를 ‘미시 구조’, ‘거시구조’, ‘최상위 구조’ 세 층위로 구분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텍스트 구조 층위와 관련 내용(이미혜 2010)

텍스트 층위	텍스트 구조 관련 내용
미시 구조	문장 내 연결 문장 내 지시, 호응, 생략 등 문장 의미 구성
거시 구조	단락의 내용 전개 내용의 일관성 문장 간의 연결
최상위 구조	글의 전체 구성 주제, 제목과 내용의 연결 단락 간의 내용 전개 및 연결

이에 따라 텍스트 구조와 관련된 명사화 의미기능과 텍스트 구조 층위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20] 명사화 의미기능의 실현과 텍스트 구조 층위의 대응 관계

텍스트 층위	텍스트 구조 관련 내용	명사화 의미기능
미시 구조	문장 내 연결 문장 의미 구성	문장 층위의 응결성 : 문장 내의 명제 연결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거시 구조	내용의 일관성	텍스트 층위의 응결성 : 주제나 선행 내용에 대한 조응
최상위 구조	주제, 제목과 내용의 연결 단락 간의 내용 전개 및 연결	주제 제시 텍스트 응결성 실현

또한, 크리스모어 외(Chrismore etc, 1993)는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메타 담화’란 개념을 해석할 때 “명제적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청자나 독자가 주어진 정보를 구성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어적 자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객관성 확보 장치’라는 의미기능은 텍스트 구조와 큰 관련이 없지

만 필자의 객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적 수단으로서 그 교육적 가치가 높다. 전에 진행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명사화의 작용 층위를 고려하여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21] 재구성된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

<table>
<tr><th colspan="2">텍스트 주조와 관련된 의미기능</th><th colspan="2">태도 표현과 관련된 의미기능</th></tr>
<tr><td>주제 제시</td><td>주제 내용에 대한 지시</td><td rowspan="4">객관성 확보 장치</td><td rowspan="4">객관적 양태 의미 표현
－객관적 태도
-근거에 대한 태도
-주장에 대한 태도</td></tr>
<tr><td>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td><td>신정보에 대한 지시</td></tr>
<tr><td>전제 유발</td><td>맥락의 적절성에게 도움이 되는 (신·구) 정보에 대한 지시</td></tr>
<tr><td>텍스트 응결성 실현</td><td>명제 간의 논리적 연결
조응</td></tr>
</table>

위의 표에 따라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에 관련된 교육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주제 제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등 주로 명사절을 구성함으로써 텍스트 구조에 기여하는 의미기능에 대한 교육이다.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의미기능은 명사절의 형식으로 명제적 정보를 텍스트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해당 정보가 텍스트에서 맡는 역할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통하여 이들 기능의 가치, 실현 기제와 양상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또 다른 부분은 명제적 내용과 무관한데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객관성 확보 장치’ 의미기능에 대한 교육이다. 학습자에게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자로서의 자신의 객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기제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

3.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실제

이 절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최종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인 학 습자들이 실제 담화에서 자신의 의도에 맞게 명사화소 의미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겠다. 앞서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학습자가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해 체계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명사화의 의미기능' 부분이며 하나는 학습자가 명사화 의미기능을 실현할 때 정확하게 명사화소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 부분이다.

3.1. 명사화의 의미기능

외국인 학습자가 어떤 문법 형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보다 해당 문법이 언어 사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명사화의 의미기능을 명시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이들 기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여 실제 사용에 명사화를 사용하는 의식이 생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1.1. 텍스트 구조와 관련된 의미기능

텍스트의 구조와 관련되는 의미기능들이 주로 명사화 구문의 형식으로 텍스트의 주제, 전제, 관련 정보 등을 도입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명사화의 의미기능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명사화 구문의 생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명사화 구문의 양상 및 가치

문장은 텍스트를 구성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이다. 명사화는 문장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명사화 구문을 형성하는 것이며 명사화 구문의 형성은 명사화의 의미기능들이 실현되는 토대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선행해야 한다. 명사화 구문은 동사구 뒤에 명사화소를 붙여서 형성되는 것으로, 명사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동사구의 통사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문장에서 명사적 성분으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화 구문을 명사절 내포문이라고 한다. 이런 명사절 내포문이 문장의 정보성과 통사적 복잡성을 높일 수 있는데 한 문장은 하나 이상의 명사절 내포문을 포함할 수 있다.

본고는 명사화 구문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형식을 소개한 후에 명사화가 사용되는 의의에 대한 탐색도 제시한다. 명사화 사용의 의의를 제시하는 것은 후행하는 명사화 의미기능 교육에 대한 준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명사화의 각 의미기능 유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학습자가 명사화 사용의 의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를 갖게 되면 후행 교육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분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학습자가 명사화 구문의 기본적인 양상을 인식하게 된다.
2, 학습자가 명사화 사용의 의의에 대해 기본적인 인지를 갖게 된다.

교육 내용 예시
1, 명사화 구문이 무엇인가? 동사구 : 사과를 먹다 + 명사화소 “-(으)ㅁ/-기/ 것’ ↓ 사과를 먹음

사과를 먹기 사과를 먹는 것
2, 명사절 내포문이 무엇인가? 명사적 성분으로 한 문장의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화 구문이다. (1) 하나의 명사절 내포문이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동생이 사과를 먹는 것을 싫어한다. ↓ 목적어 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절 내포문 A 팀이 우선했음이 분명해요. ↓ 주어 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절 내포문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험에 떨어졌다. ↓ 부사어 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절 내포문 잠을 자기 전에 우유를 한잔 마셔. ↓ 관형어 성분으로서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명사절 내포문 (2) 하나 이상의 명사절 내포문이 문장 구성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내포+내포) 주어 명사절 ‘자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어 명사절 ‘자신이 실패했음’을 내포한다. 돈을 많이 버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내포+ 접속) 명사절 ‘돈을 많이 버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접속 조사‘과’에 의해 서로 접속된다.
3, 명사화 사용의 의의에 대한 탐색 (1) ㄱ. 야구대회의 결과를 알아요? A 팀이 우승했어요. ㄴ. 야구대회에서 A 팀이 우승했음을 알아요? (2) ㄱ. 강아지가 지난주에 죽었어요. 세민이가 그 일을 알게 되어 지금 울고 있어요. ㄴ. 세민이가 강아지가 지난주에 죽었음을 알게 되어 지금 울고 있어요. 위에 제시된 예문을 비교해 보면 통사적으로는 명사화가 적용되는 문장(1 ㄴ),(2 ㄴ)의 **통사적 복잡성**이 더 높다. 의미적으로는 밑줄 친 명사절 내포문이 밑줄 친 명사 어휘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명사화가 적용되는 문장이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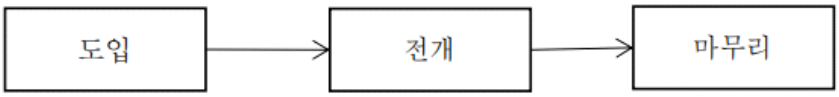
(2) 텍스트 구조에 기여하는 의미기능

명사화는 주제를 제시하거나 신정보를 도입하거나 전제를 유발하거나 조응을 실현함으로써 텍스트의 전체적인 구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의 기본적인 구조에 따라 명사화가 텍스트의 각 단계에서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신정보의 초점화'와 '전제 유발'은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와 연관되며 명사화라는 비전형적인 형식으로 명제 내용에게 부수적인 화용적 의미를 더하는 언어 전략으로서의 기능이다. 이 부분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텍스트 구조에 기여하는 명사화 의미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2, 명사화가 텍스트의 각 단계에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인식하게 된다.
3, '신정보의 초점화'와 '전제 유발'과 같은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는 언어 전략으로서의 명사화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

교육 내용 예시

1, 텍스트 구조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는 항상 '도입- 전개 -마무리'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도입' 은 텍스트가 논의하려는 주요 대상을 제시하는 단계이며 후행 내용이 전개되는 방향을 결정한다. '전개'는 논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논증하는 단계이며 논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한다. '마무리' 부분은 논증이나 설명의 결론을 내세우는 단계이며 선행 논의 내용을 종결하고 주제를 다시 회복한다.

2, 각 단계의 명사화 적용

위에 제시된 텍스트 구조의 각 단계에 따른 명사화 적용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 구조의 단계	명사화 적용
도입 단계	텍스트 내에 텍스트 주제로서의 지시 대상을 명사구로 제시한다.
전개 단계	주제 요소를 다시 언급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도입함으로써 조응한다/ 전면적인 논술을 위해 문장이나 문단의 주제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마무리 단계	텍스트의 핵심 요소를 다시 지시함으로써 주제를 회복한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텍스트의 도입 단계는 논의하려는 대상, 즉 주제를 제시하는 단계인데 이 논의 대상은 명사 어휘로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명사화를 통해서 문장 단위의 메시지를 포함하는 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예시를 보면 '아이가 수학을 못하다' 동사구가 명사화되어 주제로서 제시되어 있다. 전개 단계에는 명사화가 주제 핵심 요소를 포함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도입함으로써 텍스트 주제에 대한 조응을 실현할 수 있으며 논술 과정에 개별 문장이나 문단의 주제도 제시할 수 있다. 마무리 단계는 명사화가 텍스트의 주제를 다시 회복하고 전체적인 응결성에 기여한다.

구체적인 예시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것(텍스트 주제 제시)이 많은 부모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것(주제 핵심 요소를 다시 언급함으로 조응)은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가 집중하지 않고 게으르다 또는 수학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관련성 있는 정보로 조응)으로 책임을 미루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얼마나 있을까? 부모와 교사들도 아이들을 도와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고 격려를 많이 해줘야 한다. 교사의 경우에 아이의 적성에 맞는 교수 방법을 찾는 것(문단 주제 제시)은 중요하다.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하여 문제를 푸는 것만 중요시하는 것(문단 주제와 관련된 신정보의 도입)이 아이들의 수학 학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가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따라서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것(텍스트 주제의 회복으로서의 조응)은 아이만의 책임이 아니다. 부모와 교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3, 명사화의 언어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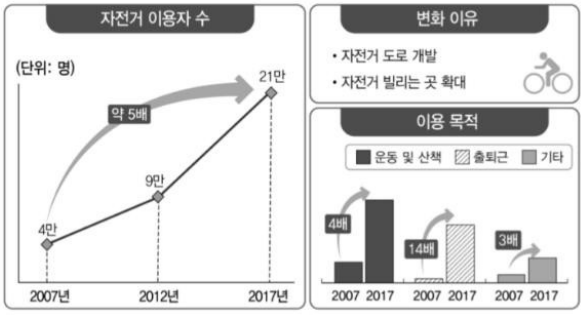
명사화가 담화의 의미 전달에 기여하는 기능은 지시 대상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명사화의 언어 전략적 가치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신정보의 초점화

신정보는 청자가 전에 모르는 것이고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다. 근데 청자의 입장에 모든 신정보에게 동등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 이 때는 가장 중요한 신정보가 청자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초점화하면 의도하는 것을 전달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 예시를 보자.

53. 다음을 참고하여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글을 200~300자로 쓰시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 (30점)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를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4만 명에서 2012년에는 9만 명,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TOPIK 제60회 53번 문항 모범답안)

위 문단은 도표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묘사하고 있다. 도표를 보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이지만 특히 2012년-2017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는 선행 내용과 같은 동사적 표현을 쓰지 않아 명사화를 택하여 2012년-2017년간의 변화를 **초점화하였**다.

② 전제 유발

전제는 담화 맥락을 뒷받침하는 배경 정보이다. 일반적으로는 구정보로서의 전제가 화자와 청자가 공유되는 기지 정보이다.

예시:
ㄱ. 세민이가 동생이 많이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ㄴ. 그렇게 어린 아이가 심한 병을 걸리는데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위의 대화에서는 '세민이의 동생이 많이 아프다'는 전제가 화자와 청자가 다 알고 있는 배경 정보로서 담화 전개의 적절성을 유지한다.
실제 담화에서 담화 맥락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보를 구정보처럼 보이게 하고 암시적으로 수신자(청자나 독자)가 신정보를 받아들이게 하는 제보적 전제가 의미를 전달하는 효율성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보자.

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TOPIK 제35회 54번 문항 모범답안)
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굴지의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위 예시 중의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 아니다'는 주장의 적절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이다. 독자에게는 '굴지의 기업 총수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정보는 예시(ㄴ)처럼 동사적 표현으로 제시되면 독자의 논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ㄱ)과 같이 명사화된 후에 다들 알고 있는 배경 사실처럼 보이고 **암시적으로 독자에게 전달된다.**

3.1.2. 태도 표현과 관련된 의미기능

명제적 정보와 달리 양태적 의미는 어떤 실제적인 내용을 의미하지 않아 발신자의 태도 표현과 연관된다. 이러한 태도 표현은 명제적 내용과 직접적인 의미적 관련는 없지만 수신자가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양태적 의미(태도 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2, 명사화가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기제를 인식하게 된다.

교육 내용 예시
1, 양태적 의미(태도 표현)란 무엇인가? 언어 사용자가 자신의 의미하려는 내용을 서술할 때 태도를 다르게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데에 타인의 반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적 태도를 통해서 단언성을 약화시킨다.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명제 내용**: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롭다. A. 나는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나는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확신한다. C.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로울 것이다 D.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이다. E.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이 확실하다. F,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된 문장들의 명제적 내용은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해롭다 ' 는 것인데 서로 다른 표현 방식에 의해 양태적 의미도 다르게 드러내고 있다. 예문(A, B)에서는 주장을 내세우는 주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서 주관적 양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C)에서는 추측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추측의 주체가 배제되어 강한 단언성도 완화

표현에 의해 약화되어 (A, B)에 비해 객관성이 강하다. 예문(D, E, F)에서는 명제 내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처럼 제시되어 객관적 양태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들 예문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이나 객관적 양태 의미를 느껴보고 수신자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강한 문장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할지 탐구해보도록 하자.
2,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화 위의 예문들에서 나타나는 명사화 표현을 통해서 명사화가 **객관적 양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 장치인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은 명사화가 텍스트에서 객관적 양태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을 알아보자. **① 대상화** 변화할 잠재성을 지닌 동태성을 정적 상태성으로 전환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인다. 텍스트에서 어떤 근거를 서술할 때 동사적 내용을 정적 사물로 대상화함으로써 해당 근거를 객관적 존재처럼 제시하고 근거의 설득력을 향상시킨다. 실험에서 바이러스는 플라스틱 표면에서 24시간 생존하였다. 실험에서 바이러스는 플라스틱 표면에서 24시간 생존하였음으로 보인다. **② 거리 두기** 동사적 표현이 항상 직접적·주관적 시각으로 어떤 대상을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적 의식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 명사화가 인식의 주체를 언어 표현으로부터 배제하고 필자와 서술 대상 간에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 양태 의미를 드러낸다. 텍스트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다. 예시: 1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완화화** 논증적 텍스트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과하게 주관적 태도를 드러내면 주장의 설득력에게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완화 표현으로서의 명 사화 표현 '-ㄹ/을 것이다'가 주장의 단언성을 완화하고 주장을 독자에게 강요하는 주관적 태도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객관적 양태 의미가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예시: 배고픈 예술가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배고픈 예술가가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3.2.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

Ⅲ장의 학습자 텍스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담화에서 명사화소 간의 대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면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에 각 명사화소의 의미적 특성을 의미기능 실현 제약과 연계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명사화소

‘-(으)ㅁ, -기’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은 자체의 의미적 특성과 연관되며 명사화소 ‘것’의 경우는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의미적 특성과 연관된다.

(1) 명사화소 ‘-(으)ㅁ, -기’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

앞서 명사화소 ‘-(으)ㅁ, -기’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의미기능 실현 제약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명사화소 ‘-(으)ㅁ’은 [과거성], [현장성]과 [결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 일반적인 개념이나 확실되지 않은 추론에 적용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명사화소 ‘-(으)ㅁ’은 텍스트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한 객관화를 실현할 수 없다. 명사화소 ‘-기’는 [동사성], [미래성]과 [미결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명사화 정도가 낮으며 과거적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전제’와 ‘객관성 확보 장치’의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다.

다음은 학습자 텍스트에서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못해서 생긴 오류 예시이다.

(69)
[CKL-53-3]: 인주시는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기와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기는 그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수정]: 인주시는 자전거 도로를 개발했음과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음은 그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CKL-53-3]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다’와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다’ 동사구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성]을 드러내는 명사화소 ‘-기’와 결합할 수 없다. [수정]을 보면 명사화소 ‘-(으)ㅁ’이 의미적으로 과거적 사실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명사화소 ‘-(으)ㅁ, -기’의 의미적 특성과

의미기능 실현 제약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소 '-(으)ㅁ, -기'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

1, 명사화소 '-(으)ㅁ, -기'의 지시기능 제약

지시 기능이 대부분의 명사화 의미기능이 실현되는 토대이다.

의미기능	의미기능의 실현 기제
주제 제시	하나 이상의 의미 단위를 포함하는 주제에 대한 지시
텍스트 응결성 실현	주제 핵심 요소/주제와 관련된 내용/서로 논리적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지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신정보로서의 사태·사건에 대한 지시
전제 유발	전제로서의 사실에 대한 지시
객관성 확보 장치	확실한 근거에 대한 지시

다음은 명사화소 '-(으)ㅁ,-기'가 지시 기능을 바탕으로 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받는 제약을 알아보자.

① -(으)ㅁ

'-(으)ㅁ'의 의미적 특성	지시 기능 제약
특정성(일회성)	일반적인 개념을 지시하지 못함 예시: 세민이가 노래함을 좋아한다. (× 일반적인 총칭)
과거성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나 확실하지 않은 일을 지시하지 못함 예시: 눈이 옴을 기대하고 있다. (×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
완료성	
결정성	

② -기

'-기'의 의미적 특성	지시 기능 제약
총칭성(일반화)	일회적인 사건을 지시하지 못함 예시: 계획을 세우기에 따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되었다. (× 일회적인 사건)
미래성	과거적 사건을 지시하지 못함 예시: 그의 죽기를 알게 되었다. (× 과거의 사실)
미완료성	
미결정성	

2, 명사화소 '-(으)ㅁ, -기'의 의미기능 제약

① -(으)ㅁ

	의미기능	제약
지시와 관련된 의미기능	주제 제시	과거적・현재적・일회적 사태나 사건에만 적용
	텍스트 응결성 실현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전제 유발	
	객관성 확보 장치	확정될 수 없는 주장에 적용 못함

② -기

	의미기능	제약
지시와 관련된 의미기능	주제 제시	미래적・총칭적 사건이나 개념에만 적용
	텍스트 응결성 실현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전제 유발	적용 못함
	객관성 확보 장치	

(2)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의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 자체가 [비명시성]과 [화맥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시대상에 대한 의미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것'이 명사화 구문을 생성할 때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기 때문에 지시대상의 시제적 의미에 따라 적절한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해야 한다. 즉,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이 실제 담화에서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받는 제약의 핵심은 시제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이다. 다음은 학습자 텍스트에서 시제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류의 예시이다.

(70)
[CKL-54-32]: 우회가 겪으면 말을 다툼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교류할 것은 좋은 방법이다.
[수정]: 우회가 겪으면 말을 다툼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교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CKL-53-20]: 한국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수정]: 한국은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0만 명에 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CKL-54-32]에서 ‘더 자세히 교류하다’가 특정한 일회적 교류를 의미하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이럴 때는 일반적·현재적 의미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이 적합하다. [CKL-53-20]에서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이라서 미래적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ㄹ’을 선택해야 한다.

이 부분의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시제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과 명사화소 ‘것’의 의미기능 수행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 예시: 명사화소 ‘것’의 관형사형 어미 선택 제약

1,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적 의미 특성

관형사형 어미	시제적 의미 특성
는	현재적(일반성) 예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하기를 좋아하다.
은/ㄴ	과거성·특정성·완료성·결정성 예시: 저는 남의 험담을 한 것을 후회했다.
을/ㄹ	미래성·미완료성·미결정성 예시: 눈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2, 명사화소 ‘것’의 의미기능 실현 명사화소 ‘것’이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해야 한다.

의미기능	‘관형사형 어미+ 것’의 구체 양상 및 실현 기제
주제 제시	‘는/(으)ㄴ/(으)ㄹ 것’ ‘ㄴ 것’ - 과거적·일회적 사태나 사건에 대한 지시 ‘ㄹ 것’ - 미래적 사건에 대한 지시 ‘는 것 ’ - 현재적 사태나 총칭적 개념에 대한 지시
텍스트 응결성 실현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전제 유발	‘ㄴ 것’ 구성- 과거의 사실을 전제함 ‘는 것’ 구성- 사실이 아닐 수 있는 사태나 사건을 일반적인 사실로 대상화함으로써 화용적 전제를 설정함

객관성 확보 장치	근거에 대한 대상화 ‘는/(으)ㄴ 것’ :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대한 지시 주장에 대한 완화화 ‘(으)ㄹ 것이다’ : 주장의 주관적 단언성 약화

이상의 논의처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내용은 명사화 의미기능 체계에 대한 교육과 명사화소들의 의미기능 제약에 대한 교육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명사화라는 문법 현상의 화용적 가치, 의미기능의 세분 유형과 적용 양상을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후자를 통해서는 실제 담화에서 명사화 의미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을 체계화하여 각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방식과 제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분석한 후에 실제 담화에서 명사화의 의미기능이 작용하는 층위를 고려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한국어 사용에서 명사화소에 의한 통사적 명사화는 나타나는 빈도가 높고 통사·의미·화용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명사화 교육 연구들이 명사형 어미 '-(으)ㅁ, -기'에 많이 주목하여 명사화소 '-(으)ㄹ/(으)ㄴ/는 것'을 간과한 경향이 있으며 명사화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파악도 충분하지 않았다. 본고는 문법에 대한 활용 능력을 높이는 교육 내용이 통사·의미적 문법 지식에 국한되어 언어의 실제 사용 맥락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학습자들이 명사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명사화가 실제 담화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화용적 의미에 주목하여 명사화의 의미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명사화소에 의한 명사화 유형 간의 명사화 정도와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사화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위한 교육 내용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명사화의 담화 화용적 기능을 탐색하였고 '주제 제시, '신정보의 도입 및 초점화', '전제 유발', '객관성 확보 장치', '텍스트 응결성 실현' 다섯 가지 가지로 유형화하여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를 구축해 놓은 후에 명사화소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의 의미기능 실현 양상과 의미적 특성 때문에 받는 의미기능

실현 제약에 대해 각각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명사화 의미기능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는 동시에 한국어 능력 시험 모범 답안 텍스트를 보강 자료로 삼아 Ⅱ장에서 분석된 명사화 의미기능들이 실제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미기능 실현 양상과 오류 양상을 파악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명사화소 의미기능 교육 방안에 대한 제시는 '명사화의 의미기능'과 '명사화소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전자는 명사화 의미기능에 관한 개념적 지식으로서 학습자들이 명사화의 의미기능 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를 갖게 되도록 하는 내용이며 후자는 명사화 의미기능에 대한 실제 사용과 연관되어 학습자가 적절하게 명사화소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명사화의 의미기능을 실제 언어 사용과 연계하여 분석하여 의미기능 체계를 구축한 후에 명사화소 '-(으)ㅁ, -기,-(으)ㄹ/(으)ㄴ/는 것'의 명사화 기능소로서의 의미기능 실현 제약을 규명하였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담화에서 명사화소를 활용하는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위해 이론적 전제와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교육 내용화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서

강경민(2018), 논설 기사 분석을 통한 관형절의 담화 화용적 기능 연구, 국어교육연구 4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강경민(2019), 한국어 관형절 교육 내용 연구: 담화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 80, 우리말글학회.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재필(2017), 한국어 완화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국립국어원(2005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립국어원(2005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권재일(1981), 현대국어의 {기}-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글 171, 한글학회.

권재일(1982), 현대국어의 {음} —명사화 내포문 연구, 한국어문논집 2, 한서대 한국어문연구소.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김건희(2021), 국어 명사화와 명사화된 절에 대한 일고찰, 국어학 97, 국어학회.

김규훈(2010), 국어교육: 텍스트 중심 문법교육의 원리,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김미자(2005),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통사구조, 언어연구 22,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김민선(2018), 한국어 화제의 속성과 실현 기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서형・홍종선(2010), 문법 교육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확대문 교육 방안 —관형사절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김선영(2020), 한국어 학습자 중간언어의 시간 표현 체계 및 변이 양상,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2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일환・ 박종원(2003), 국어 명사화 어미의 분포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 42, 국어학회.

김정은・이병규(2015), 국어교육학: 설명문 텍스트의 맥락과 구조 연구, 새국어교육 105,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정자(2001), 필자의 표현 태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호정(2006), 담화 차원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텍스트언어학 2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흥수(1993), 명사화 관련 “ 것” 구조에 대한 의미, 기능적 접근, 어문학논총 1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김흥수(1995), 명사화의 담화 기능과 문체 양상, 어문학논총 1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남가영(2009), 문법지식의 응용화 방향-신문텍스트에 나타난 ‘-(다) 는 것이다’구문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형태론 11-2, 형태론.

남기심・고영근(1985, 개정판, 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노유경(1996), 완화적 표현(Hedge) 교육 내용 연구: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금현(2004), 전제의 유형, 한국어 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문숙영(2017),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84, 국어학회.

박나리(2008), 학술논문의 텍스트성 분석-의도성 (intentionality) 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2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나리(2012), ‘-는 것이다’ 구문 연구-문법기능과 담화기능 그리고 화자의 담화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5, 국어학회.

소지영(2016),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소지영(2018), 문법적 은유로서 서술성 명사의 텍스트 응집 기능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115, 한국국어교육학회.

소해도(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명사형 어미 ‘-ㅁ’과 ‘-기’의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려평(2013), 中國人을 위한 名詞形 語尾 ‘-음’과 ‘-기’의 教育 方案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시령리(2019),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명사형 어미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명선(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 (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배달말학회.

신선경(1993), ‘것이다’구문에 관하여, 국어학 23, 국어학회.

沈在箕(1979), 冠形化의 意味機能, 어학연구 15-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안소진(2021), ‘-(으) ㅁ’ 명사절의 의미적 특징과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 국어학 100, 국어학회.

염재일(2005), ‘-겠’과 ‘-을 것’의 양태 비교 연구, 언어와 정보 9-2, 한국언어정보학회.

오주영(1998), 화용론과의미해석: 화행, 전제, 함축, 경성대학교출판부.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우형식(1995), 의존명사 ‘것, 바, 줄’의 분포와 의미기능, 한어문교육 3,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이관규(2018),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성과 텍스트 평가, 문법 교육 34, 한국문법교육학회.

이금주(2002), 현대국어 지시현상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삼형(1999), 텍스트 구조 분석 연구: 화제 전개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슬비(2016),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신형(2010), 인지문법에 근거한 화제와 초점, 청람어문교육 42,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인영(1996), 주제와 화제-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어학연구 32-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정수(2001), 담화 화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3-2,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이정훈(2011), 통사구조 형성과 명사구 및 동사구, 국어학 60, 국어학회.

임지룡(2004), 장면의 인지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35-1, 성곡언론문화재단.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정려란(2018), 국어 문법적 은유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접근, 한국어문교육 26,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정재형(1987), 초점과 그 표현 유형, 문창어문논집 24, 문창어문학회.

정재훈(1999), 체계·기능 언어 이론의 이해, 언어정보 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정주리(2006), -음,-기의 의미와 제약,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조인옥(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 영향 특성 연구-중국 산동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 '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 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채완(1979), 명사화소 (名詞化素)'-기'에 대하여, 국어학 8, 국어학회.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정진(2016), 명사구와 관련된 정보구조와 한정성의 상관관계, 한국어 의미학 54, 한국어의미학회.

최재호(1995), 불어학: 전제의 기능과 특성, 불어불문학연구 30-2, 한국불어불문학회.

최형기(1991), 명사화 {-음}, {-기}의 의미기능, 국어국문학연구 14, 원광대학교 인

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팽령매(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명사형 어미 교수・학습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송화(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전성 어미에서의 오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홍사만(2006), 국어 의존명사 {것}의 사적 연구, 어문론총 44, 한국문화언어학회.

홍종선(1983), 명사화 어미 '-음'과 '-기',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황선영(2015), 학문 목적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으)ㅁ', '-기' 명사절 인식 및 생산 연구, 언어와 문화 1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황현동(2020),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해외 논저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Subject and topic.

de Oliverira, L. C. & Schaleppegrell, M. J. (2016), *Focus on grammar and meaning*, Oxford University Press, 민현식・신범숙・이지연・임수진・소지영 옮김(2018), 『의미 중심의 문법교육』, 역락.

Daneš, F. (1964), *A three-level approach to syntax*, Travaux linguistiques de Prague.

Givón, T. (1983),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Vol. 3), John Benjamins Publishing.

Halliday, M. A. K. & Hasan, R. (1976), *Cohesion in English*, Longman.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Hatch, E. M. (197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bury House Publishing.

Lambrecht, K. (1996),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Vol. 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Lyons, J. (1977), *Semantics*, Volume I. Cambridge UP, Cambridge, 강범모 역 (2011), 의미론 1 의미 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Lyons, J. (1977), *Semantics*, Volume Ⅱ. Cambridge UP, Cambridge, 강범모 역 (2013), 의미론 2 의미와 문법, 맥락, 행동, 한국문화사.

Knapp, P. & Watkins, M. (2005), *Genre, text, grammar: Technologies for teaching and assessing writing,* UNSW Press, 주세형・김은성・남가영 역 (2007), 장르, 텍스트, 문법: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도서출판 박이정.

Sheldon, A. (1974),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Yule, G. & Widdowson, H. G. (1996).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陈平(2009), 英语名词化及其建构的意义, 中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5-3.

程晓堂(2003), 名词化与语用预设, 外语研究 第3期.

范文芳(1999), 名词化隐喻的语篇衔接功能, 外语研究 第1期.

曾庆敏(2006), 英语中的名词化隐喻及其语篇功能，重庆工学院学报 20-3.

Abstract

An study on the Education of Semantic Functions of Nounization pixel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Focusing on '-(으)ㅁ, -기, -((으)ㄹ/(으)ㄴ/는) 것'

LI ZEN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emantic function system for Korean nounization pixels from a grammatical educational perspective and prepare an educational plan that enables Chinese learners to realize the functional meanning of Korean nounization and select nounization pixels properly according to their own expression intention.

Through the education centered on grammatical knowledge, learners can learn the syntactic function and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nominalization, which is difficult to relate to the actual discourse context. Even if the syntactic function is well understood, it is hard for studentd to determine the nominalization should be used in what situation , so the ability to actively use the nounization pixels is weak. This paper aims to increase the ability to use nounization pixels as the final goal of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is paper established the semantic function system of nominalization. Detailed semantic function types were subdivided into ‘topic Presenting’, ‘introduction and focus of new information’, ‘induction of preposition’, ‘device to ensure objectivity’ and ‘realization of text cohesion’. Through this system, learners will know what semantic functions nominalization has in actual language use and how it contributes to communication effects as a language strategy, and will have a sense of using nominalization for

communication purposes.

The nounization pixels are functional elements that can make the non-noun composition a noun composition and has a similar syntactic function as it gives the non-noun expression a noun property, but due to the difference in semantic characteristics, they show different aspects in performing the semantic function. Therefore, it is also an important task to understand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each noun pixel in detail. This paper goes one step further from the semantic function system of the grammatical phenomenon of nounization, in order to make learners enable to accurately select and use noun pixels according to context in actual use, and even deals with the aspects of each noun pixel performing these semantic function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Chapter Ⅲ conducted text analysis for Chinese learners to prepare educational plans. In terms of learners' realization of noun pixel semantic functions, there are various types of errors such as confrontation errors, avoidance errors, and excessive use of nominalization, reflecting learners' lack of awareness of the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and their weak ability to generate noun phrases.

This paper summarizes three educational implications by analyzing learners' use of semantic functions of nominalization. First, it is difficult

for learners to write nounized phrases using noun pixels, and the education content for Korean nominalization should focus on the explicit nounization pixel itself. Second, learners must be well aware of the semantic function system of nominalization to create a consciousness to utilize it positively. Third, the educational contents about semantic functional constraints received by each nounization pixel is to prevent errors in confrontation between nounization pixels .

In the proposal for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these implications were reflected and presented in two parts. One is the educational content for learners to recognize the semantic function system of nominalization, which focuses on the semantic function system and the working layer of the nominalization. Another part is to educate learners by linking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and semantic functional constraints of each nounization pixel in order to select nounization pixels proper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This paper is meaningful in establishing a semantic function system of nominalization from a Korean educational perspective and identifying the semantic value of Korean nominalization in actual language use for Chinese learners. Through these educational contents, Chinese learners will recognize the value of Korean nominalization as a language strategy, and will have the consciousness of actively using it and the

ability to distinguish and use nounization pixels.

Keywords : discourse, Korean education, nominalization, nounization pixels, semantic function

Student Number : 2020-27108